2020. 전교조경남지부

2020. 전교조경남지부 참교육 실천대회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자!

일시

2020.12.7.(월)
~12.12.(토)

장소

- 대면: 경남지부사무실
- 비대면: 줌(zoom)



여는마당

- 15:30 ~ 15:40(유튜브 라이브) | 여는 영상, 지부장 인사
- 15:40 ~ 17:00(유튜브 라이브) | 코로나시대의 미디어와 민주시민성-박승우(마산MBC미디어센터장)

분과마당

- 12.8.(화) ~ 12.11.(금) 15:00 ~ 16:40
- 12.12.(토) 10:00 ~ 12:00

신 청

- 11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http://naver.me/FBEIGFmj

※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분과 마당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분과는 줌(zoom) 화상 도구를 통해 진행되며 줌 ID와 비밀번호는 사전에 분과에서 안내 드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분과	일시	주제(내용)	발표자 (운영자)	운영방식
회복적 생활교육	12/8 (화) 15:00~ 16:40	회복적학교로 가는 좌충우돌 이야기	조양순	비대면 (줌)
학교 도서관	12/8 (화) 15:30~ 17:00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황혜란	비대면 (줌)
회복적 생활교육	12/9 (수) 15:00~ 16:40	학급에서 실천: 관계형성	황진희	비대면 (줌)
학교 도서관	12/9 (수) 15:30~ 17:00	초등 한 학기 한 권 읽기	박경미	비대면 (줌)
회복적 생활교육	12/10 (목) 15:00~ 16:40	가정에서 실천: 봉이네의 또 다른 교육문화	김채영	비대면 (줌)
통일 교육	12/10 (목) 15:00~ 16:40	통일수업사례: 비대면 통일놀이, 통일관련 온작품 읽기	박정현 송호선 성승현 임선경	비대면 (줌)
여성 위원회	12/10 (목) 18:00~ 20:00	페미니스트 교사를 선언한 사람들의 수다회	최현희 고영주	대면 (지부사무실) 비대면 교차
회복적 생활교육	12/11 (금) 15:00~ 16:40	학급에서의 실천: 갈등 전환	백정연	비대면 (줌)
비폭력 대화	12/11 (금) 15:00~ 16:40	1부: 비폭력대화 중재 알기 2부: 또래중재 및 학급중재 사례 나눔	이연미 송호선 신미희	비대면 (줌)
경남민주시민 교육연구회	12/11 (금) 15:00~ 16:40	1부: 남북을 갈라놓은 분계선들 2부: 평화통일 학년프로젝트 수업	1부:김태형 2부:박희란	비대면 (줌)
보건 교육	12/12 (토) 10:00~ 12:00	고등 교양보건교과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사례, 코로나19 끝장내기	김지선 김민지	비대면 (줌)
청소년 분과	12/12 (토) 15:00~ 17:00	청소년 인권 운동과 전교조가 연대하는 방법 (2019.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평가를 중심)	윤남식 진냥	비대면 (줌)

차례

1. 특강 (코로나시대의 미디어와 민주 시민성) 4
2. 회복적 생활교육 (가정에서의 실천사례) 21
3. 책과 정원이 어우러진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이야기 32
4. 그림책 한 권으로 한 단원 수업하기 45
5. 교실 속 온작품읽기의 실제 49
6. 3단계 비경쟁 독서토론 54
7.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기 59
8. 여성들의 어깨에서 먼저 내려오고 손잡기 71
9. 남고에서 메갈 인증? 77
10. 지역에서의 인권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 81
11. 심리학으로 살펴본 남과 북 127
12. 현행 조례들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비교, 검토 170
13.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 183
14. 코로나19 관내 확진환자 발생 관련 교내 대응조치 193
1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방역관리 등 조치계획 195
16. 고등 교양보건교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사례 200
17. 코로나19 끝장내기 236
18.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중재 249
19. 소통하고 공감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요 260
20. NVC 중재모델로 진행한 학급또래 갈등 중재 264

2020 전교조경남지부 참실대회
여는 마당



코로나시대의 미디어와 민주시민성

MBC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장 박승우

차례

- 전교조에 대한 단상
- 미디어의 이해
- 코로나19와 미디어
- 미디어와 시민
- 에필로그



강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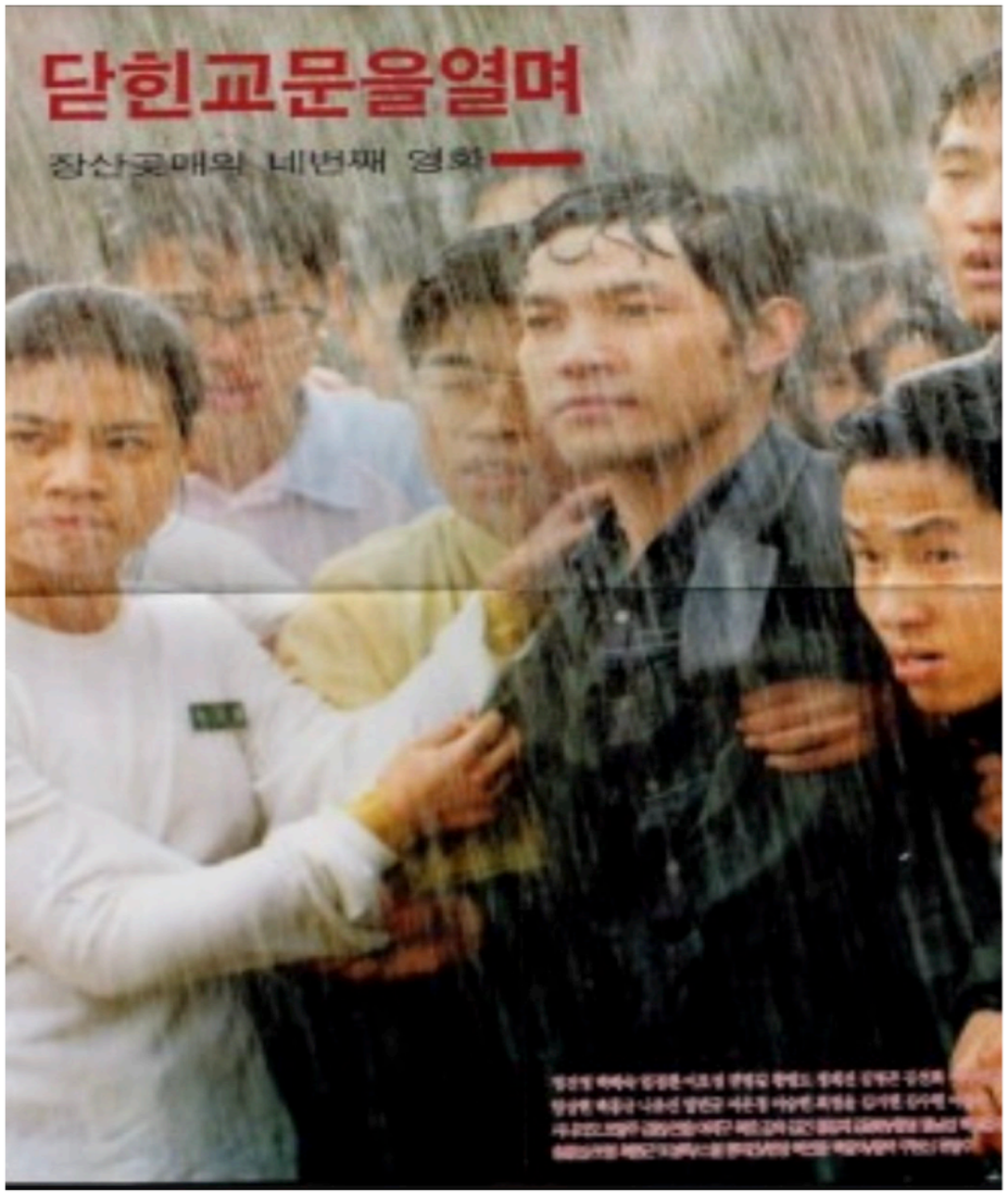


박 승 우

MBC경남 시청자미디어 센터장

-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장
-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사
- 사단법인 경남민예총 부이사장
- 사단법인 경남독립영화협회 대표
- 부마항쟁 ‘그날의 기억’ 다큐멘터리 감독(1999)
- 미군에의한 민간인 학살 ‘옛날 이야기’ 다큐멘터리 감독(2001)
- 경남영상공모대전 심사위원장
- 1990년 마산MBC FM ‘0시의 음악 편지’ 진행
- 1999년 마산MBC ‘라디오광장’ 진행
- 시청자제작프로그램 TV보물상자 제작, 기획
-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열려라 라디오’ 제작, 기획, 진행

전교조에 대한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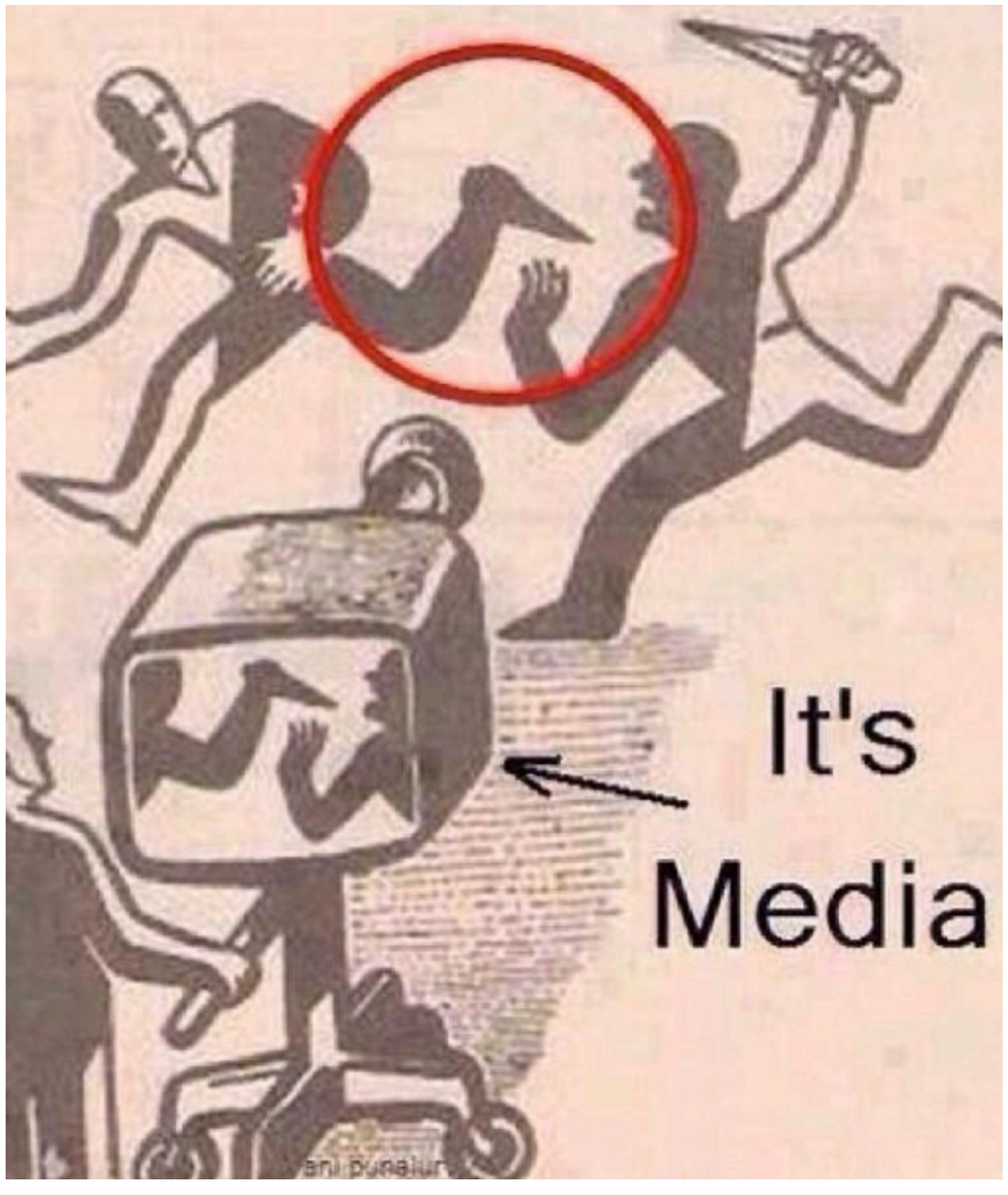

닫힌교문을열며
장산곶매와 네번째 영화


또다시
앞으로


THATCHER
LESBIANS & GAYS
THE MI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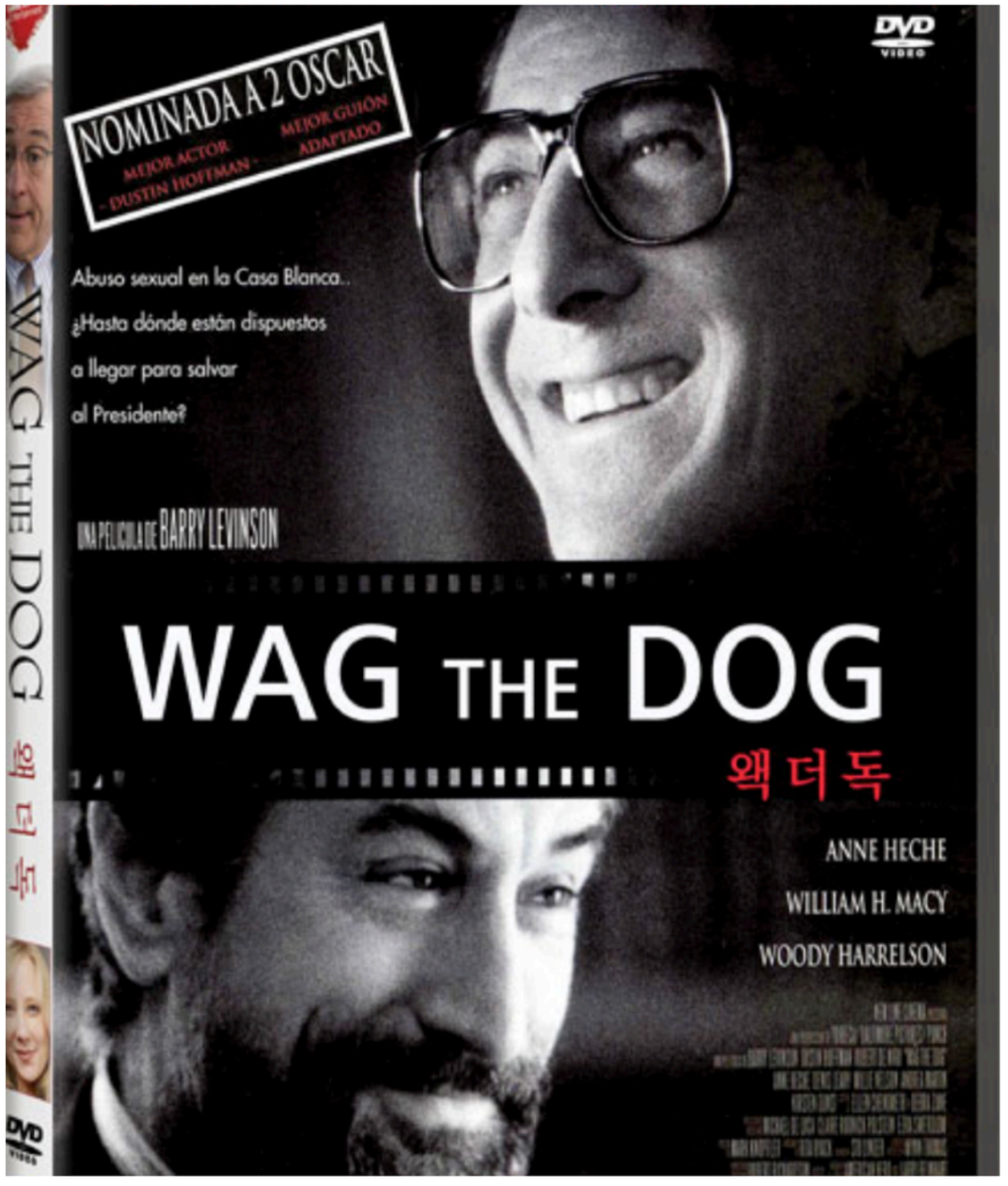
미디어의 이해

- 미디어 리터러시
- 퍼블릭 엑세스
-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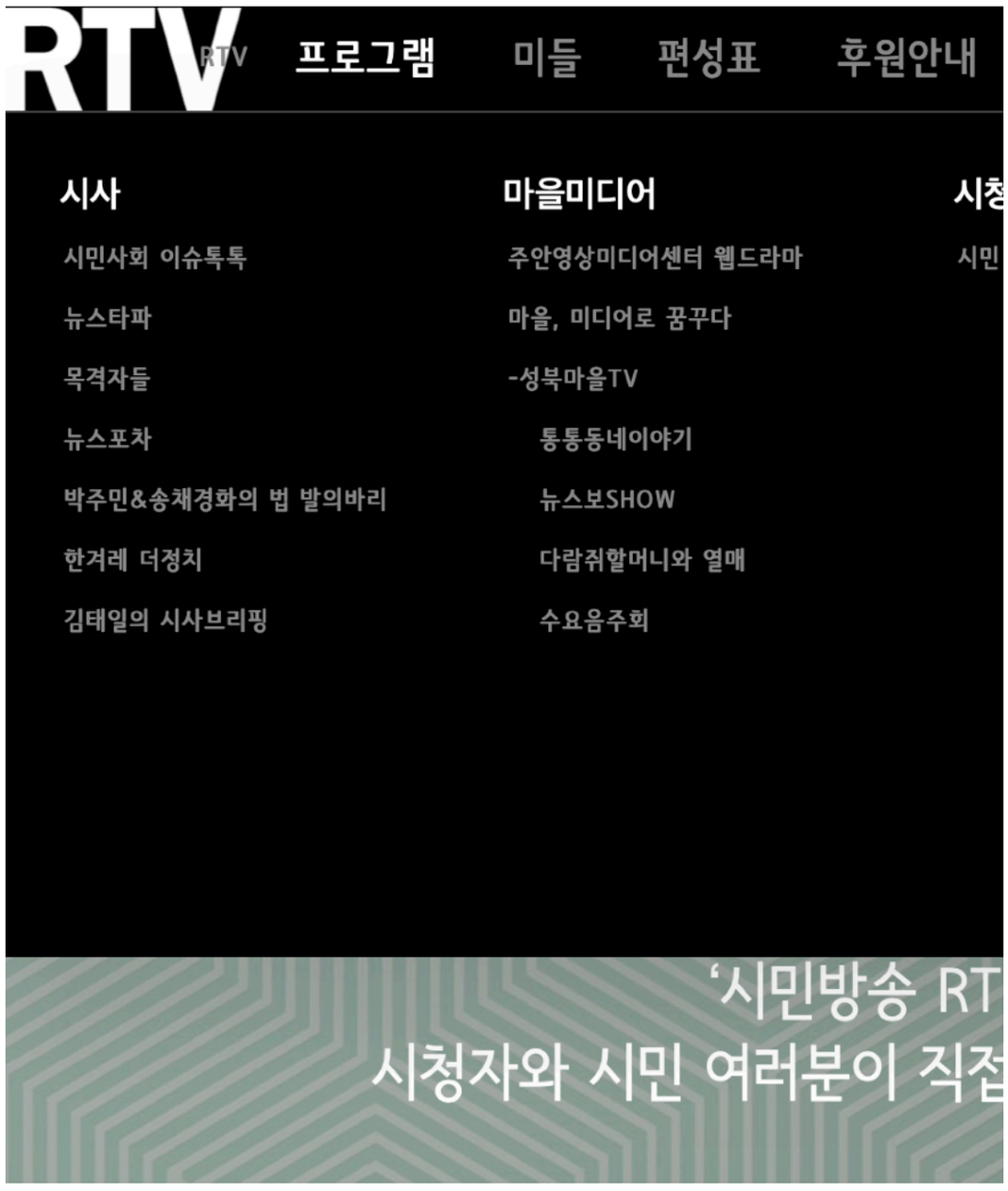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둔 현직 대통령이 걸스카우트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된다. 야당 후보 진영에서 즉각 비난 성명을 내고 매스컴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백악관 참모진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알바니아를 반미국가로 지목해 폭격했다는 가짜 뉴스를 배포한다. 선거국면은 이 뉴스쇼로 뒤집힌다.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해 화제가 된 영화. 선거 때 북풍조작이 정가의 쟁점이 된 우리나라에서도 시의적절한 소재가 돼 버렸다.



퍼블릭 엑세스



-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참여
- 능동적 생산자로서의 시청자
- 미디어 권력에 대한 저항
- 시스템, 정보에 대한 접근, 취재의 한계

- 우리의 이야기
- 내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
-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와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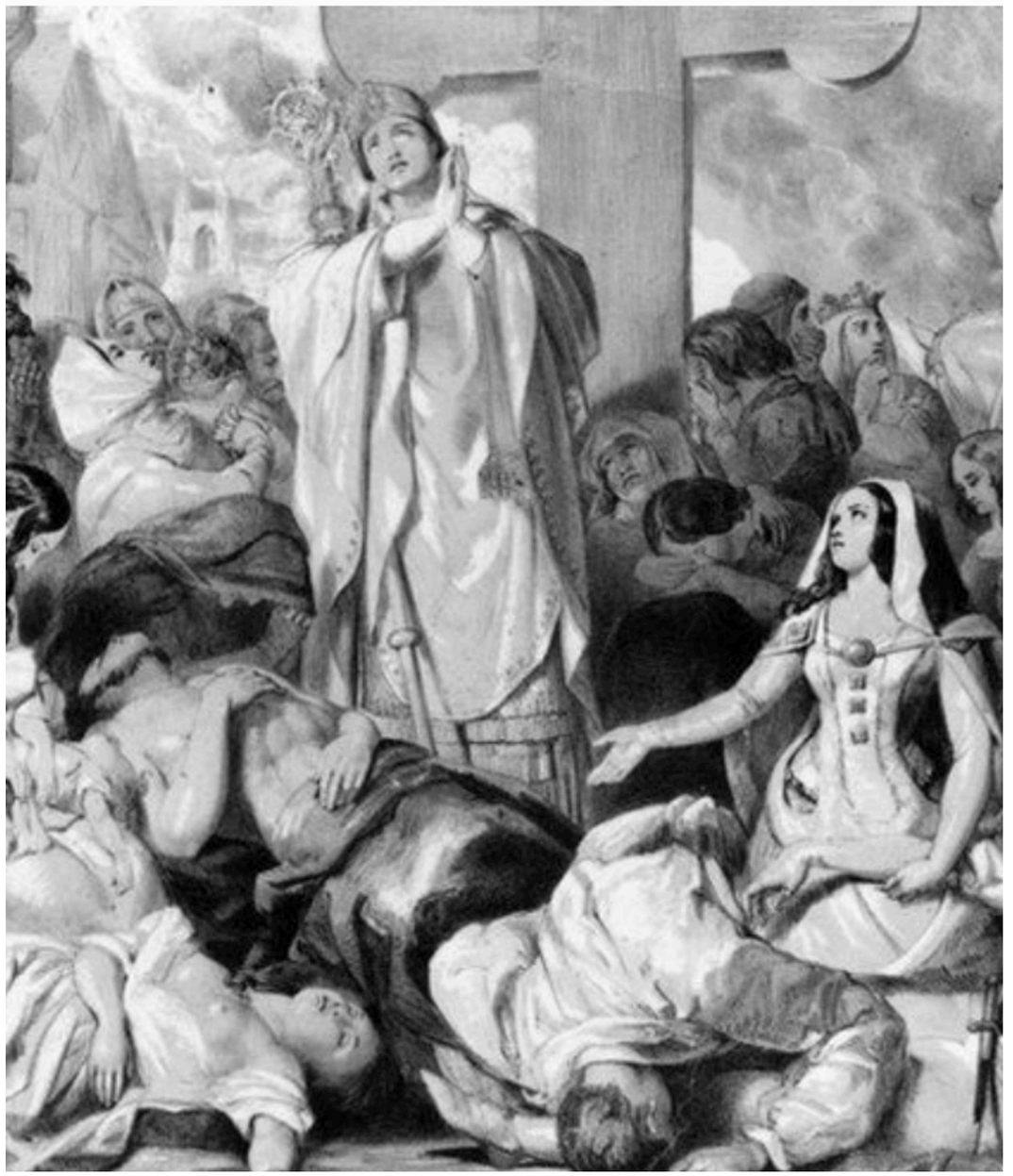
코로나19와 미디어

- 흑사병과 르네상스
-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흑사병과 르네상스

-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흑사병이 가져온 새로운 시스템
- 흑사병이 없었다면?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 기존 시스템의 붕괴
-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와 시민

- 도구로서의 미디어
- 미디어의 본질
- 사회적 미디어



도구로서의 미디어



- 전쟁에서의 미디어 역할
- 인식 전환 도구로서의 미디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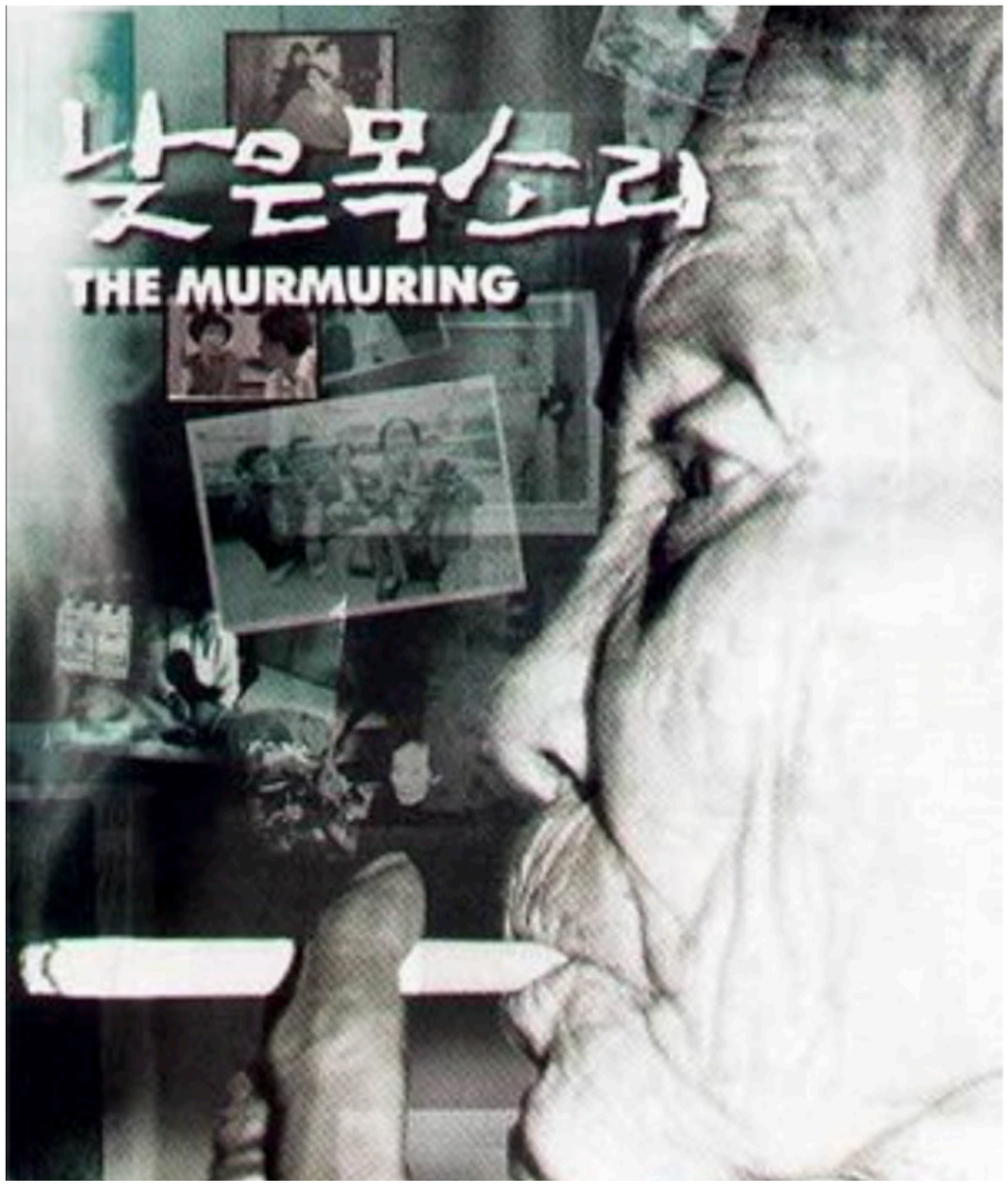


미디어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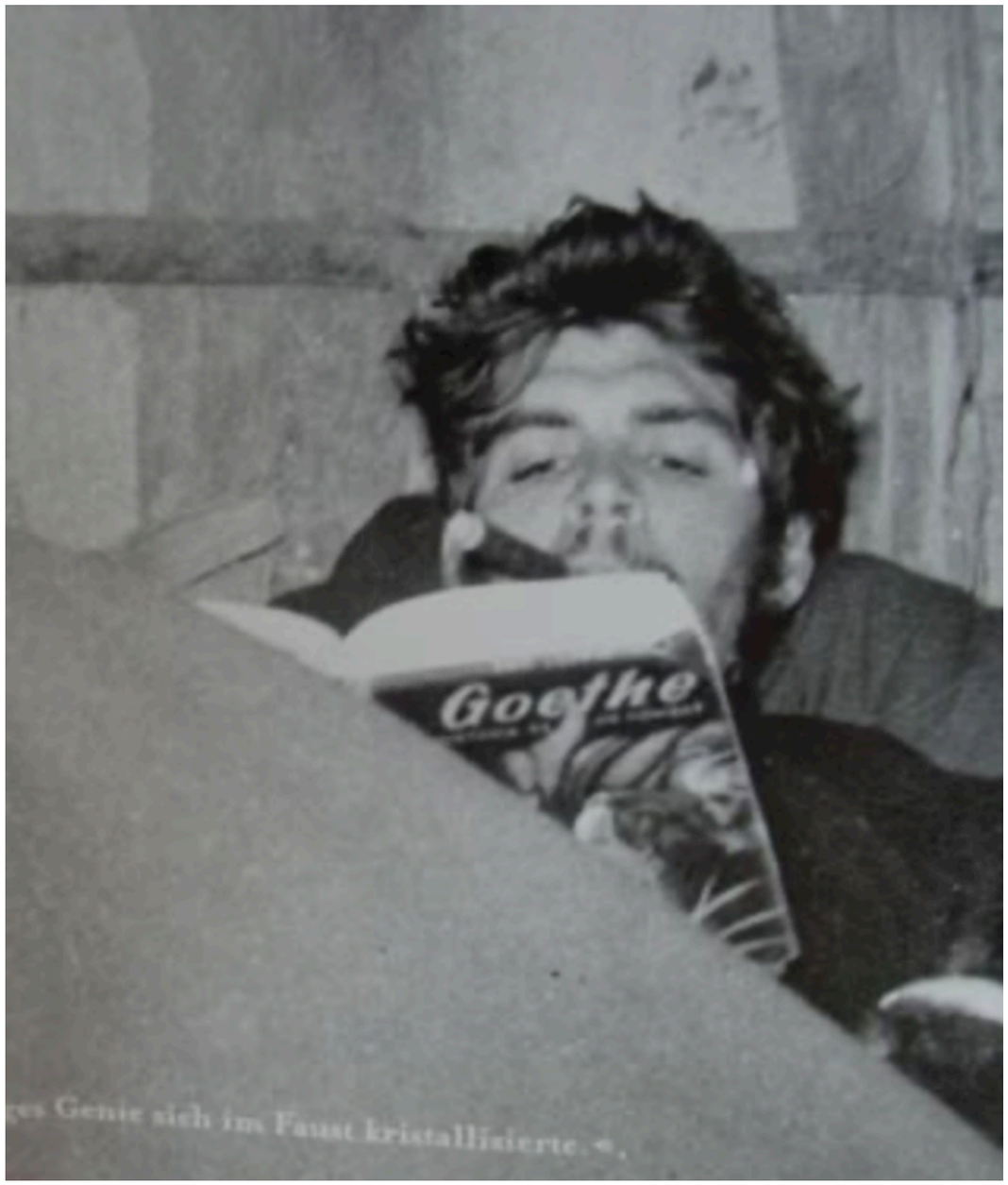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와 작은 책방
- 소통과 표현으로서의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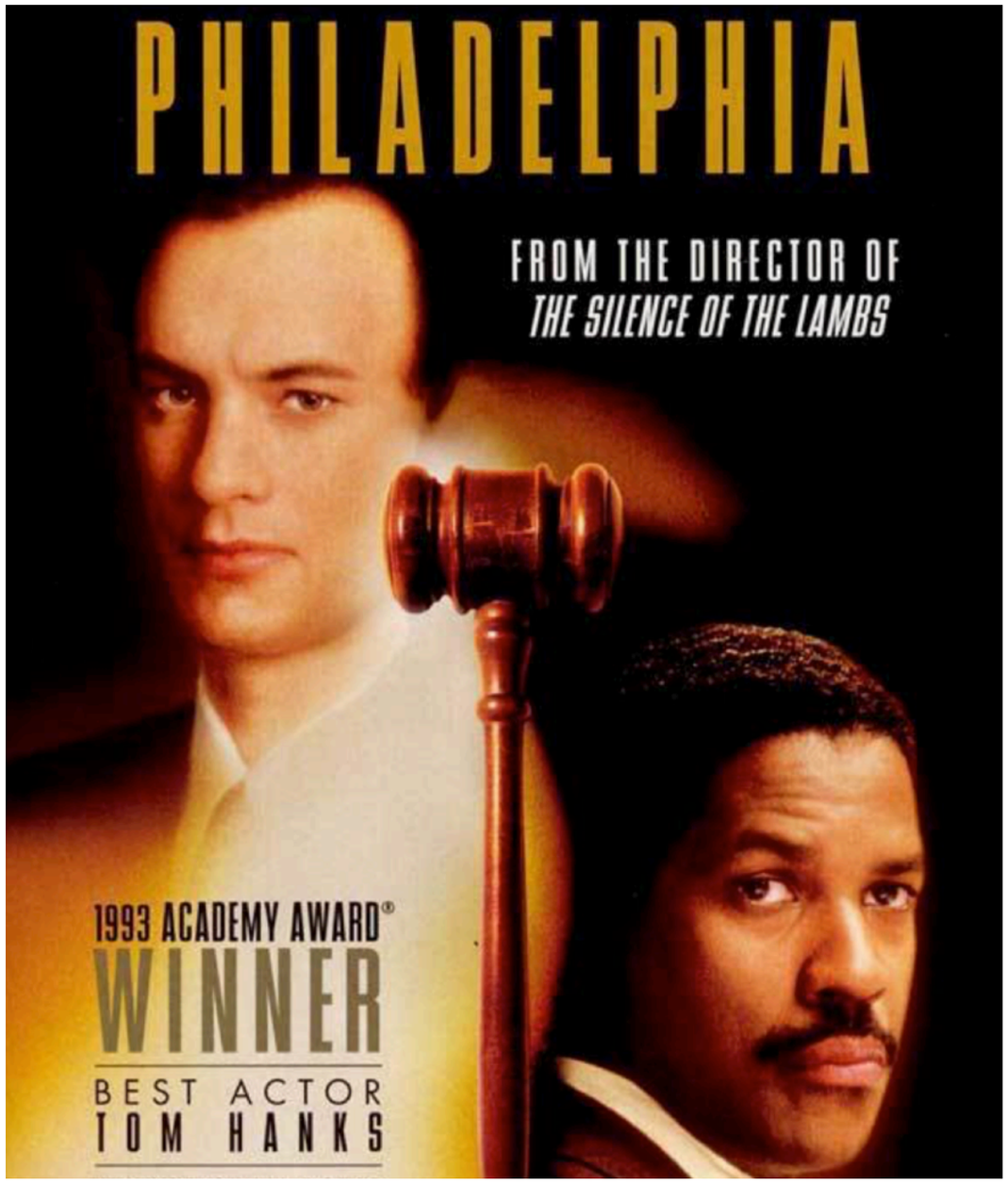
사회적 미디어



- 소수자를 대변하는 목소리
-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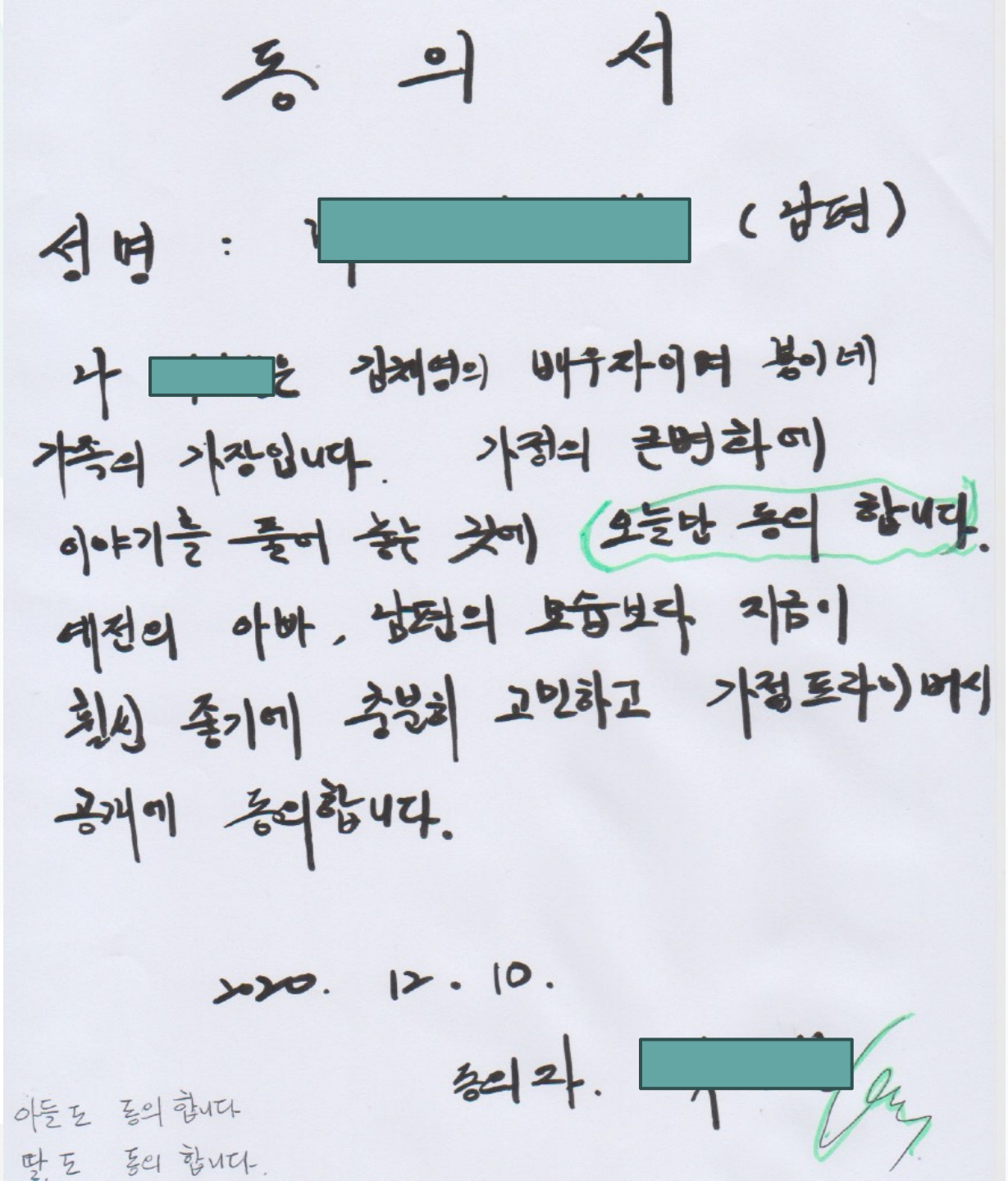
에필로그


Goethe
ges Genie sich im Faust kristallisierte.«


PHILADELPHIA
FROM THE DIRECTOR OF
THE SILENCE OF THE LAMBS
1993 ACADEMY AWARD®
WINNER
BEST ACTOR
TOM HANKS

회복적생활교육 나눔(가정에서의 실천사례)

봉이네의 또 다른 교육문화



동 의 서

성명 : [redacted] (남편)

나 [redacted]은 김체영의 배우자이며 봉이네 가족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큰명하에 이야기를 들어 놓은 것에 오늘날 동의 합니다. 예전의 아빠, 남편의 모습보다 지금이 최선 좋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가정드라이버서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0. 12. 10.

동의자. [redacted]

아들도 동의합니다
딸도 동의 합니다.

식탁에 앉아 지나가는 말로
가족경험에 대한 ...
농담같이 했는데..
진담같이 훅~써주는 센스
정말 많이 변한 남편

회복적 생활교육에 힘이다

목 차

1. 봉이네 가족 (각자의 모습들)

2. 특별한 경험을 하다

3. 관심과 집중..

4. 봉이네 가족에게.....회복이란?

▶다섯째 목차

1. 봉이네 가족 (각자의 모습들)

* 남편의 또 다른 역할(자칭 우리집 4인자)

문중의 장손 , 4형제의 큰형, 큰아들, 아빠, 사위, 작지만 회사의 대표...기타등등..

여기서 빠진 중요한 한가지 고집불통...늘~~ 술님과 친구하신다...

* 중 3 아들..(자칭 우리집 4인자)

  또래들 보다 체격이 작아 어릴때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아이..

* 중 1 딸 (아빠말론 우리집 1인자)

  친해지기 너무도 오래걸린다는 소심쟁이 딸....

* 원더우먼 “나”(자칭 우리집 1인자)

2. 특별한 경험을 하다

* 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 연수)

* 또래 조정자..

* 가족여행에서 새로운 시도

4. 봉이네 가족에게 “회복이란”

행복해 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정하면 된다 !!!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되 니까 ^^

이기 뭐꼬? 꼭 해야되나? 아빠! 일단 앉아봐봐







3. 관심과 집중

* 꿈과 목표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

* 우리가족 시스템(다르게 말하기)

4. 봉이네 가족에게 “회복이란”

행복해 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정하면 된다 !!!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되 니까 ^^

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회복되는

행복한 삶을 응원드립니다.^^

책과 정원이 어우러진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이야기
- 과거를 담고, 미래를 품은 학교도서관-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황혜란

2000년대 초반 책 읽는 문화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실현하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작된 도서관 문화 운동은 어느덧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즈음 문화방송 '느낌표'라는 주말 예능프로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전 국민적인 독서 열풍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을 시작으로 학교 구석의 창고처럼 존재했던 학교도서관도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사서교사로서 첫 발령을 받았던 2007년 창원의 한 중학교는 한 때 42학급에 복수 교감이 있었던 아주 큰 학교였다. 불과 14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의 학생 수는 3분의 1로 급감했으며, 학교는 자연스레 유휴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새로 개교하거나 아파트 밀집 구역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유휴 공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시민 사회의 힘이 커지고,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학교 교육과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교육계 내부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지원금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받는다. 예전에는 학교 공간이 부족했기에 대체로 교실 2칸에서 3칸 규모에서 학교도서관이 꾸려졌다. 지난 십 수년 동안 학생 수가 꾸준히 줄면서 예전의 학교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내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학교도서관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이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규모에 따른 차등적 금액 지원보다는, 학교당 최소한의 일정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비해 보면 현실화되지 못한 예산이 투입되었기에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학교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에 필요한 예산이 비로소 현실화되었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학교도서관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요구를 따르자.

우리 지역 내에서 넓게는 다른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한 학교도서관을 수소문하였다. 우리 지역의 우수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사례를 찾기 위하여 경남사서교사협의회,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경남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례를 찾았다. 타 지역의 우수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사례를 찾기 위하여 전국사서교사 단체카톡방을 이용하였으며, 최근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업무를 진행했던 사서교사를 찾아 직접 인터뷰하거나, 지역별로 우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례를 추천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학교도서관을 사전 조사한 후 우리 학교에 적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학교도서관,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려진 학교도서관, 지원 받은 예산이 비슷한 학교도서관으로 추려서 여러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견학하였다. 강원지역의 춘천여고, 서울지역의 영신고, 인헌고, 숙명여고, 중대부속고를 견학하였다. 경남지역은 사천 용남중(학교도서관 단독 건물), 창원 용남초(중앙현관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창원 신월중(3억 지원교)을 돌아보면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간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 도서관 적용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견학하는 학교도서관에 가서는 담당 선생님께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 학생들이 잘 활용하는 공간을 물어보았으며, 특히 직접 리모델링 업무를 한 선생님께는 리모델링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공사 완료 수 아쉬운 부분과 수정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꼭 물었다. 요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결과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된다. 더불어 꼭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다양한 학교도서관 사진 자료를 받아 비교해 볼 수 있다.

여러 학교도서관을 견학하게 되면 각 학교마다 도서관의 위치, 학교 동선, 중점 컨셉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상황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사실 각 학교도서관을 탐방해보면 어떤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참 힘들다.

또한 요즘은 도서관보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에도 커피숍이나 학습카페 등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왜 도서관보다 그 곳을 선호하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혹 각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탐방을 가게 된다면 그 지역의 좋은 공공도서관이나 서점, 북카페, 커피숍 등도 함께 견학하기를 권한다. 이제는 도서관 자체의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도서관 공간과 개념도 변화해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공간 디자인 참고할 만한 사이트〉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학교공간혁신): http://학교공간혁신.kr/
* 유튜브 => "학교 공간 혁신", "도서관 리모델링", "공간 혁신" 등으로 검색

학생들이 상상하면, 어른들이 실현시키다.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하여 도서부와 학생회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위의 다양한 공간(카페, 스터디카페, 만화방, 서점 등)에 대한 소개, 도서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것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 공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고, 도서관 역할에 대한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사전 교육이 끝나고 난 뒤 지혜의 바다(경남교육청), 경남대표도서관(경남도청), 창원대학교도서관 등 도서관 투어와 함께 커피숍, 만화카페, 서점 등 다양한 공간의 인사이트 투어를 진행하였다. 마침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공간탐색'을 주제로 한 전시회(2019.05.30.~2019.08.18.)가 열리고 있어 학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공간의 다양성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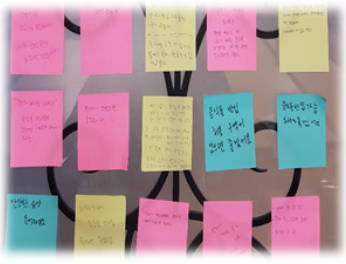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도서부와 학생회 학생들에게 현재 도서관 이용을 위한 이동 경로 및 이용 범위를 조사하고, 각 시간대별(수업시간, 쉬는시간, 식사시간) 학생들의 학교 공간 이용 현황 및 이동 동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록하도록 하였다. 도서부 학생들은 평상시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불편했던 부분과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학생회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 앉아서 책 읽을 공간이 없어요
- 프로젝트실이 너무 교실같아서 앉아서 책 읽고 싶지 않아요.
- 도서관 자료를 찾을 검색대가 부족해요
- 서가 사이가 너무 좁아 이동하기 힘들어요
- 도서관이 너무 어두워요
- 별관에서 오기 힘들어요

<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 설문 결과>

- 언제든지 와이파이가 되는 도서관
- 영화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도서관
- 만화카페에 있는 2층 다락방
- 동아리 활동 공간이 필요해요
- 쉴 수 있는 공간이요.
- 편히 누울 수 있게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짜파구리를 먹을 수 있는 매점과 결합된 도서관
- 카페 같은 도서관
- 새 책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 유튜브 찍고 싶어요
- 푹신한 쇼파, 빈백, 쿠션이 있는 편안한 도서관
- 서가 사이가 넓었으면 좋겠어요
- 복사기나 프린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학교도서관 설문조사 취합하는 모습]

다양한 조사 후 학교 공간 구석구석을 찾아 본 뒤 학교도서관이 위치할 최적의 장소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학생들은 당황해했다.

“선생님 저희가 찾아 온다고 정말 도서관을 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도서관이잖아?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서관 위치가 어딘인지 너희들의 시선에서 찾아보렴. 도서관 위치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실현해 보고 싶지 않아?”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반신반의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에 귀담아 주는 선생님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에 많은 의견을 쏟아 냈다. 이후 학교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시 학생위원도 포함하였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예쁜 공간인 중정(中庭)과 학교도서관이 연결되는 곳을 최적의 위치로 정하였다. 건축사가 학교도서관을 설계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추진위원회 학생위원들의 발표 모습]

도서관 설계 전에 꼭 미리 살펴야 할 것들!

-각종 법률과 지침 찾아보기-

학교도서관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할 법률과 지침들이 있다. 소방법, 구조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석명공사 여부 등을 반드시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각 교육청에는 각급 학교 교구·설비기준이 있으므로 살펴보고, 도서관에 필요한 비품 등을 챙겨보도록 하자.

-학교도서관 공간 실측하기-

학교 평면도에 있는 공간 크기를 믿지 말고, 도서관 공간의 폭과 높이, 너비 등을 정확하게 실측하도록 한다. 특히 복도 공간과 합쳐질 경우 기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나중에 공간 구성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실 넓이는 규격화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동일하겠지만, 실측하면 학교 평면도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챙기기 바란다. 특히 창원명지여고는 평면도에서 천정 높이가 260cm으로 나와

있는데, 실측하니 높이가 253cm이였다. 처음에 학교에 오면 학교 공간이 좀 좁게 느껴졌는데, 이는 천장의 높이가 타 학교에 비해 최소 7cm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천정 높이에 따라 창의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시 우리 학교 천정의 높이를 미리 파악한다면 설계시 더 좋은 학교도서관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 장서량 및 비품 파악하기-

실질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건축설계사는 도서관 공간의 크기와 위치 파악만 하고, 도서관에 있는 비품이나 장서량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담당자가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설계 후 서가 공간이 부족해져서 난감해지거나, 건축설계사가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이전 도서관에서 폐기할 비품과 계속 사용할 비품들을 파악하도록 하며, 특히 설계사가 설계하는 기간 동안 비품 조사를 하고, 장서점검 후 폐기 자료는 공사 시작 전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장서량에 대한 서가 개수 파악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전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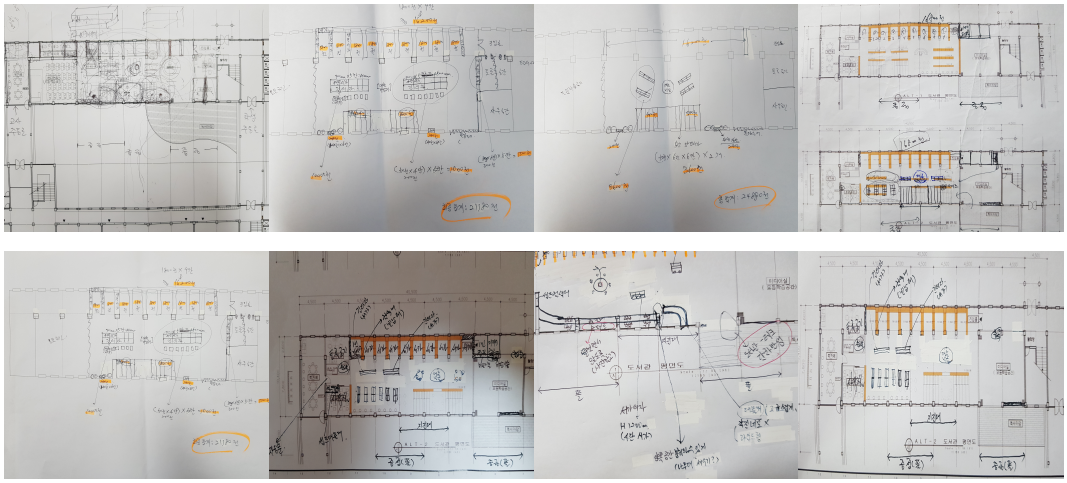
1. 현재 도서관 서가 한 칸에 최대로 들어가는 책의 수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90cm 서가 한 칸의 공간에는 대략 50권의 책을 꽂을 수 있다. 이때 최대 장서량의 75%인 37권을 서가 한 칸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창원명지여고의 보관 장서가능량은 17,000권에서 23,000권이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서가 개수를 예측한 결과 서가공간이 부족하여 6단 서가를 7단으로 조정하였다.

```
* 장서량 최대 보관시 -  23,000권 ÷ 50권(서가 한칸) = 460
                                  서가 최소 460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장서량 적정 보관시 -  37권 * 460칸 = 17,020권
                                  서가 460칸에 약 17,000권 정도 가능하다.
```

2. DLS상에서 주제별 장서량을 파악하여 서가 공간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각 주제별 서가 공간을 얼마나 부여해야 할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100번대의 주제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뒷칸으로 넘어가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안내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한 같은 주제는 가능한 한 동선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한다.

-도서관 공간 분할해 보기-

자료·열람공간, 학습공간, 소통공간, 관리공간 등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공간들이 있다. 이런 공간들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사전에 메모해 두도록 하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사전에 고민해 보면서, 설계시 건축설계사에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어야 필수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필자는 학교도서관 이전할 곳의 평면도를 받아 100장이 넘게 직접 그려가면서 공간 분할을 고민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 동선과 출입구, 대출반납의 위치와 자료·열람 공간이었다.



<직접 손으로 평면도에 그려보았던 공간 분할 작업 자료들>

- 학교도서관 및 건축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기-

어느 정도 우리 도서관 공간에 대한 도서관의 큰 틀을 잡고 나면, 학교도서관 혹은 건축 전문가에게 보여서 컨설팅을 받아 수정보완하는 것도 좋다. 일전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서직원, 학교도서관을 잘 알고 있는 건축가나 문헌정보학과 교수에게 이뢰해 보는 것도 좋다. 더불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설계 전, 설계 수정시, 공사 기간 동안 여러번에 걸쳐 컨설팅 받을 수록 학교도서관 공간을 더욱 알차질 것이다.

학교도서관 컨셉 결정이 중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의 이동 동선, 학교 공간 이용 비율, 설문조사, 인사이트 투어 를 통하여 얻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학교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도서관 전체적인 컨셉과 실현 가능한 공간을 협의하였다. 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향후 도서관 공간 구성시 색감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받기 위하여 미술교사와 학교공간 구성에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대표자(학생회, 도서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창원명지여고 학교도서관 구성의 방향을 다음과 같다.

1. 학교 중앙 정원과 연결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
2. 책을 도서관 소품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3. 학교구성원들의 요구 중 실현 가능한 것을 추린다.
   - 1인 미디어 제작 공간, 토론실(동아리실), 2층 다락방, 무인대출반납기,
     무인복사공간, 카페 분위기, 예쁜 조명 설치 등
4. 학교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는 인테리어보다 실용적 공간 활용에 우선을 둔다.
6. 도서관과 중앙 정원에 데크를 설치하여 전시, 공연, 야외 독서 공간을 구현한다.

이렇게 학교도서관 구성 방향이 결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학교도서관 컨셉을 결정하기가 쉬워졌다. 창원명지여고 도서관의 컨셉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창원명지여고 책向봄 도서관 컨셉: '따로 또 같이'
  (용도에 따라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하거나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할 것)
- 메인 컬러: 우드 앤 블랙
  (기존 서가가 우드 컬러이기에 중앙 정원과의 어울리는 색상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 조합)
- 보유 장서량: 최소 18,000권에서 최대 23,000권 비치 가능할 것
- 설계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공간 구성: 도서관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출반납공간, 서가 사이 넓은 공간,
  다양한 열람공간(소/중/대규모 활동 공간), 2층 다락방, 1인 미디어 제작 공간, 개별 공간, 토론 공간, 사서교사 사무 공간

건축사 설계 의뢰하기 전까지 학교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는 가능한 많이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사서교사가 도서관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학교 상황을 놓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겨을 나누다보면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요즘은 지역교육청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촉진자 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건축사는 학교 및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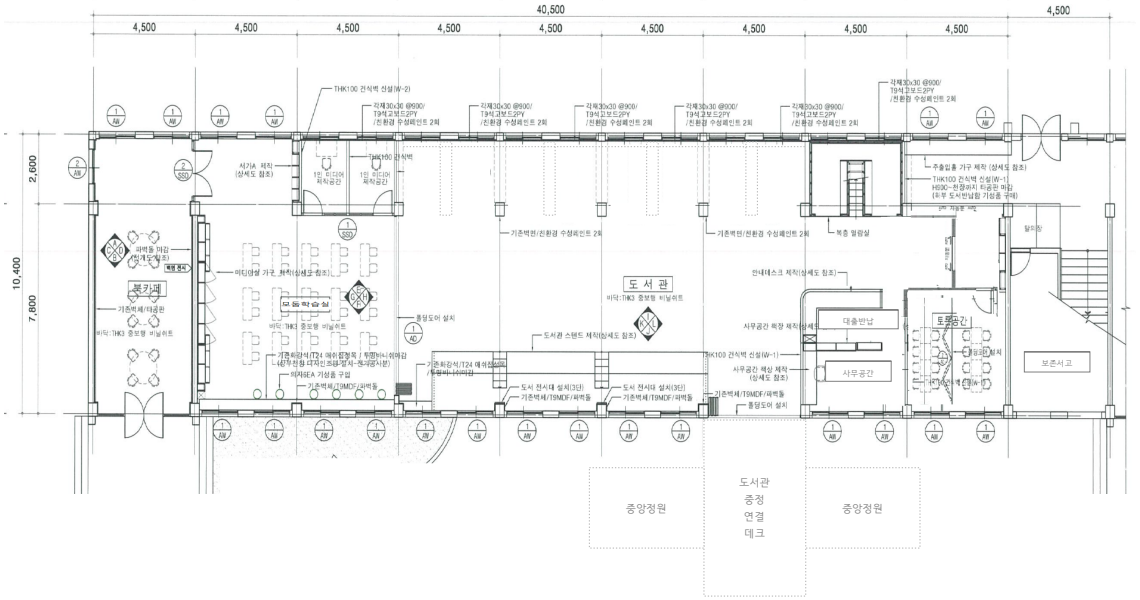
학교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도서관 컨셉이 결정되면 건축사에게 실질적인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를 의뢰한다. 필자는 경남에서 제법 크고, 유명한 건축 사무소를 소개받아 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사실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비용이 높지 않아 선뜻 하겠다는 건축사사무소가 그리 많지 않다. 어렵게 소개받은 건축 사무소에 창원명지여고 학교도서관 리

모델링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공간을 살펴보고 결정해 달라고 했다. 건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여러 공간들을 살펴보고, 도서관 컨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멋진 도서관이 나올 수 있겠다며,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건축사를 구하기 힘들었던지라 건축사의 강한 의지를 믿고 설계 계약을 하였다. 이것이 후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오게 될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무조건 크고 유명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좋은 설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진행해 보니 설계 건축사가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학교 행정 절차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다. 학교만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창 공사 중에 공사 중지 혹은 설계 변경, 설계 추가 등의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 설계시 반드시 소방법, 구조안전진단, 내진설계 등의 학교 공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축사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였다. 설계를 의뢰한 건축 사무소는 건축 설계쪽으로는 유명했지만, 건축사가 평상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 한 예로 건축사에게 설계시 예전 도서관에서는 서가 간격이 좁아 학생들이 넓게 배치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더니, 1만권 이하의 장서만 보관할 수 있는 서가 공간을 마련하였다. 서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 서가 사이를 50cm로 하여 서가를 빽빽하게 배치해 버리는 어이없는 설계를 하기도 했다. 건축사 개인의 평상시 도서관 이용 빈도 및 관심여부, 주변 벤치마킹 하고 싶은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거나, 직접 살펴보기를 요청하는 것이 도서관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건축사에게 최소한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건축 설계 기간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달에서 3달의 기간을 준다. 이때 기존 도서관에 있는 비품 중 사용가능 한 것과 폐기할 것을 점검하여 도서관 공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서점검을 통하여 폐기할 자료 구성도 재정비하면 좋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이 시기에 도서관 이사 준비도 하는 것이 좋다. 가장 큰 이사물품이 책이다. 서가에 있는 책은 청구기호에 맞게 순서대로 배가되어 있기에 이사시 흩어지면 나중에 정리하는데 힘이 엄청 든다. 이사시 벤딩기계로 서가에 있는 책을 그대로 묶어 옮길 수 있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거나, 요즘은 공공도서관에 간혹 벤딩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가까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건축사는 설계 초안을 준다. 처음 평면도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으니, 평면도 및 도면을 보는 방법 정도는 미리 알아두면 좋다. 건축사에게 1차 평면도가 나오면 생각보다 원하는 횟수만큼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 대부분 2번에서 3번 정도의 평면도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생각보다 평면도 수정이 많지 않으니, 설계 의뢰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건축사와 사서교사 둘 다 설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다. 평면도가 나온다고 설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 평면

도가 완성이 되면 그 평면도에 맞게 관련 어마무시한 도면 책자가 따라올 것이다. 공사 시 들어가는 재료, 그 재료의 단가에 따른 예상 금액, 시설 공사시 규격 등이 아주 꼼꼼하게 도면 책자에 하나하나 다 적혀있다. 향후 공사 업체가 결정되면 공사 업체는 도면에 있는 내역에 따라 공사를 하게 된다.



[완성된 도서관 설계 평면도]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 내역을 짤 때 사전에 건축사에게 요청하길 바란다.

1. 책장 및 수납장 재료의 두께는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22T 이상의 두께를 요구하고, 가능한 24T 이상의 두께를 선택하기를 권장한다. 대부분의 기성 가구의 두께가 18T인데, 일정 시일이 지나면 책의 무게 때문에 책장 바닥이 아래로 쳐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2. 다른 기성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테이블 혹은 앉는 의자 등을 표준화된 높이와 너비, 두께로 제작하도록 한다. 창가 테이블을 제작했는데, 책상 두께를 너무 두껍게 제작하여, 기성품 바의자가 테이블 안에 들어가지 않아 절삭하거나, 불편하게 이용해야 한다.
3. 도서관 책장을 너무 깊거나, 높게 만들어 5단 책장을 만들 수 있음에도 4단으로 제작해 버려지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책장 깊이가 너무 깊으면 책장 안에 책이 너무 깊이 들어가 시안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책장의 높이와 너비의 효율적인 사이즈를 재도록 한다.

좋은 공사 업체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이다.

학교도서관 설계가 완성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이 5천만원을 넘게 되면 무조건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 간혹 도서관 공사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 수의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켰는데, 내가 모르는 학교 다른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 금액과 합산해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므로 행정실에 사전에 도서관 공사와 함께 해야하는 다른 공사가 있는지 잘 알아보도록 한다. 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행정실에서 알아서 진행하니 사서교사는 그저 좋은 업체가 선정되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공사 업체를 잘 만나는 것은 학교 공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복불복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공개입찰이라 공사를 꼼꼼하게 도면대로 잘 해주는 업체가 선정될지, 서비스 시설을 추가로 많이 해주는 업체가 선정될지, 도면 수정 요청을 들어주는 업체가 선정될지는 입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공사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도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매일, 매시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세심함으로 도서관 공사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간혹 공사 업체 중 담당자가 세부 내역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공사 재료를 싼 것으로 슬쩍 바꿔 공사하기도 하니 매의 눈으로 살펴보자. 더불어 내역에 대하여 꼼꼼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약간의 전문용어 사용하여 재료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수고보다 더 확실한 공사 진행을 원한다면 감리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공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에 추천한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발생하기에 행정실과 잘 협의하도록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전기와 조명, 네트워크 시설, 음향 방송도 함께 시설 공사를 해야하기에 공사업체와 전기업체, 전자 기기업체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공사 기간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달에서 2달 반 안에 마무리된다. 공사 완료 후에는 꼭 청소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구하도록 한다. 공사 기간 중 공사 업체의 공사 진행 사항 점검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구입해야할 비품과 용품, 전자기기, 가구 등을 계획에 따라 구입하여 공사 완료 시점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창원명지여고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진행 절차]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사전 협의 및 공모 사업 신청	▸학교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계획 수립 ▸예산 확보(외부, 내부)를 위한 계획 ▸소방법, 구조안전진단, 내진설계 등 관련 법률 검토
우수 학교도서관 견학 및 전문가 컨설팅	▸우수 학교도서관 견학은 최소 5곳 이상 권장 ▸전문가(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건축 전문가 등) 컨설팅 요청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추진협의회 구성 및 학교도서관 컨셉 결정 (사용자 참여 설계)	▸성립전예산요구서 작성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추진협의회 구성 ▸학교도서관 컨셉 정하기 ▸학교구성원 참여 설계를 위한 의견 수렴
1, 2차 도안 협의 및 수정	▸학교도서관시설개선사업 협의회 개최 ▸설계시 부족 및 추가 공간 협의 ▸학교도서관 컨셉 및 요구 공간 설계 반영 확인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방향 협의	▸시공업체 선정 ▸도서관 공간 컨셉 및 학교구성원 요구사항 건축설계 반영 요청 ▸학교도서관시설개선사업 협의회 개최
바. 최종 도안 확정	▸학교도서관시설개선사업 협의회 개최 ▸도서관 장서점검 및 기존 물품 정리 ▸도서관전문이사업체에 이사 의뢰 (도서의 이동 등 전문업체 추천)
공사 착공 및 비품 구입	▸공사 시작 ▸설계도면대로 공사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공사 시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 연계 ▸시설공사 금액에 따른 필요 비품 구입
중간 점검	▸설계도면대로 공사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전기배선, 콘센트 위치, 냉·난방기 확인
최종 점검 및 정리	▸마감처리, 페인트 칠 등 확인 ▸가구 및 비품 등 자리 위치 확인 ▸도서관 전기 및 전산장비 연결 확인 ▸도서 정리 및 배열
최종 마무리	▸ 시공업체 검사 - 검수 후 공사 완료 ▸ 기타 정리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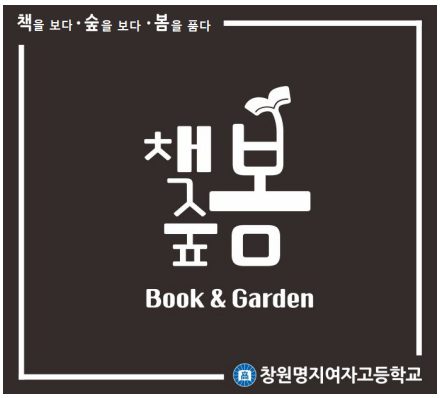
빛무리 도서관이 책숲봄 도서관으로

창원명지여고 이전 도서관 이름은 빛무리 도서관이었다.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새로운 도서관 분위기에 맞게 학교구성원들에게 도서관 네이밍과 로고를 공모하였다. 공모를 할 때는 새 도서관의 특징과 컨셉, 지향점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새 도서관에 이름을 붙여 주세요! 〉

- 중정의 푸르름을 품은 캠핑장같은 학교도서관 (도서관에서 바로 중정(中庭) 연결)
- 독서공간, 휴식공간, 토론공간, 공연공간 등을 보유한 복합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 각 공간의 고유한 특성도 갖고 있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면 또다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따로 또 같이' 의 공간 컨셉을 가진 학교도서관
- 헤먹, 빈백, 책다락방 등 카페와 같은 아늑한 분위기의 학교도서관
- 북카페, 미디어 제작실, 토론실 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이렇게 공모하여 선정된 도서관 이름이 '책을 보다 · 숲을 보다 · 봄을 품다'의 의미를 지닌 책숲봄 도서관이다. 아이들은 책숲봄 혹은 책봄 혹은 숲봄 혹은 봄 도서관으로도 부르는데, 잘 들어보면 자신들에게 더 다가오는 단어를 조합하여 부르는데,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 지는 만큼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책숲봄 도서관 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해지는 책숲봄 도서관을 꿈꾸며

수많은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요구, 완성되지 않던 설계, 생각하지 못했던 전기공사, 데크 설치, 어닝 등등 수많은 우여곡절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원명지여고의 책숲봄 도서관은 2020년 2월 말 완성되었다. 이제 아이들만 오면 되었다. 방학동안 어떻게 새 도서관이 만들어졌을지 궁금해 할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초롱초롱한 눈빛을 상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이 온 나라를 휩쓸었고, 학교에 학생들이 올 수 없었다.

5월부터 3학년 등교가 시작되었지만, 학교 공공 시설에는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 책숲봄 도서관도 굳게 잠겨 있어야 했다. 도서관 출입문에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조금이라도 새 도서관을 더 보려던 학생들의 모습이 참 예뻤다. 7월부터 전학년 등교가 되면서, 다시 학교가 학생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책숲봄 도서관은 학년별 요일제로 운영되고, 한 번에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원지역에서 지역 확진지자 2주일간 없는 날짜에 개학 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행평가와 시험으로 정신없이 바빴던 아이들에게 2020년 8월 11일. 2020학년도 1학기를 작은 힐링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숲봄 도서관에서 작은 가게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책숲봄 도서관 안에서의 아이들의 모습은 행복했고, 즐거웠다.

학교 구석구석을 발로 뛴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책숲봄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삶을 즐기고, 미래를 꿈 꿀 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mail: hhran9111@daum.net)

그림책 한 권으로 한 단원 수업하기

손 희 선

(북면초등학교 교사)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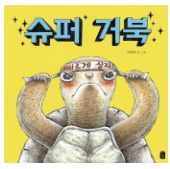
국어 한 단원을 공부할 때 교과서에는 차시마다 다양한 텍스트가 나옵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품 속 한 부분이나 짧은 텍스트, 하나의 장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단원을 배우니 배움이 연결되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다 한 단원을 한 권의 책으로 연결해서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교과서를 대신해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활동을 정하는 재구성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내용은 동학년 선생님과 나누고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단단해지고 아이들은 더 즐겁고 알차게 배웁니다. 같은 학년을 자주 하다 보니 재구성된 단원은 매년 또 활용하게 되고, 좋은 책을 발견하면 책만 살짝 바꾸어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본론

가. 그림책 한 권으로 한 단원 수업의 실제

1) 활용한 책



『슈퍼 거북』 유설화 / 책읽는곰 / 2018

노란 표지 속 거북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빠르게 살자'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하면 떠오르는 느림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라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슈퍼 거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얕잡아 본 토끼에게 이긴 후 '슈퍼 거북'으로 불리게 된 꾸물이가 주변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1학년은 아직 읽기가 서툴러서인지 새로운 이야기보다 많이 들어 본 친숙한 이야기

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그림과 많은 동물이 등장하는 점이 매력적이고 문장부호가 곳곳에 등장하여 '1학년 2학기 3. 문장으로 표현해요' 단원을 재구성할 때 활용 하게 되었습니다.

2) 수업의 실제

◆ 관련 단원

1학년 2학기 3. 문장으로 표현해요

◆ 교과역량

의사소통역량

◆ 성취기준

성취기준	학습 요소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 생각을 문장으로 나타내기 -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 받침에 주의해 문장 쓰기 -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쓰기
[2국04-03]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부호를 사용한다.	- 문장부호의 쓰임 알기 - 문장부호를 바르게 사용하기

◆ 책 한 권으로 한 단원 수업 과정

단계	차시	주요활동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1-2	◉ 책과 만나기 ▶'토끼와 거북' 옛이야기 들려주기 ▶표지, 면지, 속표지 등 살펴보기
		◉ 책 읽기 ◉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3	◉ 슈퍼 거북 이야기 속에서 문장부호 찾기 ◉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의 쓰임 알고 바르게 쓰기 연습 (국어 교과서 68-69쪽) ◉ 슈퍼 거북 이야기에 문장부호 넣어 문장 완성하기
	4	◉ 슈퍼 거북 속 그림을 보고 문장 만들기 놀이 ◉ 슈퍼 거북 속 그림 중 한 장면을 골라 문장 여러 개 만들기
	5	◉ 슈퍼 거북 속 장면을 보고 내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6-7	◉ 책 속에서 겹받침 찾기 ◉ 겹받침 공부하기(국어 교과서 80-83쪽)
	8	◉ 슈퍼 거북 이야기 다시 듣기 ◉ 슈퍼 거북 속 한 명을 골라 하고 싶은 말 쪽지 쓰기
	9-10	◉ 슈퍼 거북 등딱지 꾸미기

		◉ 친구 작품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감상평 적기 ◉ 바른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하고 소리 내어 읽기

3) 주요활동 소개

■ 문장부호 배우기

문장부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골라서 나눠주고 각자 소리 내서 읽어보았습니다. 1학기에 배웠던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를 먼저 찾아본 후 그 차시에 배울 작은 따옴표와 큰따옴표도 찾았습니다. 새로 배우는 문장부호는 국어 교과서로 종류와 쓰임 적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6가지 문장부호를 슈퍼 거북 장면에 맞게 넣어보며 한 번 더 익혔습니다.

■ 그림을 보고 문장 여러 개 만들기

슈퍼 거북 속 그림 중 이야깃거리가 많은 장면을 6개 골라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로 문장 만들기 놀이를 먼저 합니다.

1. 카드를 뒤집어 놓고 순서를 정한 뒤 한 명이 카드를 뽑습니다.
2. 뽑은 카드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듭니다.
3. 옆으로 돌아가며 문장을 만들고 못 만드는 친구는 탈락으로 넘어갑니다.
4. 마지막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갑니다.(똑같은 문장은 만들면 안 됨)
5. 카드를 뽑은 친구 다음 사람이 또 카드를 뽑고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6.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친구가 이깁니다.

놀이하면서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놀이가 끝난 뒤 카드 중 자기가 제일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카드를 골라 활동지에 붙이고 문장을 씁니다.

■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장면 속 모습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장면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합니다.

■ 등장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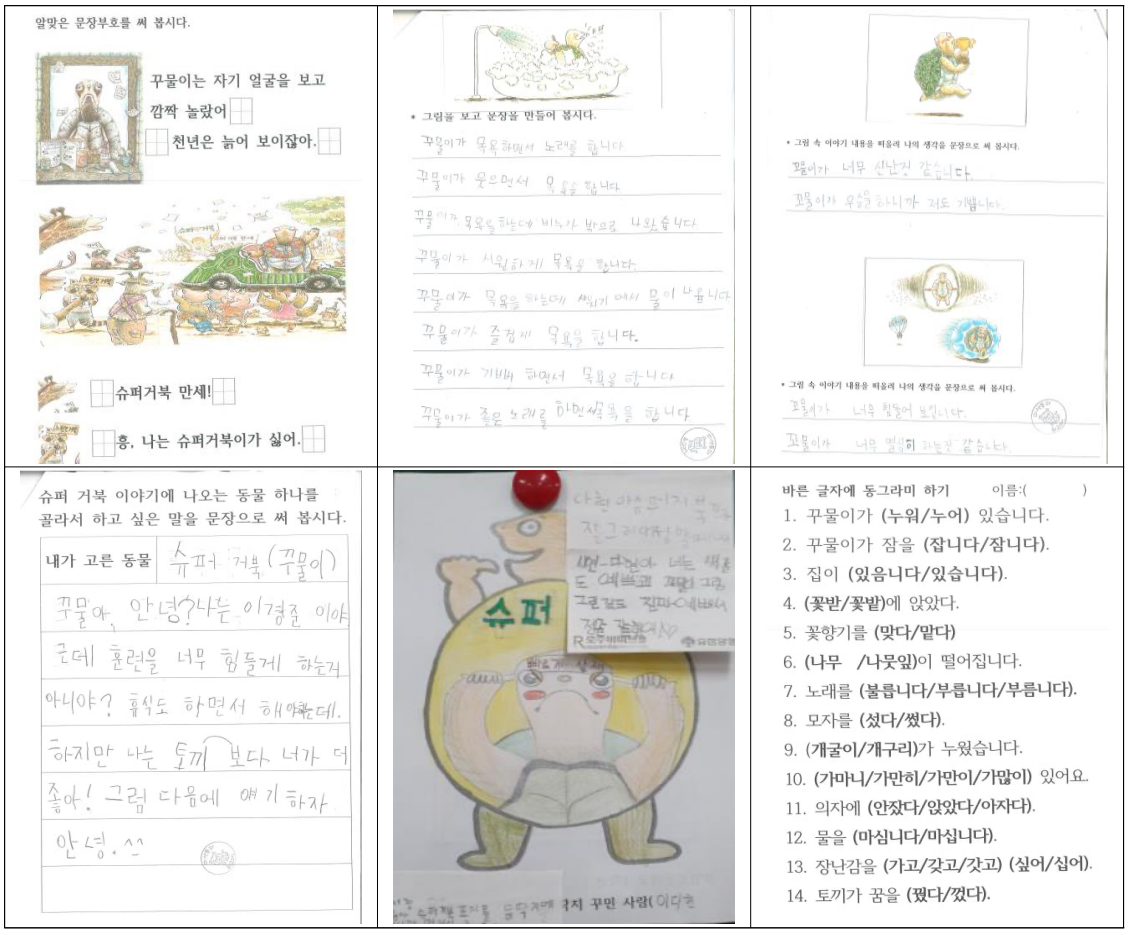
『슈퍼 거북』을 한 번 더 읽어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등장인물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담아 등장 인물에게 편지처럼 써 주었습니다.

■ 꾸물이 등딱지 꾸며주기

꾸미고 색칠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마지막 활동으로 등딱지 꾸미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등딱지를 골라 자기 느낌과 생각을 담아 문장으로 감상평을 적어주는 활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바른 글자를 찾아 문장 완성하기

문장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글자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슈퍼 거북 속에 나오는 문장이나 이야기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었고, 바른 글자를 직접 고르는 활동을 했습니다.



(e-mail : hoysun0216@gmail.com)

교실 속 온작품읽기의 실제

-토닥토닥 공감과 위로의 3학년 마음처방전-

박정윤

(전안초등학교 교사)

1. 한 책 읽기 프로젝트의 의도

한책읽기를 통해 책읽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책이 매개가 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표현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책 선정 이유

- 2020. 경남독서한마당 저학년 도서로 선정
-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동물 등장과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
- 국어교과 역량 신장 뿐 아니라 경청, 배려, 협동의 미덕을 함께 배움
-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처음 경험하는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부담이 적음
- 등장인물의 걱정과 고민을 내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김유 글, 윤예지 그림, 2019, 시공주니어

3. 관련 단원 및 역량

교과	단원	차시	교과 역량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8	문화향유역량 의사소통역량
	10. 문학의 향기	4	

4.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성취기준	학습요소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대화하기(경험 나누기, 대화의 즐거움)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표정·몸짓·말투)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경험을 나누는 태도 갖기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기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작품을 즐겨 읽기

5. 수업의 흐름

차시	과정		주요활동
1	읽기 전		▣ 읽기 전 활동 ■ 예상낱말 OX ■ 겉표지, 속표지 살펴보고 질문만들기 ■ 작가가 책을 쓴 이유 알아보기 ■ 차례 읽고 내용 예상하기
	읽는 중	1장 읽기	▣ 8~13쪽 <1. 친구가 필요해> 읽기 ■ 인물, 배경 알아보기 ■ 인물의 감정 알아보기 ■ 이어질 뒷이야기 상상해보기
2		2장 읽기	▣ 14~19쪽 <2. 밤에 잠이 안 와> 읽기 ■ 고양이에게 '도담도담 마음 처방전' 쪽지 쓰기1
		3장 읽기	▣ 20~27쪽 <3. 뚱뚱해서 슬퍼> 읽기 ■ 돼지에게 '도담도담 마음 처방전' 쪽지 쓰기2
3		4장 읽기	▣ 28~37쪽 <4. 느린 건 싫어> 읽기 ■ 거북이에게 '도담도담 마음 처방전' 쪽지 쓰기3 ▣【샛길활동】그림책『슈퍼거북』읽기 ■ 거북이 등장하는 다른 그림책 읽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4		5장읽기	▣ 38~47쪽 <5. 다 마음에 안 들어> 읽기 ■ 고슴도치에게 '도담도담 마음 처방전' 쪽지 쓰기4
		6장 읽기	▣ 48~53쪽 <6. 나만 못생겼어> 읽기

			■ 오리에게 '도담도담 마음 처방전' 쪽지 쓰기5 ■ 그림 읽기 토끼와 토끼 집의 달라진 점 찾기
5		7장 읽기	▣ 54~59쪽 <7. 귀 큰 토끼를 도와줘> 읽고 내용 이해하기
		8장 읽기	▣ 60~71쪽 <8. 우리는 친구> 읽고 내용 이해하기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 옮겨쓰기 ▣『친구란 00이다』 문장 완성하기
6	읽은 후	나와 연결	▣ 줄거리 확인 ▣ 인물에게 편지쓰기 ■ 가장 인상 깊은 동물과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물 이야기하기 ■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서 토끼 같은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 이야기하기 ■ 토끼의 고민상담소를 찾아올 것 같은 다른 동물 예상하기  ▣【샛길활동】 그림책『천만의 말씀』 읽기 ■ 입장 바꿔 생각하기
7		우리와 연결	▣ 책처방전 쓰기 ▣ <우리반 고민 상담소> ■ 토닥토닥 으샤으샤 우리 반: 전체활동. 무기명. 쪽지에 평소 나의 걱정이나 고민 쓰기. 처방전을 댓글형식으로 달아주기
8		그림책 엮어 읽기	▣ 관련 그림책 읽어주기 ■ 그림책『내 꼬리』 #고민, 걱정 ■ 그림책『꼬리가 생긴 날에는?』 #고민, 걱정 ■ 꼬리의 의미 생각해 보기  
9~12		책쓰기 창작	▣ 책쓰기-책쓰기 강사와 협력수업 ■ <내가 쓰는 처방전> ■ <우리반 상담소를 찾은 동물> ■ <우리반 고민 상담소> 우리반 친구들의 고민 해결 글쓰기
자율		가정연계	【자율과제학습】 김유 작가의 다른 작품 찾아 읽어보기 안내 - 『겁보만보』 등

6. 활동 결과

가. 읽기 전 활동

1) 예상낱말OX

가로, 세로 3×3으로 된 9칸에 책 속에 등장하는 낱말 6개와 나오지 않는 낱말 3개를 고루 섞어 제시했다. 앞표지만 살펴보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낱말 세 개를 골라 X 표시 하게 했다. 아이들은 겉표지에 나오는 동물을 힌트 삼아 표지 그림과 어울리지 않거나 연상되지 않는 낱말 세 개를 골랐다. 이 활동은 아이들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책을 끝까지 읽게 한다.

2) 질문만들기

질문하기는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질문이 바탕이 되어 배움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겉표지와 속표지를 살펴보며 떠오르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게 했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들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토끼의 귀가 왜 이렇게 길어요? 토끼의 집이 고민상담소인가? 어떤 손님이 올까?
왜 토끼가 고민상담소를 세웠을까? 토기는 다른 동물들과 친할까?

3) 내용 예상하기

아이들에게 차례를 살펴보고 책 내용을 예상해 보게 했다. 각 장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책 내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토끼의 고민상담소가 유명해 질 것 같다.
-토끼가 고민을 들어주는 대신 그의 보답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고민을 해결하는 내용,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

나. 읽는 중 활동

국어시간에 각자 묵독으로 함께 읽게 했다. 이 책은 소제목을 달아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10쪽 이내의 길이이며 삽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 한 차시(40분)에 거뜬히 두 장을 읽고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1) 내용 간추려쓰기

책을 읽으며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매번 했던 활동은 '내용 간단히 간추려 쓰기'이다. 책을 전체 다 읽은 후에 내용을 간추릴 수도 있지만 차시 별로 읽은 내용을 간추렸다. 활동지에 각 장의 특징있는 삽화를 넣어 학생들이 내용을 쉽게 간추려 쓸 수 있게 도왔다.

2) 마음 처방전 쪽지쓰기

2장부터 6장까지는 토끼가 상담소를 찾은 동물들에게 처방전을 써 준다. 어떤 동물이 토끼의 상담소에 들러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으면, 토끼가 잘 듣고 처방을 해 준다는 이야기 구성이 반복된다. '나'라면 어떻게 동물의 고민을 해결해 줄지, 처방전을 써 보는 활동을 했다. '도담도담 마음 처방전' 쪽지를 쓰기 전에 내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밤에 잠이 안 와 고민이라는 고양이에게 "자기 전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고 자."라든가 "천천히 양을 세어봐."라는 처방은 평소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했다.

3) 그림 읽기

이 책은 글과 함께 삽화를 읽는 재미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끼와 토끼 집의 달라진 점을 찾아보게 했다. 학생들은 토끼집이 변화해 가는 모습과 토끼 귀가 길어지는 모습, 당근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4)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 쓰기

마지막 8장을 읽고 난 후, 이 글 전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나 표현을 찾아보게 했다.

5) '친구란 00이다' 문장 완성하기

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친구의 소중함과 친구들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친구란 00이다' 문장 완성하기를 통해 친구를 다른 것에 빗대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써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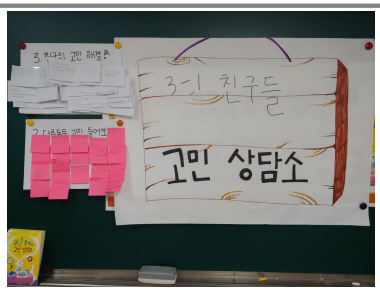
다. 읽은 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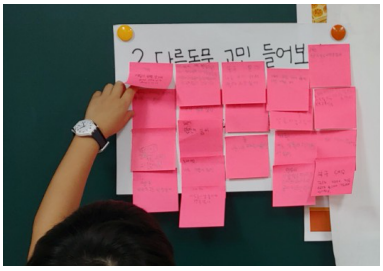
1) 인물에게 편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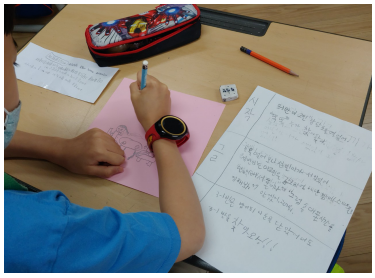
등장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편지를 썼다. 주인공 토끼에게 가장 많은 학생이 편지를 썼지만 고민상담소를 찾은 동물들에게 쓴 편지도 적지 않았다.

라. 책읽기를 넘어 책쓰기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었다. 사서선생님과 협의하에 도서관 활용수업 예산을 활용하여 책쓰기 강사와 협력수업으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내가 쓰는 처방전>, <우리반 상담소를 찾은 동물>, <우리반 고민 상담소> 세 권의 책을 만들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세 개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활동 하나를 골라 참여시키려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반 고민 상담소> 책 쓰기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토끼 대신 내가 쓰는 처방전으로 책을 만드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반 상담소를 찾은 동물>과 <우리반 고민 상담소>로 책쓰기를 진행했다.









책쓰기 활동

3단계 비경쟁 독서토론

-동화로 비경쟁 독서토론하기-

박경미

(풍호초등학교 교사)

1. 비경쟁 독서토론이 뭐예요?

비경쟁 독서토론은 책을 읽고 말 그대로 참여자가 경쟁하지 않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2010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에서 시작되어 각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토론하면 찬반 토론이 먼저 떠오른다. 찬반 토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찬반 토론은 서로 이기려고 자기주장만 내세우기 쉽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 비난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찬반 토론과 같이 경쟁 방식의 토론을 하더라도 비경쟁 토론을 먼저 해보면 훨씬 좋다. 비경쟁 독서토론은 토의와 대화에 가깝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다. 토론 참여자가 모두 같은 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누는 것이다. 참여자는 미리 읽을거리를 읽거나 당일 진행자가 제시하는 짧은 읽을거리를 읽고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음은 창원 냉천중학교 이효재 선생님이 창안한 '3단계 비경쟁 독서토론'의 방식이다.

	세부 활동 내용	생각할 점
제대로 읽기	• 주제 도서 읽기 • 좋은 구절 밑줄 긋기 • 좋은 내용 필사하기 • 모둠별 내용 나누고 발표하기	모둠 활동은 평등한 활동이므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질문하며 읽기	• 책의 내용, 궁금한 내용 질문 만들기 • 필사한 내용과 질문 나누기 • 질문을 큰 주제로 묶어내기 • 모둠별 활동 정리하여 게시하고 발표하기	다른 사람의 질문을 존중합니다.
토론하기	• 개별 토론 주제 만들고 나누기 • 모둠의 토론 주제 정하여 토론하기 • 토론 결과 게시 및 발표	생활과 관련있는 주제로 정합니다.

<제1-2회 교사 인문학 독서토론, 이효재,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2014-2015>

2. 낯설지만 부담 없는 단편동화

아이들에게 단편동화와 장편동화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단편과 장편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단편보다는 장편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장편동화가 더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단편은 우연히 단편동화집을 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만나기가 어렵다. 장편이 단편보다 많기도 하지만, 단편동화만 추린 목록을 거의 보지 못했다. 도서관에서 기획으로 단편만 따로 전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단편을 찾기도 어렵다. 인터넷서점에 단편동화라고 검색하면 목록이 쭉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가. 단편동화가 왜 어려워?

각자 이유를 들어보면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장편이 좋다는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단편이 좋다는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단편인지 모르고 읽었다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단편은 생소하다. 또한 단편은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 편 실려 실제로는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힘들다고 말한다.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인물, 사건, 배경을 새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단편동화는 아이들 스스로 접하기 어려운 낯선 친구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단편을 골라 함께 소리 내어 읽고, 비경쟁 독서토론을 해보는 건 낯설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나. 단편동화로 가볍게 비경쟁 독서토론하기

토론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면 다음 방법을 권한다. 우선 단편동화집 하나를 학생 수만큼 준비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2주 정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준다. 모든 학생들이 혼자서 한 권을 눈으로 다 읽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물어본다. 보통 두세 작품으로 의견이 모인다. 그럼 간단한 토의나 투표로 그중에서 토론할 이야기를 정한다. 이렇게 학생이 직접 고르면 토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토론 준비 기간이 짧다면 교사가 토론하기에 적당한 단편을 고르거나 두세 편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해주고 그중에서 아이들이 고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토론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업 시간에 고른 단편을 소리 내어 읽는다. 작품의 길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문장씩 돌아가며 읽으면 40~50분 정도가 걸린다. 한 명이 한 쪽씩 읽거나 도입, 절정, 결말 등 특정 부분을 교사가 읽으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 토론에 앞서 다 같이 소리 내어 읽기로 작품을 제대로 읽고 토론하면 토론의 질과 깊이, 참여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단편으로 3단계 비경쟁 독서토론(제대로 읽기, 질문하며 읽기, 토론하며 읽기)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 4~5차시 정도면 충분하다. 단편은 장편에 비해 읽는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 없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다.

다음은 『네모 돼지』(창비)로 학생들과 비경쟁 독서토론을 한 내용이다.

1단계 제대로 읽기	"정말 그 천국의 문이란 것이 있어요? 네모 돼지만 갈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고요?"(56쪽) -오스터가 하는 말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95번 돼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돼지들에게 희망을 주면 달라졌어. 6개월이면 무게가 500킬로그램이나 나가는 네모난 돼지가 되는 거야. 바로 책 읽는 돼지가 그 일을 해내는 거지. 네모 돼지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희망을 심어 주는 일 말이야. 물론 그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거짓말이긴 하지만…."(65쪽) -책을 읽어주는 일에 긍지를 느꼈던 오스터가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라서 충격적이었다.
2단계 질문하며 읽기	-표지에 네모 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목을 '네모 돼지'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네모 돼지들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누구인가? -네모 돼지들에게 오스터가 읽어주는 책은 어떤 의미인가? -오스터가 네모 돼지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도망친 결정은 옳은가? -숲으로 간 돼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단계 토론하며 읽기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해도 되는가? -우리 사회에서 '희망 고문' 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책에 있는 내용은 언제나 옳을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인가?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진정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내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다.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단편동화집

『꼴뚜기』(창비), 『나의 사촌 세라』(창비), 『돌 씹어 먹는 아이』(문학동네)

『만국기 소년』(창비), 『너만의 냄새』(사계절), 『제후의 선택』(문학동네)
『청소녀 백과사전』(낮은산)

3. 그림이 풍부한 동화 읽기

아이들과 함께 읽은 책은 『편의점』(고래뱃속)이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편의점은 아이들 생활에 무척 깊이 들어와 있다. 학원과 학원 사이에 들러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 책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가슴에 상처가 있는 두 아이의 우정을 다루었다. 이소영 작가의 풍부한 색감과 감각적인 수채화 느낌의 그림이 인상적이다. 책을 읽기 전 이소영 작가가 작업한 다른 책의 표지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실에 있는 전면 책장에 '그림이 풍부한 동화' 몇 권을 전시해 수업 후에 관심이 생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비경쟁 독서토론의 1단계 제대로 읽기(정직한 독자 과정)에서는 보통 인상 깊은 구절을 옮겨 쓰고, 그 구절이 인상 깊은 까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했더니 아이들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추가로 인상 깊은 그림을 고르고, 까닭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가. 그림이 풍부한 동화 추천

『잠자는 숲속의 아이』, 『내 이름을 불렀어』, 『우주 호텔』, 『위험한 갈매기』, 『줄리의 그림자』, 『나는 소심해요』, 『거짓말 손수건, 포포피포』, 『오, 멋진데!』

나. 그림이 풍부한 동화란?

이번에 다룰 갈래는 '그림이 풍부한 동화'다. 그냥 동화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림이 풍부한 동화'라고 했을지 궁금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림이 풍부한 동화'는 약속된 용어가 아니다. 보통 페이퍼백(paperback)으로 그림책보다는 글이 많고, 동화보다는 그림이 많은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그림이 풍부한 동화'는 출판사마다 동화 또는 그림책으로 다르게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동화에서 그림은 삽화의 역할을 한다. 삽화는 글에 나오는 인물이나 배경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 그런데 그림책에서 그림은 삽화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다. 그림책에서 그림은 글과 대등한 요소로 그림이 글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글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물론 요즘은 동화에 들어간 삽화도 글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림작가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삽화를 그리기도 한다. 『제후의 선택』(문학동네) 노인경 작가의 그림이나『돌 씹어 먹는 아이』(문학동네) 안경미 작가의 그림이 그러하다.

다. 동화책에서 그림 읽기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은 그림으로 뽑은 것은 찬혁이가 얼굴에 라면을 뒤집어쓰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뜬 장면이었다. 이유로는 당황스러워하는 찬혁이의 표정이 잘 드러나서, 글에서 설명한 표정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서, 표정이 우스꽝스러워서 등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인상 깊다고 한 그림은 비 오는 날 범수가 우산을 쓰고 가는 뒷모습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서 아빠가 쉴 테고 그러면 범수가 아빠에게 맞을 텐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범수의 눈물 같아서, 범수의 뒷모습에서 우울한 기분이 잘 느껴져서 등이 이유였다. 그리고 나는 표지 그림이기도 한 두 친구가 쪼그려 앉은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 장면은 두 친구가 비로소 서로의 비밀을 터놓고 말하는 장면으로, 연대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범수와 찬혁에게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나란히 앉은 모습에서 더 이상 두 친구가 외로울 것 같지는 않아서 마음이 놓였던 장면이다.

이 작품에서 찬혁이는 범수에게 큐브를 선물한다. 찬혁이는 큐브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찬혁이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큐브를 범수에게 선물한다. 범수도 그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의 뜻을 담았는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덤덤하게 보여주는 울림 있는 동화다.

<학생들의 질문거리>

- 범수는 아빠가 때리는데 왜 대처하지 않고 맞고 있었을까?
- 50쪽에서 범수는 찬혁이를 왜 때렸을까? 그리고 찬혁이는 범수가 때리는데도 반격을 하지 않았을까?
- 55쪽에서 찬혁이는 범수에게 왜 큐브를 주었을까?
- 69쪽에서 찬혁이와 편의점 총각은 범수를 구하러 왔을 때, 범수 아빠와 싸웠을까?

<학생이 정한 토론 주제>

-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
-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 아픈 할머니와 사는 아이를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e-mail : pkm1110@naver.com)



페미니스트 교사로 살아가기

위례별초등학교 최현희



< 위례별초 최현희교사 파면촉구 기자회견 >
남성혐오, 동성애교육 주입한 최현희교사 파면하라!
▶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 오후 2시 ▶장소 : 송파구 위례별초 ▶주최 :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안티페미협회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NEWS in Photo
페미니즘과 동성애가 혁신교육??
동성애 배우는 학교! 이게 혁신학교인가?
동성애 하다 에이즈 걸리면 최현희교사 책임질건가?
잘못된 성교육 우리아이 망친다
아이들이 동성애 놀이! 이게 혁신교육??
강요된 페미니즘교육! 교육폭력 물러가라!
페미니즘 OUT

'페미니즘 교육' 주장 교사에 '남혐' 낙인 찍은 학부모단체... 대법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0.05.14 07:03 수정 2020.05.14 10:36

박광수 기자



페미니즘 교육 필요성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남성혐오' 낙인을 찍은 학부모 단체에 대법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페미니즘' 교육 필요성 주장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남성혐오' 낙인을 찍고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에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교사 A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 인터뷰를 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2017년 8월부터 한 달간 A씨를 파면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동성애 옹호와 남성혐오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배포한 유인물에도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메갈', '한남충' 같은 동성애자들의 은어가 난무하는 교실을 상상해봤느냐" 등의 문장을

사랑의 우유 배달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여 주세요
지금 확인하기
사)한국자원봉사연맹

추천기사



"秋의 법무부, 법치주의 죽였다" 野 염려한 꽃상여 칼바람 속 행진

美 백신 개발에 다급한 中 돈다발 밀며 "우리거 써달라"

진중권 "조국, 법학 전공 맞나 골빈 문빠에나 쓸 수법 내게 써"

'朴정부 미안' 서울대생 글에 나경원 "文, 절규 왜 안 듣나"

김종인 "추미애 그런짓 역겹다" 與 지도부는 당내 딴소리 경고

유승민, 홍준표·안철수·윤석열 거론 "국민의힘 대선 울타리 넓게 써야"

마라도나 확인된 자녀만 8명 분쟁 가능성, 유산 얼마길래?

"고급차라서 장애인 구역 씁니다" 무개념 주차 차량에 네티즌 분노

경기 가평 광역울타리 뚫렸나 멧돼지서 '돼지열병' 첫 검출

트렁크 철창 갇혀 지낸 개 두 마리 일어설 수도 없는데 '학대' 아니다?

"제발 이 저주 다시 가져가세요" 15년만에 돌아온 '폼페이 유물'

"조선일보 기사, 인과관계 완전히 뒤집은 기사…분노"

[인터뷰] 조선일보와 오랜 소송 끝 정정보도 받아낸 최현희 교사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승인 2019.07.10 15:18

리턴걸시, 나쁜 뉴스 해독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가가 AD FREE

2017년 8월25일자 조선일보 기사("수업시간에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는 지난 6월22일에야 바로잡혔다. 기사가 나온 후 1년10개월만이다. 해당 보도는 최현희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 220여명이 수업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학교에선 '야, 너 게이냐'는 말이 유행했다는 내용이다.

dyson pure cool crypt
퓨어쿨 크립토믹
다이슨 블랙프라이데이
-퓨어쿨 크립토믹
39만원 할인혜택
-4계절 정화된 공기를
방안 구석구석
키드무이자 혜택받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에서 △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했다는 점 △최 교사가 트위터에서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라고 밝혔다는 점 △최 교사가 비판이 불거지자 남성혐오 트윗을 삭제했다는 점 등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최 교사의 수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도 '일부 학부모'였던 것으로 정정됐다. 정정보도는 지난해 10월 최 교사의 1심 승소와 지난달 서울고법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학교 앞엔 기사를 접한 각종 단체가 몰려들었고, 쏟아지는 항의 전화에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고 하는데. 정정 보도가 나기까지 1년 10개월.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최현희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힘 있는 언론사가 너무나 쉽게 진실을 조작해버렸어요.
그건 학생들에게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경험인 거예요
언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곳이 초등학교인데
그 배움과는 너무 다르고 모순된 경험을 한 거죠"
- 최현희 교사 인터뷰 中



경기도교육연수원 1정연수 자료집 명예훼손 사건

1. 2020 후반기 1정 유초등 자격연수 자료집이 810부 10월말에 배포됨
2. 자료집을 미리 본 교사들이 전교조 여성위원회에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제보함.
3. 11.02(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및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경기도 교육연수원 항의 방문
4. 교육연수원 측과 면담 이후 민주노총 변호사와 함께 소송 등 대응 방안 논의 및 검토 중(2020.11.28. 현재 상황)

문제가 된 원고 내용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의응답 또는 발표 기회와 관련하여 성차별하는 경우, 과학 실험이나 가사실습 시 한 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 체육 시간에 성별로 운동 종목을 다르게 하는 경우, 클럽활동에서 성별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내신 성적 산출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성적을 내는 경우, 혼성학급에서 성별로 집단을 분리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선택교과 편성 시에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별에 따라 특정교과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경우, 여학생에게 고급수학이나 고급물리 또는 화학이나 기술관련 과목의 선택을 지도하지 않는 경우, 학생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격려할 때 성별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를 경우, 학생들에게 야단을 칠 때 성별로 사용하는 표현이 다를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최근의 사례

(1)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 여교사는 평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사진을 보여주거나 남성 비하, 차별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 대의원회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남자끼리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줬다'거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어 예문을 거의 여성 인칭 대명사로만 들었다' 거나 혹은 '선생님이 여자아이들만 예뻐하고, 남자아이들을 면박 준다'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는 2016 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개교한 공립학교로서, 정규 교과과정을 따르되 수업방식과 내용측면에서는 교사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자율형 수업을 권장하였는데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는 이러한 수업 재량권을 적극 활용한 것이 오히려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학기에는 담임은 맡지 않고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 내내 자신이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퀴어축

제에 참여해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며, 자신이 근무하던 교무실 자리 주변 칸막이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과 포스터 등이 빼곡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 등입니다. 더욱이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사진을 보여주거나 남성 비하, 차별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교사는 학교 내에서 '페미니즘 북클럽'이라는 동아리 결성을 주도했는데, 여기에는 학교 교감을 포함해 이 학교 교사 58명 중 21명이 가입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한 다른 교사들도 아이들을 상대로 성평등 교육에 나섰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측도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로 인해 겪게 됐던 그간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사안 발생 초기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공동대응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페미니즘 북클럽 동아리 소속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단지 교사의 개인적인 이념의 차이에 따라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육자로서의 고민이 깃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은 헌법적 가치이며 누구도 그 권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원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향과 가치관이 묻어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교원들은 더더욱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수업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의식이 부족하여 여학생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렇다고 근거 없이 남학생들이 비난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의 기본 취지에 맞게 교사들의 균형감각 있는 수업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지부 면담 요청 및 조치 요구 공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수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제목 2020 후반기 1정 자격연수 '양성평등 학교 만들기' 강사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요구

---

1. 2020년 후반부 1정 자격 연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 [긴급] 자료집 회수 및 폐기(연수생 자료집 반송 조치)

나. 1정 연수 양성평등 강의 강사 선정 경위 조사 및 회신

다. 양성평등 강의 원고 검수 경위 조사 및 회신

라. 피해 교사에 대한 연수원장 및 해당 강사의 사과

마. 해당 강사의 징계 및 교육청 각종 연수 영구 퇴출

바. 1정 연수 수강생에 대한 허위 사실 정정 및 사과

사. 양성평등 강사 선정 기준 재고를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

2. 1정 자격 연수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연수원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가.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15시(일정 불가시 조율 가능)

나.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추후 조율 가능)

다. 안건 : 위의 조치들에 대한 회신 및 이행 방법

3. 위의 조치 사항과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은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이세경 010-8224-7956)으로 연락 바랍니다. 끝.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사과문





왜 페미니스트 교사를 못 견디는가

- 페미니즘 백래시
- 아동 청소년 혐오
- 보수적 교사관
-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페미니스트 교사 운동의 어려움

- 제도권 내부 운동의 한계
- 교사의 시민성 박탈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신화
- 교육 당사자가 배제된 진보교육에 대한 관념적 접근
-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시스템
- 페미니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사이의 모순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 교사만능주의와 교사불신현상의 공통점
- ‘좋은 교사 담론’의 한계
-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의 인식
- 문제와 개인적으로 싸우는 문화



페미니스트 교사가 되고 보이는 것들

- 여자아이가 여성으로 길러지기까지
- 미디어와 여성혐오
- 강간문화와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 고정관념 위협 현상
- 교과서 속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여성들의 어깨에서 먼저 내려오고 손잡기

새벽바다 시골잡학덕후

촘스키 교수가 자신의 모국인 미국이 동티모르에서 저지른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했을 때, 많은 '충직한' 미국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이것을 지식인의 책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민주시민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지식인만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물론 지식인이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비판적 사고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그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민주시민이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OOO 초 OOO 교사의 상황을 들었을 때, 생각났다. 촘스키가, 그리고 그 지식인의 책무, 아니 민주시민의 책무가.

성평등 교육으로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페미니즘은 마땅히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한 분야다. 내게는. 여성이 사회의 구습에 의해 정해진 역할에 매몰되어 주체성을 빼앗기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평등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것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메갈'이라 (메갈이 무슨 욕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도 메갈이다!) 낙인찍고 학교에 집단 항의, 교육청에 집단 민원, 교사 신상 털기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괴롭히고 사이버 린치를 가한 여성혐오 세력이 있었다니! (혹시 뒤에 국정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에 국정원 댓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별 생각이 다 든다.) 이에 더해 학부모들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한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학교에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이것이 과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 현장에서 묵과해야 하는 일인가? 그렇게 교권을 강조하는 교육부나 교원단체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여하튼 나는 무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여성위원회 연수에서 만난 남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교조 전국일꾼연수에서 대자보를 붙이자고. 초안은 그 선생님이 쓰고 난 삐뚤빼뚤한 글씨로 옮겨 적어 대자보를 만들고 연수 장소에 붙였다. 비여성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모여 연대와 지지의 뜻을 모으고 페미니즘을 함께 공부하자고.

이에 더해 SNS에 내 실천을 적고, 나도 페미니스트 교사고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친다고 선언했다. '드루와'의 심정으로. 물론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그러고 있으니

한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연락했다. 그분은 우리학교에 인권교육 강사로 오셨던 분인데, 나의 페미니즘 교육 실천을 눈 여겨 보았다가 OOO 초 OOO 교사 사건이 터지자 그분을 돕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영상을 기획했으니 함께 해보자는 취지였다. OOO 교사를 한 번 본 적이 있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터라 개인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페미니즘 교육의 대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쾌히 승낙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제작자 중 한 분이 말했다. 아마 나는 남자라서 OOO 교사만큼 댓글이 달리거나 신상이 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영상이 올라가자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남자들도 모두 정중하게 얘기했다. 댓글을 다는 여성들에게만 험한 말을 했다. 심지어 일베에 올라간 영상의 캡쳐화면은 “여성=자궁”이었는데, 일베로가 2회 찍혔고, 민주화는 없었다. 여성=자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 여성혐오의 텍스트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이 탈맥락적인 여성혐오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곳의 댓글은 예전에 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주로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예전에 여성혐오 발언(주로 얼굴평가 몸매평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페미니스트냐 불쾌하다, 당신의 잘못이나 반성하고 조용히 사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딴 소리를 많이 해서 수능을 망쳤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교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페미니즘 교육에는 찬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 사이 사이 끼어드는 근거가 수능과 정치적 중립이었다.

여기서 느꼈다. 페미니즘은 젠더권력과 싸워야 하지만, 경쟁 전체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도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페미니즘이 민주시민교육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또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가 페미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것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교차성 억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전에는 전문직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정적 직업으로 여기고 입시 경쟁의 꼭대기에 오르려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입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밉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유리천정으로 상징되는 차별적 조건 속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전문직일 것이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내면화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나는 어

떤 도움을 줬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남성으로서 여성에 비해 쉽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살려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나는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저지른 여성혐오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다. 당연하게도. 그중 일부를 옮기자면 이렇다.

"하여 먼저 그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권위와 남성 젠더 권력에 편승하여 제가 여학생들에게 가했던 많은 외모평가발언과 여혐발언 등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잘못들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다운 척하고 센 척하려고 학생들을 무시했던 일을 다 사죄드립니다.

제가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한 것은 그런 제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런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현재의 실천만을 말하여 예전에 저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어쩌다 페미니즘을 수업에 가져오게 됐을까? 첫째는 함께 몇 년 동안 동아리에 있었던 여성 학생들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메갈 티셔츠 사건 등의 이슈를 따라가면서 나의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되었고 먼저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내가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함께 책을 읽다보니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되었다. 공부한 걸 실천하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라는 아주 단순한 마인드를 가진 나는 수업에 페미니즘을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인권을 공부하는 중에 작년 여름 처음으로 전교조 여성위원회 연수에 참여했다. 그 연수에 참여한 유이한 남성이었는데(다른 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대자보를 제안한 교사다), 그때 따뜻한 환대와 끈끈한 자매애,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등 여러 부분에서 존경할 점이 많은 동료 교사들을 만났다. 그 후 만남은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에서도 성평등 분과로 연결되었고 올해는 꼭 수업에서 페미니즘을 접목해보리라 마음먹게 되었다. 이 생각은 작년부터 조금씩 싹을 틔우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하나는 생리결석 사건이다. 학교에서 생리결석을 처리할 때, 부모와의 통화를 통해 생리결석임이 확인되면 결석계를 써서 근거를 남긴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반 학생이 생리결석을 하고 이를 출석부에 기재해두었는데 한 교과 담당 교사가 생리결석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체크를 해 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이유인지 확인 차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애가 생리결석을 매달 꼬박 꼬박 챙겨먹어서 그랬어요.”

이후 해당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학생의 어머니는 잘못된 말인지는 알지만 담임인 나의 항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그 학생은 전했다. 생리결석을 매달 챙기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 그리고 사실 그 학생은 그날 처음 생리결석을 사용했다. ㅠㅠ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게든 자식 맡긴 죄인이라는 태도로 교사와 부딪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생리 결석 인정점 부여 사건이다. 우리 반 학생 중 한 명이 영어듣기평가 날에 생리결석을 했다. 수행평가 규정상 공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점 부여 항목을 보니, 전 학기 성적의 8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왜 다른 공결은 100% 인정인데 생리결석 “만” 80%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교육청 지침을 보니 100%를 주는 것이 권고 사항이었다. 다른 권고 사항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을 교육청 눈치 보며 잘도 지키는데 왜 이 사항은 안 지키는 것일까? 결국 교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성적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결국 100%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반대의견을 들었다. 지배적인 이유는 생리결석을 성적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였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 의견에 찬성했다. ㅠㅠ

여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생리결석이 있는데도, 입시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권리 보장이 거부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여성들도 받아들인다는 사실! 2003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여성 교사들의 생리휴가는 수업을 대신할 사람이 부족하여 아직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이 불편한 진실!

이런 사건들을 거친 후 성평등 연수에서 만났던 OOO초의 OOO교사의 발표 내용은 이랬다. 아동이 흔하게 접하는 애니메이션에서조차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의 비율이 남성에게 치우쳐 있다는 고발. 남학생들이 교사와 여학생과의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여학생에게 감내하도록 하는 자신의 태도가 여전히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성찰. 인상 깊었다. 내가 직접 겪은 여성혐오와 현장에서 여성 교사들이 느낀 여성혐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찾아내고 시정하고자 하는 여성혐오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래서 생각했다. 영어교사로서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시민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프로젝트 학습을 구상했다. 페미니즘을 다룬 내용에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주체적 생활 방식이 체득되는 수업의 틀을 생각해봤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나이지리아 페미니스트(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텍스트를 한 학기 동안 번역하여 자신만의 번역본을 만들고 이를 페미니즘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다. 각 시간마다 번역할 분량을 자신들이 정하고, 계획된 진도대로 학습해가며 모르는 내용은 모둠원에게 서로 묻거나 교사에게 물어보며 해결해 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예상하는 저항이 있다. 민주시민 교육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고 법은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거나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시험들을 통한 사회적 지위 분배 시스템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버린 학교의 목표는 시험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실질적 목표에 반하는 교육행위는 저항에 부딪힌다. 당연하게도.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생각했다. 명목상 존재하는 법의 이념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것이 된다고. 이것은 학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입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반고에서는 사실 무시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 휴대폰 수거 문제, 두발 문제, 교복 문제, 방과후 학습 문제 등 많은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례는 규칙이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안 되면 대자보도 쓰고, 서명운동도 하니 결국은 관철되었다. (하지만 갈등도 많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힘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다. 그럼에도 분명 이 과정에서 인권의 근육은 커졌고 우리는 지역 내의 다른 학교와도 연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페미니즘을 가르치건 시민불복종을 가르치건 세계인권선언을 가르치건 그것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민주시민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못 가르칠 것이 없고 이것을 가르쳤다고 수업에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면 법을 근거로 싸우고, 안 되면 대자보도 쓰고, 언론에도 알리고, 민원도 넣을 수 있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법이 잘못됐다면 싸워야 한다. 바꿔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그게 양심의 자유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몸에 불을 붙이고 외쳤다고 한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여공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몸에 불은 못 붙이더라도 외치기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의 선배 페미니스트인 여성 학생들과 여성 교사들과 함께 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하라! 학생과 교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그러자면 지금 저항해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리고 할 수 있다. 나는. 민주시민교육을. 페미니즘 교육을.

여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식민지다. 이성애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거대한 식민지. 층을 달리하며 존재하는 지방이라는 식민지, 저학력이라는 식민지, 아동, 청소년이라는 식민지, 무산 계급이라는 식민지 등등 많은 식민지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식민지. 그런데 여성이라는 식민지에서 나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국민과 비슷하다. 그 혜택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 범죄의 공범자. 하지만 모든 미국인이 제국주의를 인정하지는 않듯이 나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 촘스키 교수가 자신의 나라의 보수 세력들에게 비난 받았을지라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듯이.

촘스키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한다. 그가 비싼 미국차를 타고 제3세계 여러 곳을 강연하러 다니는 것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좋은 차를 타고, MIT와 같은 유명한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분명 제국주의가 주는 혜택일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헌신적인 활동가들에게 강연을 통해 힘을 주기 위해 왔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요즘 말로 하자면 촘스키는 나쁜 지식인 쯤 되려나?

나도 그렇다. 나는 분명 ‘한남’이다. 성장하는 동안 여성 식민지에서 가부장제와 강간문화와 여성 혐오의 폭정과 억압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지면을 빌어 깊이 사죄를 드린다. 여성들 뿐 아니라, 많은 식민지 사람들, 아동, 청소년, 노인, 저학력자,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등, 수많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아직 온전치 못한 인식으로 인해 계속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 그 죄를 그만 짓기 위해 선언한다. 나는 페미니스트고, 인권운동가이며, 독립운동가다. 나쁜, 그리고 부족한 페미니스트지만 적극적 ‘한남’이 되거나, 권위주의자, 신자유주의자, 차별주의자 등이 되고 싶지는 않다. 절대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불복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다른 일이나 계획에 전념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의 어깨 위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사회는 누구라도 정해진 길을 가야하는 신분제 사회도, 계급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자본 지배 사회도 아니다. 하지만 나의 정치적 기획이나 계급투쟁의 기획이 여성들의 어깨 위에 올라 앉아 있고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어깨에서 내려와 내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맞다. 여성들이 젠더 권력을 해체하고 해방된 세상에서 살고자 기획하고 있다. 그들의 실천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한다. 내가 먼저. 그것이 내가 아는 페미니즘 교육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어깨 실린 그 무게가, 그 억압이 서로 교차되어 있음도 깨달았다면 그들과 손잡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남고에서 메갈 인증?

비비새시(고영주)

나는 공학이나 여고에서 15년을 근무했다. 남고에서 근무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자고등학교라고 해서 특히 군대식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다. 여고도 충분히 군대식이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에 익숙한 여성, 남성이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서식하는 것이 힘들다 느끼는 때가 있다.

첫째, 앙 기모띠 같은 말이 컴퓨터 모니터 테두리에 낙서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앙 기모띠가 일본 포르노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현재는 기분좋다는 말로 한 유명 bj가 사용한 뒤 광범위하게, 심지어 초등학교 여학생도 그 기원을 모르고 사용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 그 유래를 몰라서 이기도 하고, 알아도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쓴다고 한다. 문제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일본 포르노를 떠올리는 일부 남성을 생각하면 기분 나쁠 사람들을, 특이하게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둘째, 복도를 지나가는데 영화에서 조폭이나 검사들이 윗사람한테 하듯이 폴더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을 마주할 때. (영화 〈공공의 적 2〉에서 배우 설경구가 그리고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이 이런 인사를 종종 했는데, 이게 보여주는 건 정의의 편이라고 여겨지는 검사도, 불의 편에 선 검사도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힘 있는 남자 또는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문화라고나 할까?)

셋째, 〈캡틴 마블〉이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냥 히어로물에 왜 페미 묻히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때.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말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 이야기 한 후, 캡틴 마블에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면 청소년들은 금방 찾아낸다. 그리고 벡델 테스트의 기준을 알려준다. 첫째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둘 이상 나오는가, 둘째 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가, 셋째 이들의 대화가 남자를 주제나 소재로 하지 않는가. 이 셋을 충족하는 영화는 어느 정도 성평등을 염두에 둔 영화라 할 수 있고 페미니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캡틴 마블은 이 조건을 충족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넷째, 보이루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서 학생 몇몇끼리 웃을 때. (보겸이 + 하이루라는 뜻인데 왜 멋대로 다르게 이해하고서 화내냐는 의도를 깔고 묻는 것이다. 이때 이게 원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화낼 것을 알고서 질문하고 그 반응을 즐기면서 여성들 앞에서 시시덕거리면 그게 바로 조롱이고 희롱이라고 말한다. 다수가

웃고 있는데 소수나 한 사람이 웃을 수 없는 것은 유머가 아니고 인권침해라고 다시한 번 강조해 말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자면 '남성연대'가 아닐까? 어린 시절에 남성연대에 소속되기 위해 난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페미니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러고 살았을 것이다.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청소년 중에도 지금의 나와 같이 겉돌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남성연대에 소속되기 위해, 싫지만 그런 척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배운 적이 없거나 다른 방식의 남성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이 보다 수월하게 학교 생활하고 학교 밖에서도 존중 받으며 살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하지만 페미니즘을 말하는 순간 이런 말이 돌아온다. 페미니즘하면 메갈 아니냐고. 처음엔 이 어처구니없는 말에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다 발견한 한 동영상이 있다. 그 이름은 '메갈 사냥'. 내용은 이렇다. 한 페미니스트를 잡아다가 메갈이라고 몰아가며 화형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메갈이 뭐냐고 묻자 아무도 답을 못한다. 사형으로 몰아가려는 한 귀족이 말한다. '과학자가 읽는 책은 과학책, 메갈이 읽는 책은 페미니즘 책. 이 여자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고 이 책은 메갈이 읽는 페미니즘 책이니까 이 여자는 메갈이다.' 이 우스운 순환논리를 얘기한 다음 청소년들에게 물어본다. 페미니즘 책 읽어보신 분 있냐고. 몇 명 손 든다. 페미니즘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은 페미니즘이 메갈인지 어떻게 아냐고 묻는다. 그리고 메갈이 뭔지 아냐고 묻는다.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도 있다. "인권을 배우고, 평등을 배우면 되지 왜 페미니즘을 배워요?" 그때 수업 중 있었던 얘기를 한다.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수업시간에 논의한 적이 있다. 그때 수업에 참여한 한 지체장애인은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이 차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하니까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잘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말할 때, 인권을 배우고 평등을 배우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로 차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차별의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공부해서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인권을 알면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을 배우지 않고서 여성 차별이 이제 없어지고 남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을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다. 노예해방을 위해 흑인들은 싸웠다.

하지만 흑인만 싸운 것은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백인 중 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 싸워왔다. 하지만 성노예 피해 여성들만 싸운 것이 아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사람들이 사죄하고 함께 싸워왔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만 싸운 것이 아니다. 양심적인 교사들이 함께했다. 여성해방을 위해 여성만 싸워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공부하는 남성으로 패싱되는 청소년들이 함께 해야만 한다.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진다. 먼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자의 양심에 맞다.

이글을 마무리하는 중에 수업 시간에 메갈에 대해 얘길 나눴던 청소년 한 분이 교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건방지게 얘기한 거 같아서 죄송해요.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꼭 기쁘지만은 않았다.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역시 계급을 정하는 것 같은 느낌에 평등한 관계가 아닌 것이 가슴 아프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평등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페미니즘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평등한 관계를 수업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이므로 페미니즘을 알리는 교사로서 난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인권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

- 시민사회운동을 중심으로 -

김종훈[1)]

<목 차>

Ⅰ. 서론

Ⅱ. 인권의 특성과 지역공동체의 인권 발전방안

1. 인권의 특성

2. 지역공동체의 인권 발전방안

Ⅲ. 인권 조례의 내용과 인권 기반 행정

1. 인권 조례의 내용

2. 인권 기반 행정

Ⅳ.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 및 인권문화의 확장

1.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

2. 인권문화의 확장

3. 미래 로컬 시대, 인권 실행의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연구의 범위는 지역에서의 인권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인권운동 관점에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실천성을 중시하였다. 인권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 및 인권 문화의 확장을 언급 했다. 인권 문화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다. 인권운동을 위해 다름의 이해, 이타자의(利他自義), 양성평등, 인권 조례제정, 지역민주주의, 인간 존중, 인권 기반의 행정, 주민 자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인권의 성격을 역사성, 다양성, 불가분성, 보편성, 양보 불가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의 인권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지역의 인권조례 내용과 인권 기반의 행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 및 인권 문화의 확장, 미래 로컬 시대, 인권 실행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어 : 인권운동, 연대, 협력, 민주주의, 인권 조례, 인권문화, 지역 공동체, 로컬 시대, 시민사회운동, 이타자의(利他自義)

1)대아고 교사, 경상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박사(jhkim16@daum.net)

Ⅰ. 서 론

“서구 기독교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사회정의, 인권, 저항의식 등의 요소를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초월의식과 관용성, 포괄성과 결합시키려 했다. 그는 동서의 장점을 융합한 사상이 문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장차 인류가 한층 더 높은 영적 단계에 도달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음양의 원리처럼 분리되고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협동하는 것처럼, 이 융합된 사상이 인류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근원적이고도 역동적인 힘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1]에 공감하며, 지역에서의 인권운동을 위한 철학적 기초도 융합된 사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교육은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빅테이터의 시대, 그리고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융합 시대로 설명되는 21세기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바로 보편교육의 존재이유였다.”[2] 인간의 삶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1원칙은 인격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 제2원칙: 자유의 원칙, 제3원칙: 공동체 의식과 서로에 대한 동지의식, 연대와 협력의 원칙이다.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일반시민의 강화된 주권의식과 그 덕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권력엘리트들의 진보적 성향이 맞물려 향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모든 차원에서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3] 하지만

---

1) 함석헌, “말씀 모임”, 『전집 3』, p.141.
2) 고병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덴마크에 길을 묻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p.1.
3) 곽노현,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원칙, 그리고 교사정치기본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교사 공무원

지금의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는 시대 변화를 성찰적으로 읽어내고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새 길을 찾아내는 지적, 정치적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준비이기도 하고, 현재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평등을 누려 본 아이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이 민주적이니 세상을 만든다.”[4]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운동도 내용뿐 만 아니라 방법을 통해서도 구현된다. 지역에서의 인권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재정립하려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사의 학교·직무 밖 시민적, 정치적 활동은 교사인권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5]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부산분권운동혁신분부, 민족예술총연합회,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노무현 재단, 통일엔 평화, 진주 YMCA, (재) 희망제작소, 인권재단 사람, 아이쿱 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교육사랑방, 교육 공동체 결, 전교조 등), 한일역사교사교류회, 진주오광대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공동체와 자치실현을 위해 주민에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 참여에서 권한 확

정치기본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p.20.

4) 곽노현,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원칙, 그리고 교사정치기본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pp.22-23.

5) 곽노현,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원칙, 그리고 교사정치기본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p.24.

대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이 미래이기도 하고, 마을 만들기 운동,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근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자치, 분권, 혁신, 협치 시대를 여는 민주시민교육의 확산과 지역화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민중교육의 산증인인 허병섭은 "그들을 위해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했던 외침을 다시 곱씹어 볼 때이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 주체가 형성되고 결국, 그 주체가 있을 때 실질적 변화는 일어난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인권운동을 할 시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양성되는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확산되고 협력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말처럼 미래의 길은 자치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들을 통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6]

로컬 시대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권의 개념이나 인식이 사회에 따라 다르다.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실천 수준이나 장치 역시 마찬가지다. 인권 내용이나 인식 수준에 따라 인권 침해 규정이 다르다.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양상도 다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융합적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인권의 성격과 인권 실천의 사회적 장치를 살펴보고, 개인의 삶의 현장인 지역 공동체와 인권 증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7]

'인권운동'은 인권에 대한 실천적 운동으로서, 모든 삶의 현

6) 지종근, "우리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p.30. 참조.

7)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p.15-16. 참조.

장에 있어서 권력구조에 의한 인간 소외와 배제, 차별을 폭로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하는 것이다.

인권운동의 지역화는 다음과 같다.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각 지역의 고유한 현상과 특성,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과 괴리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 내 인권운동 세력들 간의 상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협력 구조가 있다, 그리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동 및 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인권적 성찰과 실천 내용을 제시한다.

인권운동 지역화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시민인권단체는 인권지역화의 핵심적 주체로서, 인권운동의 당사자이자 현장에 있다. 자기 권리인식을 통해 권리 실현을 주장하며, 실제적인 권리 증진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행정·교육행정은 소수자들의 인권, 또는 인권현장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인권증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적 인권기구이다. 의회는 모든 법령·조례는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인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재검토하여 수정하거나 새롭게 구성한다.

인권운동을 위해 연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의 목소리 찾기와 공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 인권침해의 현장을 면밀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한다. 둘째,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서는 인권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인권이해관계자들의 가감 없는 의사표현의 장을 마련한다. 셋째, 주체 간 상호 이해는 각 주체들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상호 이해를 한다. 넷째, 협의기구를 통한 실천은 각 주체들의 정기적 또는 권한을 가진 명시적 협의체와 구체적 실천한다. 다섯째, 인권에 관한 성찰과 감시, 그리고 다시 실천 기능을 위해서는 인권전문가들의 인권적 관점으로 보는 성찰과 감시, 그리고 다시 인권활동가들

의 이론적 배경과 근거가 되는 순환적 구조를 형성한다.

진주지역 인권운동의 지역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는 역사적으로 1923년 형평사가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공평(公平)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愛情)은 인류의 본량(本良)이라." 이는 형평사 주지의 첫 구절이다. 형평운동이 내건 목표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였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사회를 이루려는 희망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하였다. 그것은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진주를 인권도시로 우뚝 서게 한 역사이다. 우리는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발전하며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한 형평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8]

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스런 존재이며, 서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권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이지만, 그 실천에 대한 노력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역사를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질 때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려는 과정이다."[9] 지역사회와 연구 및 교육 기관, 시민단체 즉,

---

8) 김장하, "인권도시 진주의 빛나는 앞날을 기대하며", 김중섭, 『한국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7.

9) 김장하, "인권도시 진주의 빛나는 앞날을 기대하며", 김중섭, 『한국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p.8-9. 김장하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필자는 현재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민·관·학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첫째 진주지역에 맞는 인권기구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적 인권기구 설립을 통해 최대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인권기구의 법적·도덕적 권한 상승을 한다. 둘째, 공적 인권기관들의 적극적인 시민인권단체와의 접촉 확대 및 협의체 상설화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지역 내 인권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인권단체 활동가 양성 및 인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0)]

Ⅱ. 인권의 특성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 방안

1. 인권의 특성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사람의 권리다. 권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인권이란 개념에는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왜 권리를 갖는가의 문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입장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인간이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특별한 도덕적 성격을 전제하는 것이다. 곧, 인간이란 특별한 존재이며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존엄성과 참살이(Well-being)를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11)] 따라서 인권은 인간의 삶 자체를 뛰어 넘어 존엄을 누리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권의 존재를 인정하

10) www.earticle.net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제주대학교 인권 심포지엄 ‘차이는 이해로, 차별은 배려로, 인권은 존중으로, 행복은 제대로 !!’, pp. 160-162. 참고.

11) Freeman, Michael,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권, p.502.

는 것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인식하고, 인류애(Humanity)를 상정하며, 인간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프리만은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각 개인이 어떤 근본적인 도덕적 지위를 누리도록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며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가는 주체자로서 만드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지배받거나 방해받지 않으며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것"[1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을 인식하는 수준과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문화적 전통, 개인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며, 인권의 실행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인권 실행의 차이를 밝혀내고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인권의 성격을 역사성, 다양성, 불가분성, 보편성, 양보 불가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13]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은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평등한 권리를 타고 났다는 원칙 아래 신체의 자유, 정신 활동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 개인 재산 소유를 보장하는 재산권,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 등 인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년)도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을 천명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태어난 인간은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 등 그에 합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발전도 그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1789년

12) Freeman, Michael,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권, pp.507-508.

13)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의 책,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p.17-32. 참조.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s)은 제목부터 남자 중심의 인권이며 자본가 중심의 인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강조하는 인권도 사실상 백인을 대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지 흑인이나 원주민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권을 전 세계적 인류 사회의 과제로 인식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겪은 인류 사회는 범세계적 정부 간 기구인 국제연합을 결성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 인권선언(1948년)을 채택하였고, 여러 가지 국제협약 체결과 국제기구를 운영하면서 인권 발전을 도모하였다.[14)]

인권은 인간의 적극적 창조물인 역사적, 사회적 현상이다. 형태와 성격은 달라도 전 세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투쟁하며 저항하여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 진주에서 “신분사회에서 차별받던 최하층의 백정들이 차별 철폐와 평등 대우를 주장하며 벌인 우리나라 형평운동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권 발전의 역사가 서구 사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15)] 또한 우리나라에서 1952년 창도된 성덕도[16)] 경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인권 남녀 동구(人權男女同俱)라는 의미[17)]를 되새

14)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Westview Press, 1989. Buergenthal, Thomas,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Evor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9권, pp.703-723.

15)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19.

16) 필자는 (재) 성덕도 교화사로 외조모 때부터 인연이 되어 활동하고 있음.

17) 김종훈, 「한국 신흥종교의 마음공부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청무 논문, 2012. pp.53-54 참조 바람.

겨 본다.

"天恩地惠元理解說(천은지혜원리해설)- 男女(남녀)는 陰陽(음양)인 故(고)로 乾坤(건곤)이 卽(즉) 天地(천지)니 天(천)은 높이 있고 地(지)는 낮게 있으니 世上(세상) 사람이 此意(차의)를 生覺(생각)하고 男尊女卑(남존여비)라 稱(칭)하나 天恩(천은) 地惠(지혜)가 一般(일반)이라 故(고)로 男女(남녀)는 平等(평등)이니라 太初(태초)에 上帝(상제) 造一男一女(조일남일녀)하사 男子(남자)는 陽剛爲德(양강위덕)하고 女子(여자)는 陰柔爲容(음유위용)이라 然(연)이나 生民之初(생민지초)에는 人權(인권) 男女同俱(남녀동구)하여 各有所長(각유소장)이니라 無量淸靜正方心(무량청정정방심)"[18]

인권이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라고 이해할 때, 권리 내용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에 따라 여러 내용으로 확장되어 온 인간의 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것이다. 영어는 인권 복수형(human rights)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권의 다양성은 내용과 성격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더 잘 드러난다. 우선, 인권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인권 내용이 점점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서구에서는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이 인권의 중심 내용이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한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고, 경제적 권리는 자본가 중심의 개인적 재산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20세기 들어와 인권 개념은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는 인종, 성,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보통선거의 확립으로 참정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인권의 범위와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더 나아가 일정한 사회 복지와 안정을 누릴 사회적 권리, 합당한 조건에서 일하며 공정하게 대우받는 경제적 권리,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누릴 문화적 권

18) 『自性反省 聖德明心道德經』, p.26.

리 등 다양한 내용이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2. 지역 공동체의 인권 발전 방안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인권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같은 시민혁명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의 축적된 침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봉착하였다. 새로운 이념의 접목과 성과라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국가적 강박관련 속에서 살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19] 지역 공동체의 인권 발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은 깨어 있는 교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 덕(德)을 지난 시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가 주도하에 끌려 온 우리의 시민상(市民像)을 이제는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근본적인 힘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권의 문제는 한 시대에 완성되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참고로 1980년대 후반 아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 악화와 소비자들의 주권의식 고양을 배경으로 신 사회운동 영역인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이 발전해 나갔다. 1999년 합법화 이후 2003년까지 꾸준히 조합원이 늘어 난 것은 일숙직 폐지, 육아시간 보장 등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운동은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교원노조는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현과

19) 최우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지방분권의제 및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지역 각계 리더 초청 워크숍』, 자료집 2014. p. 44. 참조.

교사의 권익보장이라는 평범한 요구를 내걸었지만 언론과 함께 파시즘의 이데올로기 지배의 주요 축인 교육 분야의 근본적인 민주화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태우정권은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이 좌경용공교육이라는 허위선전과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무기로 교원노조 미탈퇴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추방하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워낙 황폐한 교육현장 때문에 교사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고 공권력의 가혹한 탄압 하에서도 힘을 키워 가고 있다."[20]

전교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20년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되기까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며, 인권 실천과 이행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21] 그러한 인권 보호와 증진의 활동 목표와 내용은 국제 사회의 기준과 헌법을 비롯한 법령의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인권 실행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권 실행에는 관습이나 규범 같은 사회 문화적 가치, 지역 공동체의 여건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 사회적 요구,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권 실행의 사회적 장치는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 차원의 법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 행위는 그 사람의 인권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교육이나 인식 개선 활동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가치와 규범, 관습이 인권 친화적이 되도록 하는 인권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 또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20) 장상환,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국 사회의 이해』, 1994. pp.383-384.
21)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p.35-46. 참조.

구조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공동체 구성의 참여 없이는 인권 실행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 보장이 요망된다. 인권 실행의 사회적 장치의 구축은 구성원들이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에서의 인권 실행 장치의 구축은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아울러 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인권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곧, 국가 차원에서의 법령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인권 실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제화는 법의 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관련 사항을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가 자의적 판단이나 임의로 처리하거나 시혜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22)]

진주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진주는 전국 최강의 보수 꼴통지역이다. 학연, 지연, 혈연이 강력하게 작동하기도 하다. 이것은 진보 진영, 시민단체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선제 이후 진보개혁 시장이 당선된 경험이 없다.

시민운동의 역할은 정당 활동의 목적과 다르다. 시민운동을 하는 목적은 행정과 의정 감시, 지역 문제 의제화 및 참여이다. 정치적 대립 구도의 형성은 시민운동을 어렵게 만든다. 지난 시기 진주지역에서는 진보·개혁 야당의 존재가 미미할 때는 정당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혼재했으나 지금은 정당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시민단체가 가졌던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선거과정 개임과 후보 전술 등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파 조직, 특정 정당 비판세력 또는 지지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신뢰와 지지도가 저하되었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가 제대로 시민을 대표하는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23)]

---

22) 김중섭, “인권조례외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우리시대의 인권』, 2014년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2014. pp.23-24. 참조.

23) 황규민, “지역에서 시민운동, 진주같이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사

시민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피해야 한다. 행정을 비판하기도 해야지만 협력도 해야 하고, 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행정 의정과의 협력, 감시, 긴장을 통해서 시민운동은 이루어질 것이다.

진주 시민운동은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과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민 단체는 존재 이유가 없다. 대중성은 어떤 일을 입장과 방식으로 처리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회원과 시민이 원하는 내용, 방향, 방식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회원 간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일상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떨치고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일상적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야 회원이 모이고 조직에 생기가 돈다. 당위적인 사업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조직이기도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힘은 회원에서 나온다.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의 힘과 연대의 힘을 동력으로, 회원과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면 된다."[24] 실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 쉽지 않다. 특히 선거에 조직적 후보를 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단체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 증대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다.

Ⅲ. 인권조례와 인권 기반 행정의 지역 민주주의

1. 인권조례 제정과 지역 민주주의[25]

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pp.34-35.

24) 황규민, "지역에서 시민운동, 진주같이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p.36.

인권의 지역화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인권 종중의 합의와 이를 실행하는 법적 장치, 저책 수립과 집행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선언, 협약, 법령, 제도 등을 토대로 하여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 공동체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이나 진행 과정에는 지역 공동체의 여건이 작용하게 된다. 인권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 즉 인권 조례 제정과 실행, 인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인권전담기구의 설치와 인권 예산 반영,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에 지역 공동체의 환경과 토양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역 민주주의이다.

지역 민주주의는 인권 실행의 모든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조례 제정의 적법한 입법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지방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따라 주민들에게도 있다. 또 지자체 단체장이 발의할 경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자치 입법을 강조하지만, 대개의 조례가 상급 법률을 시행하거나 집행부의 행정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에 의하여 발의된다. 그 내용도 상극 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판박이 조례'가 많다. 이에 비해서, 지방 의원은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지만 조례 발

25) 김중섭, "인권조례와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우리시대의 인권』, 2014년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2014. pp.25-26. 참조.

의가 활발하지 않다.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을 도와주는 보좌관이나 법무지원팀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 준비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19세 이상 주민의 일정 수 이상으로부터 연 서명을 받아 이루어지는 주민 발의 방식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 서명 활동을 이끌 조직이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 조직이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는 지방 의원과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지만 입법 활동 여건이 열악하여 조례 발의가 여의치 못한 지방의원과 현안 문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원하지만 주민 발의의 추진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시민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지역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주민의 권익을 위한 공공선의 성격이 강한 조례의 경우 더욱 권장할 만하다. 예들 들어, 인권 조례의 경우 시민단체는 인권과 인권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방의원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집행부 및 다른 지방의원들과 협의하는 역할 분담을 한다면 효과적인 조례 제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 또는 주민대표와 지방의원 사이의 협력은 자치입법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이 조례 발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조례가 발의되면, 그 안은 지방의회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대개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기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

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이송되고, 단체장이 공포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의하면, 단체장이 이송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의가 요청된 안은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이 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의회에 있다. 즉, 인권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그렇지만 조례의 시행은 전적으로 지자체 집행부에 달려 있다.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집행부의 사무 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는 인권조례의 실행 상황을 확인하며 시행을 재촉하고, 또 시민단체나 주민들도 조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미진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인권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실제로 인권조례의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시책 수립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인권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인권조례의 취지를 망각하고, 구성원들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도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시정 방침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쉽게 바꾸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안 통과가 일종의 선포식 같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 시행 과정에서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성공 여부는 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 이후의 실행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권조례 제정은 종착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인식 아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권조례 제정 이후, 올바른 시행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감시할 필요

가 있다.

2019년은 진주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었다. 당시 창립선언문을 보면 “다가올 새로운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진주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시민 자신이 앞장서고자 하며, 진주는 인권운동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앞선 시민운동의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새로운 천년의 개막에 다시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는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를 창립한다고 하고 있다.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으로 직접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운동은 부패하고 파벌싸움에만 골몰한 대의민주주의와 직업 정치인에 대한 절망을 돌파하여, 직접민주주의 이상에 한 걸을 다가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시켜 우리 진주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건전한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에 참여하고 감해 나갈 것이다. 지역 공공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 토착비리를 감시하여, 소수의 권력층과 기득권층에 휘둘려 온 진주를 착하기만 한 우리 시민의 권익이 중심이 되는 밝고 맑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진단과 활동 방향을 여전히 정확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창립 당시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26]라고 했다.

지역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협업적

---

26)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결성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p. 1. 참조. 필자는 이 단체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더십의 시대이기도 하다. 2015년 시민운동가 아다콜라오 후보 연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모였는지 꼭 기억합시다”라고 한다. 혁신의 핵심요소는 “좌-우가 아닌 위-아래의 싸움이며,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치 능력 강화(마드리드의 주민참여예산), 온라인+오프라인 공론장(공천, 당직자 선출, 정책 공약, 규약제정을 온/오프랑니 공개과정으로 진행), 바르셀로나 엔코무 사례,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시민 입법권, 국민소환제, 시민의회에 의한 정치개혁), 핀란드 국민발안제, 에스토니아 정치 개혁 등이 예이다.”[27]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의 혁신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상향식과 같은 일방적 관점이 아니라, 타협과 협의를 위한 수평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피아 만시니 아르헨티나 DemocracyOS 설립자는 “500년 전의 미디어 기술과 200년 전의 정치시스템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투명한 절차, 집단적 의사결정이 디지털 혁명 시대 권력의 분산과 공유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몹(smart mob)의 집단지성시대, 21세기 집단지성의 시대에는 개인과 개인의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연대, 공개하고 공유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기득권 엘리트를 견제하는 다중의 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조례 내용

지방자치입법으로서 조례는 정책, 조직, 예산, 제도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게 된다. 인권조례의 내용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방안을 담게 된다.

---

27) 진주참여연대, 이진순, “지속가능한 시민운동과 리더십의 혁신”, 『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pp. 19-25. 참조

즉, 지자체의 인권 인식을 보여주며 인권 실행 여건을 반영하게 된다. 특히, 정책 실행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의지를 반영하며,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 의원들의 관심과 이해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의에 따라 달라진다.

인권조례는 주민 전체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포괄적 인권조례와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부문별 인권조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포괄적 인권조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 Ⅲ-1> 경상남도 18개 중 7개 (시 8개 중 5개, 군 10개 중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개정일
1	경남 진주시	2012-10-04/ (일부개정) 조례 제 1147호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2014. 12. 26.
2	경남 사천시	2013-10-30/ 조례 제 1183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06.09.
3	경남 김해시	2020.04.03.
4	경남 거제시	2015.12.24.
5	경남 창원시	2017.01.06.
6	경남 고성군	2012.07.02./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2181호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7	경남 함양군	2012-12-28/ 2014.12.30. (일부개정)
8	경남 거창군	2013.09.25. 조례 제 2161호

출처 : https://www.elis.go.kr/

인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인권 조례는 전문(前文)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인간 존중과 평등을 구현하는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하나의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목표가 인권 존중과 실행 증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권 조례는 여타의 다른 성

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권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이 세계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인권 실행의 기본 방향을 밝히면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지자체 단체장의 역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건설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는 모든 구성들의 참여와 책무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였다.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로서 규정한 인권기본계획수립은 인권 실행 증진과 주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이나 분야별 인권 고제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인권 보호와 중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실시, 보고서 및 인권 백서 발간, 인권영양평가 실시를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지수의 연구 개발을 통한 인권 실행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인권 실행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증진 활동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단체장의 감독 아래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장 및 민간단체의 인권 교육이었다. 또한 인권 활동에 대한 지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인권

사항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인권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와 같은 조직체제 구축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제반 인권 사항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원 사안을 공적으로 논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방의원, 전문가, 당사자, 행정 담당자 등 지자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지역 사회의 인권 실행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인권 센터, 지자체 집행부 내의 인권전담부서, 인권 상담 및 보호,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설립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전담부서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인권전담부서 설치는 인권 실행 증진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운용과도 직결되는 주요 사안이다.

요컨대, 인권조례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 공동체의 연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이나 실행 의지 및 요구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이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관심이나 의지, 정책 방향 등의 양향을 받게 된다.

3. 인권 기반 행정의 지역 민주주의

인권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권 친화적인 지역 공동체 건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인권의 지역화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인권의 지역화의 성공 여부는 인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집행부와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권 보호와 중진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업무는 흔히 행정으로 일컬어진다. 행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일체의 과정이나 활동을 위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정 영역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행정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관 인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서의 인권 실행 증진을 담당하는 행정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행정관 인권은 다소 다른 성격과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1차적 목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깔고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중시한다. 반면에,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며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자유, 평등, 정의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또 인권 침해 집단을 구제하고 잠재적인 피해 집단을 보호하고자 한다. 즉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행정에서 중시하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는 없다. 이렇게 보면 행정과 인권은 긴장 관계에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책무는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들이 안녕복리의 출발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실행이라는 점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상통한다. 국제 사회는 인권 보호와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하며 올바른 책무 수행을 끊임없이 강

조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인권 실행 수준은 국가의 책무 이행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되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를 가지며, 인권의 실행 수준은 지자체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국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는 행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정의 핵심 과제이자 기준은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이며 복리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하고 공공성까지 강조하게 되면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실행에 기여하게 된다. 즉 인권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서 인권 실행의 중추로서 행정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인권 기반의 행정은 주민 전체의 인권을 지키며 증진시키는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법으로는 최소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인권 기반의 행정은 그것을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이다. 인권 행정은 대민 서비스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게 된다. 질서 유지, 법치주의, 공공이익 등 행정의 기본 방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업무 처리가 인권 기반의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권을 맡는 행정기구나 조직의 존재가 주민의 인권을 위한 행정의 기본 조건이며, 인권 친화적인 행정의 토대라는 점이다. 특히 인권 기반의 행정이 되려면 인권 보호와 중진을 위한 인권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주민 전체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인권 정책의 효과를 높여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전담부서의 설치와 인권 친화적인 행정 집행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인권전담부서의 운용을 통해서 지자체의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 담당자가 인권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인권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의 조직 설치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지자체 단체장의 인권 이해와 실행 의지, 행정 담당자의 인권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은 인권 행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 담장자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 담당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중요한데, 효율적인 인권 교육을 위해서 인권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를 고려할 때 인권전담기구 설치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의 핵심 요소이며, 지역공동체의 인권 실행을 높이는 관건이라는 것이다.

Ⅳ. 미래 로컬 시대,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 및 인권문화의 확장

1.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 및 국제적 연대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실행은 사회적 책임이다. 따라서 인권 실행에는 인권에 대한 전체 사회의 인식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다. 인권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인권 실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와 증진은 법 제정 못지않게 합법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범사회적인 협력이 요구된다.[28)]

인권 실행을 위한 1차적 과제는 올바른 법 집행이다. 민주주의 형식적 틀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어 가는 현행의 사회 진행 과정에서 평등을 핵심 요소로

28)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p. 35-65. 참조.

삼는 인권은 실제로 구현되기 어렵다. 심지어 위장된 민주주의를 내걸고 인권 보호와 증진의 책임을 저버려도 대의제 민주주의 틀 속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인권 실행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국가기관 안에서 권력 분립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가가 갖고 있는 내재적 성격상 완벽한 인권 실행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실행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나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대개 사회적으로 힘없는 집단인데, 그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의 인권 침해 사례가 선거라는 단일 차원의 평가로 시정되리라고 시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인권 침해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은 지난하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인권 실행을 위해서도 현행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고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를 견제하면서 인권 실행을 감시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대안 모색이 시급히 요망된다. 시민사회는 자율적이며 주체적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조직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의 힘과 의지에 의존하는 시민사회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은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 참여가 요망되는 시대에 인권 보호와 중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국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의 대안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직업집단, 언론, 종교 기관 등이 인권 실천을 중심 과제로 인식하며 국가의 인권 정책과 실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때 인권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인권에 관한 개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전반의 인권 인식을 드높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급 기관이나 단체는 설립 목적이나 활동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는 장치를 만들 때 더 나은 인권 실행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협력기구 설립은 실질적으로 범사회적인 인권 실행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권 실행의 성격에 비추어 범사회적인 협력과 함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 아래 국제사회국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의 인권 실행을 위해서 국가를 뛰어 넘는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인권이 인류 사회의 기본 윤리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계 각 지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정부기구수준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 차원에서도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로, 세계의 많은 국가와 언론들이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를 주목하고, 인권 감시(Human Rights Watch) 같은 기구의 지적에 커다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은 인류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할 사안이다. 민주화를 통해 확인된 자유권 쟁취 과정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사회권 확대에서 보듯이 인권 중심의 인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범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29]

필자는 지난 2020년 2월 조선인 학교를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방문했다. 현재 일본에서 조선인 학교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문부성을 앞에서 시위도 했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 스가총리는 아베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라고 근래에도 1만인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총 939개 단체, 개인 11,531명이 참여 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일역사교육교류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08.09-08.12일에 후나바시 중앙 공민관에서 한일교육실천연구회와 경남역사교사모임 주관으로 제 26회 교류회를 가졌다. 2020년 11.28.(금) 한일 교사 학생 교류 간담회를 온라인을 통해 가지기도 했다. 이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즈음, 일본측에서 일본의 수평사 운동과 우리나라 형평 운동과 관련해서 협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 되었으면 하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는 수평사 박물관도 있고, 여러므로 준비가 되어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안 되어 우리나라 형평사 운동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비한 실정이다.

2. 인권 문화의 확장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존중을 반영해주는 인권 문화는 전체

29)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pp. 35-40. 참조.

사회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관행이나 의식, 규범, 가치를 일컫는다. 이러한 인권 문화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실행의 사회적 토양이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전제 사회의 인권 인식이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30] 실제로 인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에 확장되지 않으면 인권의 법적 장치나 실행은 기반을 잃게 된다.

인권 문화는 전체 사회 속에서 다른 가치나 규범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한 충돌은 사회 전체의 인권 문화를 반영해 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의 역사를 통해 그 사회의 인권 문화를 가늠하게 된다.

인권 문화는 사회에 따라 다르며, 또 시대에 따라 변해 가는 것이다. 인권 문화 형성에는 서구의 경우 개인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 “자비심을 강조하는 불교, 인을 강조하는 유교”[31]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인권 증진을 향한 여론과 시민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인권 실행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32]

---

30) 김중섭, “인권 실행의 사회적 장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4권 4호(겨울호), 2000. pp.37-61.

31) 연기영, “불교 전통과 인권의 제 문제”, 『계간 사상』8권 4호 (겨울호), pp. 75-89.

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 사상”, 『계간 사상』, 8권 4호 (겨울호), pp. 108-120.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철학연구』 44권, pp. 17-33.

Abdullahi An-Na`im 엮음, Human Righ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 Quest for Consensus. Pilladelp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32) Starmer, Keir·Stuart Weir, “Strong Government and Weak Liberties: An Overview of Political Freedom in the UK”, The

"새로운 문화 형성을 통한 시민 참여가 인권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것은 거꾸로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바탕이 되었다"[33].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문화적 바탕이 있었기에 여성운동, 시민권 운동, 환경 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이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양성 평등, 인종차별 철폐, 인간 존중의 환경 주창 등의 인권의식이 고양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인권 중심 사고가 일상화될 때 인권 실행은 훨씬 용이하게 된다. 즉, 전체 사회가 인권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인권은 더욱 증진되는 것이다. 인권 문화는 인권 실행의 주요한 사회적 장치이며, 인권 관련 법제정의 바탕이 되며,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 기반이 된다.

경남여성사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경남여성 100년의 삶과 역사에서 "1990년대는 산업화·도시화의 부정적인 특징적 현상으로 사회윤리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정촉력방지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가부장적 성문화를 바로잡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2004)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집결지 폐쇄와 함께 우리사회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 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2005)이 이루어짐으로써 성평등한 가족관계와

Political Quarterly 68권 2호 (4-6월), 1997. pp. 135-142.

33) 김중섭,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인권 실행과 새로운 사회운동: 동서 유럽의 비교 연구",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3권 3호 (가을호), 1999. pp.86-106.

여성인권 향상의 전기가 마련되었다."[34]

비차별에 대한 지향은 성평등교육과 시민교육의 공통점이다. 시민사회의 평등은 인권과 존엄성 존중에 기반을 둔다. 각 개인은 누구나 외모, 성지향성의 개성, 행위, 신념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 누구나 인권, 존엄성 존중을 지니고, 타인의 그것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평등의 정신을 내포한다. 이처럼 개인은 자신의 주인 될 권리가 있고, 각 시민으로서 사회의 주인 될 권리를 갖고 있다. 성평등교육은 성차별에 대한 자작을 일깨우는 교육으로서, 개인을 평등한 주체, 시민으로 인정한다.[35]

인권 문화의 확장에서 성평등교육의 미래 방향은 수평적, 비폭력적, 지성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국제기구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성평등을 교육목표의 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다섯 번째 목표로서 성평등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성평등은 성역할, 성차별, 성정체성을 넘은 평등과 인간애를 향한 인류의 방향이다.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평등과 인간애로서 성평등 교육을 바라보고 실천하기 바란다."[36]

인권의 범위는 넘기도 하다.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우리사회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인권 문화의 확장의 범위이라고 본다.

---

34) 민말순, "1990년대 이후 여성가족정책을 통해 본 경남 여성의 삶", 『경남여성 100년의 삶과 역사』, 경남여성사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1. pp.130-131.

35) 장효진, "공교육의 성평등교육 실천방향",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pp.30-31.

36) 장효진, "공교육의 성평등교육 실천방향",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pp.34-35.

3. 미래 로컬 시대, 인권 실행의 방안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사회 운영방식이 등장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의 폭과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 의식의 향상으로 주민자치의 내용과 활동이 진화되고 있고, 다양한 자발적 주민조직이 주민자치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뒷받침 노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과제는 현재 시민주권이 강화되고 풀뿌리주민 삶이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시대적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민주적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지역 중심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비인간적 소회를 극복해가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지역 주민 삶의 내용을 규정하는 정치적 틀이라면 지역공동체는 주민 삶의 사회경제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 두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으며, 주기적으로 연계되고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주민자치의 역량과 수준을 높여서 주민이 스스로 보다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수준을 높여서 주민자치를 고도화시키는 과정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요체라 할 것이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역주민과 중소에 대한 사회 심리적 유대와 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견고한 주민자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기반 없이 단순히 정부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읍·면·동에 내세워 위로부터 주민자치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하위조직이나 단순한 친목-봉사 조직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요체는 대의민주제 단체자치의 틀을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주민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식적 정치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 즉 수평적 협치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다."[37]

주민자치-지역공동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사업은 대부분 관 주도로 확대되었다. 물신주의-이기주의에 압도되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실제 역량은 부족하다. 주민자율형 결사체 조직과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조직이라는 의미의 주민자치는 아직 미약하다. 현 자치위원회는 풀뿌리주민차지를 위한 공식적 실질적 대표성도 없고, 대체로 관 주도적이며, 행정보조기구 성격이 더 강한 게 현실이다. 지방분권 개혁과 주민자치-지역공동체 혁신을 향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자치분권개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풀뿌리 주민 자치 강화로 지역사회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살리는 관건은 지역과 주민 현장의 주체적 전략과 자치역량의 강화·결집에 달려 있다.[38]

인권 실행은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 자치란 '스스로 다스리는 것' 혹은 '자기 지역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이 사람사는 세상이기도 하다.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서 공식적 정치 행정 및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주민참여 역량 및 수평적 민관 협치 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다양하게 얽히는 주민네트워크 등 그 지역공동체적 기반의 실질적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민관 동반 관계는 구체적

---

37) 황한식, "2018년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심사총평>", 『재 17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료집, 2018. p.6.

38) 황한식, "2018년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심사총평>", 『재 17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료집, 2018. p.7.

사업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동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개방적 민주적 구성방식으로서 참여 주체의 일반 주민 대표성·다양성·전문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운영도 다수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민관 수평적 협치를 구현하도록 쇄신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인권실행이 제대로 될 것이다.

지역에서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실행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의 내용은 주민참여, 민관협력, 지역자원연계 활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학습 및 확산 효과, 자원봉사 및 리더십 육성, 다양한 네트워킹, 지속적 기반 구축, 주민대표성 확보 노력 등 이다. 주민자치-학습공동체-지역 활성화 활동이 서로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주도에 의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획 추진, 그리고 광범한 주민의 참여와 수평적 민관 협치의 실천이 중요하다.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활성화사업,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 체제 구축 등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됨에 따라 지역 활성화사업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의 주체와 기본 동력을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내발적 지역발전방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 스스로 마음에 대한 심층조사와 공동학습으로 그 잠재력을 재발견하여 지역 활성화 의제를 추진하고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자립적 발전은 쉽지 않기에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로서 중시되어야 한다.

지역 활성화 사업은 주민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환경, 경관, 복지, 경제, 고용, 문화, 교육, 자치 등이 전체로서 어울

려지고 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목적을 중심하고 주민참여 공론화과정을 통해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 발전의제 선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공동체는 마음주민들의 욕구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주시민교육과 직간접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지역인재양성과 주민결사체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 위원회 등 지역사회 주도의 청소년 마을공동체 체험교육의 우수 모델이 '마을이 학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청소년 학습교육의 장이자 기초생활권 교육자치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전망이 주목된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주도의 청소년 교육운동과 달리 학교와 교육당국 주도로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체가 혁신되어야 한다. 지역적 실천주체 육성과 핵심리더십 구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사회적 대화-공론화-협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책임지는 생활정치문화 육성을 중시하고 마을공동체와 자치센터가 일상적 주민학습공동체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단위 개별분산성의 한계를 넘어서 먼저 기초지자체 차원, 다음 광역지역권 차원에서 폭넓고 깊은 네트워크와 연대체제의 구축과 실질적 연대활동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야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관련 제도 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실질적 근린 주민자치제도의 법제화, 지역주도-시민중심 지방자치 혁신, 지방분권-주민자치 개혁, 이들을 위한 시민정치의 주체로서의 역할 등 여건과 정세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 자치는 인권 실행의 방안으로 토대이고 풀뿌리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 인권 실행의 혁신가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역에서 함께하는 지역 네트워크(함지네), 진주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진주혁신포럼 등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Ⅴ. 결론

지역에서의 인권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은 쉽지 않다. 필자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부터 지역학교,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 인터넷 기반 카풀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형식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시민사회의 역할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동을 주도하고 대중 참여와 논쟁을 촉진'을 강조해 왔다. 또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의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해 왔다. 여기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39]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셋째, 네트워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핵심은 경험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데 있다. 이는 지역사회,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화된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운동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파터너십을 형성하고 정지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장기적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40]자성반성 해 볼 때, 민주주의를 제대로 몰았다.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41]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성품을 깨닫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인권실행도 이것의 연장선이다.

인권 실행을 위해서 인권 관련 법 제정, 국내외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다각적인 협력, 인권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인권은 모든 인간 개개인이 하나의 존중받는 개체로서 인식될 때 진정으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보호와 증진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나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상적인 삶은 인간이 생활하는 일터와 삶터

39) 노무현,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연설 중, 2007. 06.10.
40) 노무현, 『진보의 미래』, p.295.
41) 노무현,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2007. 06.02.

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권 실천에 대한 감시와 증진 노력은 일터와 삶터를 포괄하는 지역공동체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 실천과 지역공동체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치가 사회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정치체계와 관련성이 적은, 적어도 관련성을 적게 가져야할 영역조차도 정치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실행조차도 정치체계나 정치의 역학 구조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는 각 부분의 자율성 성장에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강화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서 형성되어온 정치 부분의 강력한 영향력 현상은 서울 중심의 사회 질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치 중심의 사회 틀에서 갖게 된 서울의 힘은 비단 정치에만 한정 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까지 막강하게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의 자율성은 발전하지 못하며, 또 지역사회의 역량이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 중심 체계 및 서울 중심 체계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발전을 전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실천의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권 발전에 국가와 중앙이 이바지할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렇지만, 삶터와 일터에서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은 한계를 갖게 된다. 국가 수준에서 설정한 법이나 인권 기준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행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실행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면 인권 실행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인권 실행을 위해 국가나 시민 사회, 개인의 범사회적 협력

이 요구된다. 특히,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삶터와 일터인 지역 공동체에서의 인권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나 중앙의 역할이 막강한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국가와 중앙에만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에서의 인권 실행을 감시하고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나 인류 사회의 경우처럼 지역 공동체 구성요소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법대로 인권을 보호하며 집행하는 지역행정기구의 역할과 함께,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는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실행을 감시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원인과 개선 방향 등을 진단하고 전망하며 그에 근거하여 새로운 제언을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 의식과 인권 중심의 문화 확산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인권은 인간에 대한 입장 표명의 문제이다. 또 사회적 맥락에 따라 실행되는 사안이고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인권 실행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강화해 가는 것도 시급하다. 시민 개개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권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각급 정부 기구와 지방차지 기구의 인권 중심 정책입안이 중요하며, 아울러 인권 발전을 위한 각급 사회단체와 기관의 협력이 더욱 요망된다.

인권 발전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기구 결성이 필요하다. 범사회적 협력 기구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연대회의이다. 아쉽게도 진주지역에서 시민단체 연대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단체는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물적,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관련 사항

의 정보를 교류하며, 인권 감사와 증진 활동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준상설적인 인권협력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인권 관련 요구를 수집하며 인권실행기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기구와 제안 통로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구 결성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 지방자치기구, 시민단체의 협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 더 나아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민주주의는 인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권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인권을 올바로 누릴 때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둘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된다."[42]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은 인간 존엄과 평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이며 내용으로서 이 시대의 주요한 과제이며 사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시민개인과 지방자치기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일상생활의 중심지인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과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 향상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인권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지역의 인권 발전은 사회전반에, 또 인류 사회 전체의 인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류사회는 도덕 사회로서 시대적 흐름에서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생명 존중, 평화,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의 존엄성

42) 김중섭,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년, p. 37.

등은 인류 구원의 공동선이며 더욱 절실해진 소망이다. 개인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인간이 인간임을 존중하는 마음공부가 필요하며 도덕 정신이 요청되는 것이다. 삶 속에서는 도덕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곧 인권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나부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져 화목으로 도우려는 대의(大義)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도덕문화'를 이루는 일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도덕정신이 중심이 되어 인류가 화합하면 동기일심으로 만화가 귀일이 될 것이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서로 화목하게 사는 도덕 문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인권이 증진된 복지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도 해서, 평화롭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사적 의미에서 시대적인 운명이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실천적인 평화, 생명 존중,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자성의 성찰과 함께 작은 것부터 지금-여기에서의 삶의 실천 공부가 우선이라는 자성을 성찰한다.

다인종·다문화·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성을 가진 주체로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의 화합, 문화의 융합, 종교 간의 화해(대화)의 태도' 형성을 위해 우리나라 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은 필요하다. 먼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현하여 시대에 맞는 '인간다운 인간'의 완성을 한다. 교육의 장은 삶을 체험하는 공간이었으면 하고, 가장 지역적인 가장 세계적이다. 문명의 대전환에 의해 대다수가 주체가 되는 희망의 시대를 기대한다. 인권이 확장된 사회는 그 문명의 전환을 선도하고 누가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삼시 세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일 속 인권

실천을 위한 도덕 사회를 만들 것이다.

삶을 위한 교육,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해동포(四海同胞)를 사랑하고 인류 사회가 도덕 사회가 되는 토대가 된다.

참고문헌

『自性反省 聖德明心道德經』

고병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덴마크에 길을 묻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고인수, “여러 세계의 종교관은 …”『성덕의 빛』, (문경: (재) 성덕도유지재단, 2014)

곽노현,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원칙, 그리고 교사정치기본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김성수, 『함석헌 평전』,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1.

김장하, “인권도시 진주의 빛나는 앞날을 기대하며”,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김종훈, 『한국 신흥종교의 마음工夫 硏究-聖德道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종훈, 『현대한국 도덕교육에서의 효교육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중섭,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년.

김중섭, “인권조례외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우리시대의 인권』, 2014년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2014.

김중섭,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인권 실행과 새로운 사회운동: 동서 유럽의 비교 연구”,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3권 3호(가

을호), 1999.

김중섭,『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노무현,『진보의 미래』

노무현, <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연설 중>, 2007. 06.10.

노무현,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중>, 2007. 06.02.

민말순, “1990년대 이후 여성가족정책을 통해 본 경남 여성의 삶”,『경남여성 100년의 삶과 역사』, 경남여성사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1.

박누리, "'끝'은 끝이 아님을,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이끈 '조례 만드는 청소년'

연기영, “불교 전통과 인권의 제 문제”,『계간 사상』8권 4호 (겨울호)

장상환,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와 방향”,『한국 사회의 이해』, 1994.

장효진, “공교육의 성평등교육 실천방향”,『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 주제 강연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실대회 자료집, 2020.

지종근, “우리 동네 안에 국가 있다”,『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진주참여연대, 이진순, “지속가능한 시민운동과 리더십의 혁신”,『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진주참여연대 결성 20주년을 맞이하면서”,『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최우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2014년 지방선거 지방분권의제 및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지역 각계 리더 초청 워크숍』, 자료집 2014.

함석헌, “말씀 모임”,『전집 3』, p.141.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철학

연구』 44권.

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 사상”, 『계간 사상』, 8권 4호 (겨울호)

황규민, “지역에서 시민운동, 진주같이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활동의 현안과 전망』, 2019년 진주참여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

황한식, “2018년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심사총평>”, 『재 17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료집, 2018.

Abdullahi An-Na`im 엮음, Human Righ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 Quest for Consensus. Pilladelp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Westview Press, 1989. Buergenthal, Thomas,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Evor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9권, pp.703-723.

Freeman, Michael,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권, p.502.

Starmer, Keir·Stuart Weir, “Strong Government and Weak Liberties: An Overview of Political Freedom in the UK”, The Political Quarterly 68권 2호 (4-6월), 1997. pp. 135-142.

고인수의 홈페이지 http://www.kosoo.net/ (검색일 2020 11월 17일).

www.earticle.net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제주대학교 인권 심포지엄 ‘차이는 이해로, 차별은 배려로, 인권은 존중으로, 행복은 제대로 !!’(검색일 2020 11월 27일).

https://www.elis.go.kr/(검색일 2020 11월 20일).

<Abstract>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region, - Focusing on civil society movement -

Kim Jong -Hun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examine solidarity and cooperation measures for human rights movements in the region, focusing on civic m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solidarity, cooperation, and practicality were emphasized. It mentioned the expansion of a cultur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human rights, as well as pan-social cooperation for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order to expand the culture of human rights, activation in the local community is key. For the human rights movement,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others,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ordinances, regional democracy, respect for humans, 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 and resident autonomy. The overall flow of the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Ⅱ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in history, diversity, indivisibility, universality, and non-concession, and also examines ways to develop human rights in local communities. Chapter Ⅲ examined the contents of local human rights ordinances and 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 In Chapter Ⅳ, we examined the widespread social cooperation in human rights practice,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culture, the future local era, and measures for human rights practice.

Key words : human rights movement, solidarity, cooperation, democracy, human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culture, local community, local era, civil society movement, altruistic person (利他自義)

심리학으로 살펴본 남과 북

심리학자 김태형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를 취재해온 내 경험에서 보면 북조선 관련 신문기사의 대부분이 오보 또는 미확인 정보이다. 특히 한국 매스컴이 전달하는 북조선 관련 미확인 정보의 대부분은 오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북조선에 대해 아무리 나쁘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 전문기자인 일본인 시게무라 도시미쓰)

대북인식장애의 원인 : 공포

- 북에 대한 비정상적인 증오와 혐오 분위기

  : 두려운 진실 – 안전한 허위

- 국가보안법

1. 돈과 관련된 심리

	남	북
돈에 대한 욕망, 집착	병적으로 강함	별로 없음
돈 중심 사고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사고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음
행복에 대한 견해	행복 = 돈	행복 = 명예
노동과 삶의 목적	돈	명예

돈 개념이 다르다?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죠. 언젠가 (북쪽 노동자가)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네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삽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해가 안 됩네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쪽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쪽 사회주의 개념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 집 한 채 없는데, 북쪽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살겠구나 싶기도 하죠.

남 :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

-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 : 생존 불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 존중 불안**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생존을 좌우하지 않는다 : 3무 제도

제3세계형 복지국가(박노자)

- 무상교육 : 유치원부터 대학, 석박사 과정 등(12년 의무교육제, 사교육 없음)
- 무상의료 : 입원비, 출산비 등 모든 의료비 무상
- 무상주택 : 집이 필요한 나이의 성인들에게 주택 제공

➢ 직업 보장 : 실업자가 없다 / 고아도 국가가 책임짐

돈이 생존을 좌우하지 않는다 : 배급제

① 먹거리 : 쌀을 비롯한 식량(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배급) / 된장, 간장, 식용유, 소금 등 양념이나 조미료 등 / 채소, 과일, 사탕, 과자, 물고기 등을 정기적으로 배급 / 국가적 명절 등에는 고기류 등 특별 배급 / 김장철인 11월에는 김장용 배추 배급 / 직장과 지역 단위로 옥류관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권 배급 / 성인에게는 맥주를 비롯한 술과 담배 등도 배급

② 입을 거리 :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에게 교복, 솜옷(교복 위에 입는 겨울옷) 등 배급 / 교원들을 비롯한 직장인들에게 해마다 양복지를 비롯한 옷감 배급

③ 기타 배급 : 학생들에게는 가방, 신발, 교재, 학습장, 필기구와 같은 학용품 배급 /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성인과 학생들에게는 차비 지급 / 직장 단위로 놀이공원 등의 이용권 정기 배급

고난의 행군

- 80년대 이전까지 : 북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잘 살았다
- 90년대부터 북이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 이유

첫째,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환경이 북에 크게 불리해졌다.

둘째, 국제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조건에서 심각한 자연재해가 연속으로 북을 강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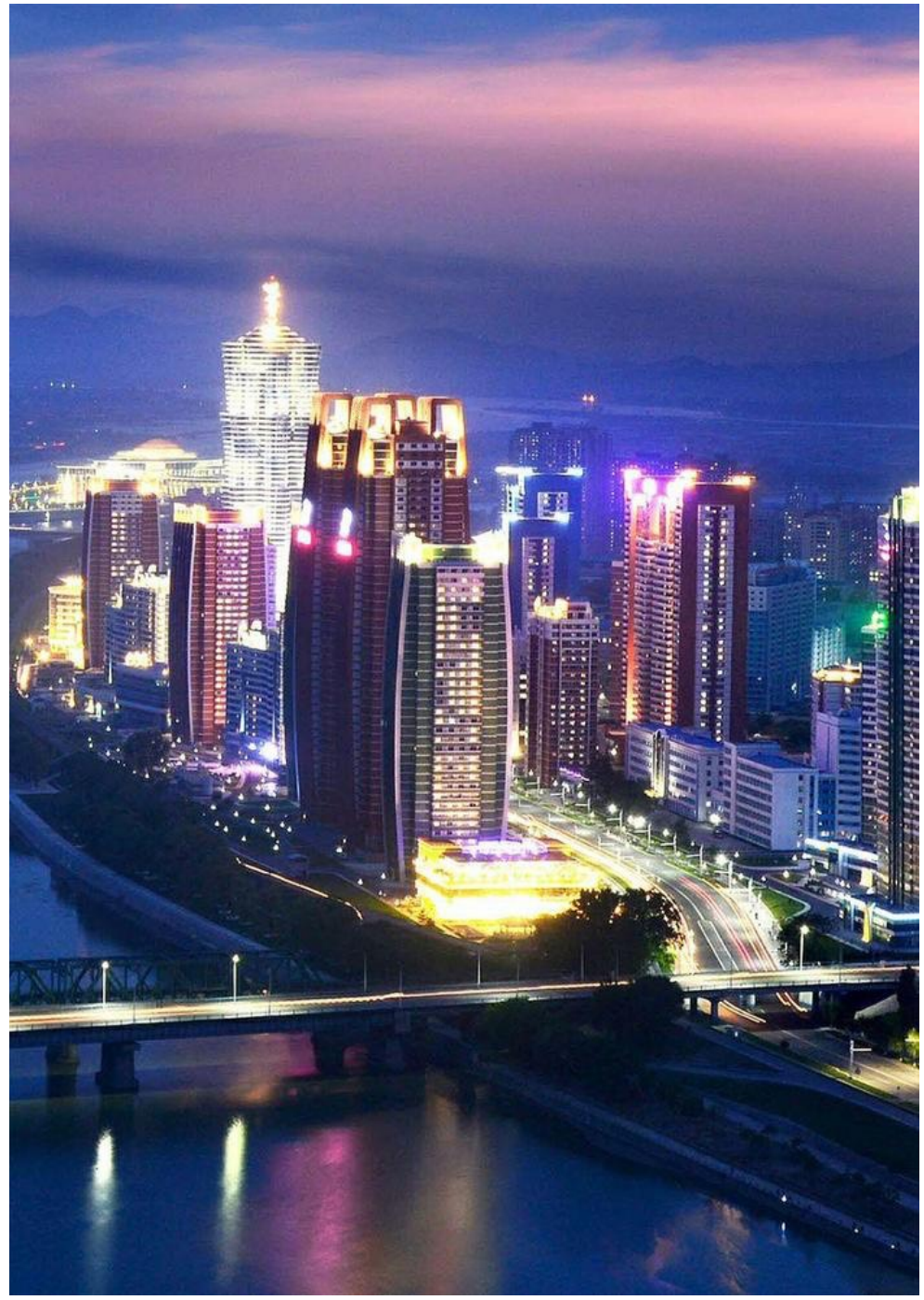
- 북은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

- 2005년 8월, 북의 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원조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05년 10월 1일에는 식량배급제도를 전면적으로 회복했다.
- 최근에 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북의 경제가 크게 호전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2*년의 평양과 *2018*년의 평양은 불과 *5, 6*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되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택시가 급격히 늘어났다. / 최근에는 평양에서 운행하는 택시만 *1,500*대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가용 차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 국가핵무력 완성 : 경제에 집중하기 시작





돈이 사회적 존중을 좌우하지 않는다

-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풍조 없음

우리가 애들한테, 지나가다가 '너희 엄마 어디 다녀'하게 되면, 엄마가 길바닥에서 미화사업소에서 길을 쓰는 아줌마라도 아이들은 '우리 엄마, 미화사업소 다녀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집에서 논다고 하게 되면, '엄마 뭐해?'라고 물을 때 머리 숙여요. 부끄러워합니다. … 사회 자체가 내가 사회적 존재라는 긍지감으로 살거든요."

북쪽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일은 없지만, 부모가 당원이냐 아니냐를 두고서는 부끄러워한다.

-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 명예(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는가)

돈에서 자유로운 북쪽 사람들

- 돈이 없더라도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는다
- 돈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다
- 노동, 삶의 목적 : 돈이 아니라 명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북한의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김민종, 2016년)

① 대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3명), 대원수님을 만났을 때(3명)

② 조선로동당원이 되었을 때(2명),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이 되었을 때(각각 1명)

③ 김일성장학금을 받았을 때(1명),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상했을 때(1명)

④ 궁궐 같은 새집을 받았을 때(1명)

➢ 행복 :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을 때

2.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 한국 : 나만 아니면 괜찮아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
- 북 : 모두가 괜찮아야 나도 괜찮아 /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협력

개인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극소수 개인	개인	집단
주요 내용	극소수(국가, 민족)를 위해 다수의 개인을 희생시킴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약육강식)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회적 조건	극우 파시즘	전제 :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 /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	전제 :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 / 계급 폐지 :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짐
결과	광기가 지배하는 야만국가	지속불가능 /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악화	지속가능 / 사랑, 협력 관계
축구팀의 예	팀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과물을 감독이 독차지	선수들이 팀 승리가 아니라 개인성적을 위해서 경기를 함	선수들이 팀 승리를 위해 경기를 함

집단적 경쟁

- 북에서의 경쟁은 항상 집단적 경쟁이다.

  (조, 짝 제도 등)

- 경쟁의 동기나 목표가 다르다.

갑질의 원인

① 개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타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특히 타인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갑질은 주로 조직 내의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

② 조직 내 민주주의가 부재할 때 발생한다.

③ 권력 견제장치가 없거나 취약할 때 발생한다.

갑질이 불가능한 이유

① 개인 간, 조직 내에 위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② 생활총화 :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

③ 신소제도 : 신소과에 신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담당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혁명화)

폭력 폭언이 없다?

-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몇몇 한국인들은 북쪽 노동자에게 무심코 “야~ 이 똥강아지야!”라고 부르거나 농담으로 “이 거지 같은 놈아!”라는 말을 했다가 추방을 당했다.
- 일부 한국인들은 북쪽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하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 한 기업주는 술집에서 서비스하던 여성 봉사원의 명찰을 보고서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불렀다가, 그 봉사원이 반발하며 서비스를 거부하려고 하는 바람에 무마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 개성공단 관리기관에서 자동차 기술정비 관련 업무를 했던 정진우 씨(가명) : 사소한 욕은 물론이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북쪽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북의 조직문화

- 개성공단의 관리기관에서 근무했던 김정석 씨(가명) : 폭력과 폭언이 일상화된 한국의 도제제도 속에서 기술을 배웠던 한국 기술자들이 “나는 ‘펜치’로 맞아가며 배웠다”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며 북의 노동자들을 대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조언
- 그는 북의 노동자들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폭력적인 기업문화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북측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기업문화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 우리 사회나 기업에는 여전히 봉건적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측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격차와 차별 : 관계를 악화시킴

- 집안이 화목하려면 : 부모가 자식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사회가 화목하려면 : 국가가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사회적 기능 : 관계에 크게 기여한다
-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빌붙거나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 의존 관계(불평등 관계) : 위계(지배-피지배) 형성, 희생 강요, 주체성과 독립성 훼손

의존 관계의 문제점

- 북유럽인 파르타넨 : 미국에서 살면서 서로에 대한 의존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만난 미국인들은 오히려 경쟁과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유를 내려놓고 배우자, 부모, 동료, 상사에게 점점 더 신세를 졌다. 이런 상황이 초래한 부담과 긴장이 모든 이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는 듯했다.

- 노르딕 사회는 사회적 의존성의 낡은 형태를 혁파하는데 성공하여, 현대성을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그 결과 많은 미국인이 꿈만 꾸었을 뿐인 이상들, 즉 진정한 자유, 진정한 독립, 진정한 기회를 일상에서 실현해냈다. … 노르딕 사회가 이미 경험한바, 가족의 낡은 의존성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더욱 활기가 넘치고 부부 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고 가족은 더 굳건해진다. 당연히 모두들 더 행복해졌다.

국가가 개인의 생존 책임 : 관계 좋아진다

- 영화 <볼링 포 컬럼바인>의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 반대한다고 대답
- 캐나다로 간 그가 길에서 만난 한 무리의 캐나다 청소년들 – 가죽옷에 피어싱과 문신까지 하고 있는 불량스러워보이는 청소년들이었다 – 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대답

사회와 세상을 움직이는 힘, 신뢰

- 불신사회 : 무상의료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북유럽인들은 적어도 “의사가 윤리보다 이윤을 우선시할지 모른다는 의심은 별로 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 당연히 마음에 드는 의사를 찾느라 필사적이다.” / 탈북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북은 그래도 힘들었어도 사람의 정이 느껴졌다. 여기는 사람의 정이 너무 메마르고 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북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김련희 씨)
- 신뢰 사회가 되려면 개인들이 서로를 신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을 시찰했던 미 국무성의 한 당국자는 “기아에 대한 북조선식 대응의 배경에는 유교의 전통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북에서는 부족한 식량을 먼저 노인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이것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 있다”고 평했다.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의 노인들은 자기들은 살만큼 살았다면서 자신에게 할당된 식량을 아이들한테 주라고 요구하면서 식사를 거부하여 아사한 이들이 많았다. 군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배급된 식량을 아이들에게 양보했다. /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많이 죽은 이들은 당원이었다. -> 신뢰 사회가 위기에 강한 이유

3. 스트레스와 근심걱정

- 공부 스트레스(사교육비 스트레스) :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모두가 꼭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취업을 못 하거나 불평등한 대우와 무시를 받을 걱정도 없어요. 공동체가 부여한 자기 일을 하면 되니까요. … 모든 인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배움인 것 같아요.(김지이 씨)
- 진로, 직업 스트레스 : 북쪽 사람들은 일할 나이,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면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 3곳을 적어내는데, 대체로 그 중에서 한 곳으로 배치가 된다. -> 대체로 자신의 재능과 희망에 맞는 직업 쪽으로 배치되므로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 “만일 북에 있을 때 한국에서처럼 일했다면 이중 노력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근심걱정은 없다?

- 돈 걱정(생존)을 하지 않는다
- 무시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 취업 걱정을 하지 않는다
-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다

4. 일 : 직업과 노동

- **직업 만족도 높은 편** : 북에서는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면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 3곳을 적어내는데, 대체로 그 중에서 한 곳으로 배치가 된다(재능과 희망 기준)
- **노동의 목적** :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
- **직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 국가적 임무 수행, 직업에 따른 차별 없음
-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 8시간 노동제, 노동강도(만일 북에 있을 때 한국에서처럼 일했다면 이중 노력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5. 정신장애와 사회병리

- 정신장애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 탈북자들 : 한국에 와서 우울증, 불면증 같은 말을 처음 들어봤다 / 자살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 북에는 정신병원이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김련희 씨에 의하면 북에서는 정신예방과 병원을 ‘49호’라고 부른다고 한다.

북쪽 사회의 범죄

- 소매치기, 도둑질, 간혹 가벼운 사기범죄가 발생한다. / 살인, 인신매매 같은 강력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홍콩 언론인 장쉰 : 도둑이 매우 적어 주택 창문에 도둑 침입을 막는 방범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에는 줄이 매우 길어 문밖까지 늘어서기 일쑤다. 아마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자신의 가방을 문 밖에다 걸어두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곧잘 보였다. 도둑맞을 걱정을 전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 북에 범죄가 적은 이유 : 돈에 대한 욕망이 낮다, 관계가 양호하다

6. 북의 정권은 폭압정권인가?

- 어떤 심리학자가 아동학대 가정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해보자. 당연히 부모들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아이들 역시 부모의 협박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표정과 언행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 집안 분위기 등을 보면 아동학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 아동학대가 있는 한 그것은 아이들을 통해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북의 정권이 폭압정권이라면 그 증거는 그 무엇보다 북쪽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권에 의해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혹사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등으로 끔찍한 학대를 당한다면, 북쪽 사람들은 최소한 학대당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처럼 전형적인 피학대 심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학대를 당하면 착해진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눈에 비친 북쪽 사람들은 마치 과거 한국의 농촌 사람들처럼 때 묻지 않은 선량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폭압정권 치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폭압정권에 의해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두들겨 맞고 총살을 당하면서 살면 사람은 선량하고 순수해지는 것일까?

두려움 : 경계심과 긴장

- 깡패들이 지배하는 어떤 학급을 한번 떠올려보자. 아마 학생들은 깡패들한테 맞을까 봐 두려워하며 매사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잔뜩 긴장한 채 깡패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이다. 공포가 뒤덮은 사회에서 이런 심리적 반응은 필연이고 그것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 북쪽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북에서는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내리먹이기가 통할 수 없고, 정부기관이 일을 잘못하면 아랫단위에서 항의와 신소가 빗발친다.
- 북쪽 사람들 속에서는 또한 '경계심'이나 '긴장감'도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 : 속마음을 직선적으로 드러내는 솔직함은 권력을 경계해야 하는 사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회, 솔직하게 말을 했다가는 경을 치르는 사회에서는 절대 일반화될 수 없다.

무력감 : 권리의식 부재와 수동성

- 북의 정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간섭하고 통제했다면 북쪽 사람들은 무력해져서 권리의식이 빈약해지고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쪽 사람들의 권리의식과 수동성을 검토해보면 북의 정권이 과연 폭압정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북쪽 사람들의 권리의식은 대단히 높은 편 : 국가가 나한테 매달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꼬박꼬박 줘야만 하고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례 : 예를 들어 아침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계를 수리하여 정상으로 돌리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남측(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측(근로자)의 사고는 많이 달라요. 휴식 시간이 되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 생긴 휴업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쉽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남측 주재원들은 북측 근로자들에게“이런 게 사회주의의 병폐이며 비효율의 극치”라고 한 마디씩 하는데, 북측 근로자들은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맞받아칩니다. … 엄밀히 보면, 남측의 노동법규를 적용한다 해도 북측 근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 수동성과도 거리가 멀다 : 북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을 방문했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울과 비관

- 폭압정권 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쾌하고 명랑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폭압정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병적인 환락과 유희는 있겠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울하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 북쪽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우울이나 비관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명랑, 유쾌에 가깝다 : 얼굴표정, 농담을 무척 잘하고 즐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시련이 닥쳐도 신경질이나 짜증,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나 농담으로 반응한다, 항상 놀이를 즐긴다
- 개성공단 관리기관에서 근무했던 정진우 씨(가명) : 북쪽 사람들이 “화내거나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대체로 차분하고 심성도 좋아요. 그리고 다들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검열과 억압

- 생각조심,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원활할 수 없다 :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
- 북쪽 사람들의 사고능력은 우수한 편 : 언변이 뛰어나다
- 개성공단의 한 기업에서 생산라인을 관리했던 이성령 씨(가명) : *(*북쪽 노동자들이*)* 음담패설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나 말장난 자체를 좋아하고 또 잘해요. … '말빨'이 세다고 할까? 대부분 달변이고, 말을 받아치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남측 사람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북측 근로자들이 말을 잘 하고 재미있게 받아치는 능력들이 있어요.

쉬어가기 : 육담 문화

- 성을 금기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 :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억압은 정치적 억압과 비례
- 부부간의 성생활이 원만한 것을 반영하는 현상 : 부부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 / 북쪽 사람들은 남녀 간의 성생활을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즐거운 놀이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 농담 중의 하나로 성적 농담을 즐긴다 -> 성생활을 즐기는 것은 정신건강의 주요한 지표
- 북쪽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좋은 것을 반영하는 현상

6. 북의 정권과 정통성

- 한국인들의 우월감과 편견 : 북은 폭압정권이다 -> 그런데도 북쪽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는다 -> 북쪽 사람들은 머저리다

- 북쪽 사람들은 북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북의 정권은 민족자주에 대한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② 북의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다 : 민중의 이익을 대변

당원 = 특권층?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 당원을 “보편적으로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된다.
- 북측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두 번 세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 1세대인 백두혈통이 국가를 건설했고, 두 번째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38만 명이 굶어 죽는 와중에 당원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살렸다는 거죠.

3대 세습을 비판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점

- 최고지도자와 후계자를 추대하거나 결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북의 내부 문제이다. : 북쪽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면 한국인들 역시 북쪽 사람들의 선택권이나 결정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
- 한국인들은 북쪽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던져야 한다 :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월감에 젖어 북쪽 사람들을 “김씨 일가가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데도, 마냥 환호하고 만세나 부르는 머저리들”로 간주하며 아래로 내려다본다. 즉 한국인들은 북쪽 사람들의 소망, 신념, 경험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의 판단이나 결정을 하찮게 여기면서 “너희는 다 틀렸고 나만 옳아” 라는 입장에서 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 북-미 회담이나 남-북 회담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북쪽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머저리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인들만큼 혹은 한국인들 이상으로 똑똑하다. 북에는 북의 체제를 떠받치는 방대한 규모의 엘리트들이 있고, 북의 일반 주민들 역시 지적이고 인간성이 양호한 정상적인 사람이다.

➢ **북의 지도자나 사회체제를 깔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쪽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다.**

맺는 말

- 한국과 서방세계는 지금까지 북에 대해 완전히 오판해왔음을 과감히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의 정권은 폭압정권이라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곧 붕괴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북 체제의 견고한 응집력과 놀라운 회복탄력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북 바로알기를 넘어서서 북쪽 사회(사회주의)의 좋은 점은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현행 조례들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비교.검토

김소진(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최초로 선거를 통해 뽑았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3년[1] 사이에 제정되었다. 물론 지방선거의 성과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탄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이라는 법률적 성과를 획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권담론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의 땅을 다지고, 2000년 이후 학생인권운동과 교육운동이 그 씨앗을 뿌리고[2]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정당성과 절차적 논의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3] 그 결과 경기도[4]와 광주[5]에서는 교육감 발의를 통해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반면, 제정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아래로부터 조례를 만들어가는' 주민발의 방식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례제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서울[6]과 교육감발의와 의원발의가 3차례 부결되는 진통 끝에 결국 의원발의로 제정된 전북도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7]에서 자치법규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을 막으려는 보수교육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8]로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더욱 가시밭길이 예상되었다. 특히 경남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좌절되면서 느꼈던 절망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분노로 폭발하여 2014년

---

1) 먼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0월 28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다.

2) 중등우리교육 편집부, "인권운동과 교육운동 '모른 척'은 이제 그만!", 중등우리교육(2006), 64쪽.

3)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제12차 인권교육 포럼: 학생인권, 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자료집(2010); 배경내,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인권 보장 입법의 중요성",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2호(2012), 87쪽-112쪽;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2010), 125쪽-144쪽,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제157호(2011), 42쪽-46쪽;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2호(2011), 51쪽-80쪽;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철한 제61집(2011), 415쪽-438쪽 등이 있다.

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 관해서는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경과", 제12차 인권교육포럼: 학생인권, 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2010), 3쪽-18쪽 참고.

5) 자세한 내용은 이용교/이중섭,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제1호(2012), 65쪽-98쪽 참고.

6) 전누리, "마침내 열린 학생인권의 시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의미", 황해문화 제75호(2012), 232쪽,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7) 2007년 12월 14일 학생인권보장의무를 학교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에 마련되었던 관련 규정과 의무 등 구체적 내용과 책임규정이 모두 탈락된 채, 당시 '참여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한 채 정권을 'MB정부'로 이양하게 되었다.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주법학 제6권 제1호(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1쪽-42쪽.

8) 전누리, 앞의 논문, 241쪽-242쪽.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에 대한 비판으로 송기춘, "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도 비판", 아주법학 제6권 제1호(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쪽-37쪽 참고.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을 선출했다. 하지만 현 교육감 초기 2015년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겪으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선을 확장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세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정부 권력을 교체하고, 의회권력 구도 또한 재편하는[9] 성과를 얻었다. 그동안 경남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되었던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발의를 청구하더라도 교육감의 반대에 부딪쳐 의회문턱조차 넘기지 못하거나, 반면에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끝내 의회권력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되고 말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경남은 2018년 지방선거의 성과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치적 장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최초 제정된 경기도 조례와 거의 10년의 간극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들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자 한다.

2. 현행 조례들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 지자체의 조례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하 '경남 조례안'이라고 함)[10]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논의한다. 먼저 전체적인 체계를 비교해서 살펴본 뒤 학생인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비교하고, 다음으로 학생인권보장기구와 침해구제절차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2.1. 조례 체계의 비교

현행 조례들과 경남 조례안의 전체적인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9)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당선자는 민주당 34명(비례 3명 포함), 자유한국당 21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비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 검색일: 2019. 2. 1.

10) 이 글의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469&menuCd=DOM_000001660030000000&startPage=1&dataSid=986577>, 검색일: 2019. 1. 20.

<표 16>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체계 비교

지자체	체계	주요내용
경기도[11]	제1장 총칙	목적.정의.학생인권보장원칙.책무
	제2장 학생의 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23개의 권리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인권실태조사 및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와 구제신청
	제5장 보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12]	제1장 총칙	목적.정의.책무
	제2장 학생인권증진계획 등	학생인권증진계획 및 실태조사 등
	제3장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 보장원칙과 학습할 권리 및 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 14개의 권리
	제4장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5장 학생의회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장 인권교육 및 연수	인권교육지원 및 학교인권교육 등
	제7장 민주인권교육센터	민주인권교육센터 및 상담과 구제
	제8장 보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13]	제1장 총칙	목적.정의.학생인권보장원칙.책무
	제2장 학생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24개의 권리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학생인권교육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조사
	제5장 보칙	시행규칙
전라북도[14]	제1장 총칙	목적.정의.학생인권보장원칙.책임과 의무
	제2장 학생의 인권	학습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23개의 권리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인권교육 및 학생인권 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제5장 보칙	시행규칙
경상남도	제1장 총칙	목적.정의.적용범위.기본원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26개의 권리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협의회 및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제4장 보칙	학칙 및 규정 제.개정과 시행규칙

11) 대상이 되는 조례는 2010년 10월 5일 제정되어 2015년 2월 27일 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로 경기도조례 제4853호이다.

12) 대상이 되는 조례는 2011년 10월 2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광주광역시조례 제4017호이다.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8년 1월 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이다.

1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8월 8일 개정된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이다.

위의 표에서 본 것과 같이 현행 조례와 경남 조례안의 체계와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먼저 제1장에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제2장(광주의 경우는 제3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그 다음 장에서는 학생인권보장기구와 구제절차와 학생인권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규정을 두지 않고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두고 있다.[15]

2.2. 학생인권의 종류와 내용의 비교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경남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의 인권”이라는 장을 두고 학생인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인권의 종류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남 학생인권지표[16]를 토대로 범주화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경남 학생인권지표는 학생인권을 인권과 권리로 대분류하고,[17] 자유·평등·어울림[18](인권)과 발달·복지·자치(권리)로 중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분류를 기준으로 현행 조례들과 비교·검토한다.

2.2.1. 자유·평등·어울림을 기준으로 학생의 인권 비교

자유·평등·어울림을 학생인권지표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별 조례의 비교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경남 조례안과 현행 조례에서는 신체의 자유 또는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많다. 그리고 평등권으로서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경남 조례안의 경우 인간 그 자체의 가치가 오로지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19]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넘어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모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같아질 권리로서 “같을 권리”를 두고 있다.[20] 그리고 어울림으로는 소수학생의 권리보장을 조항을 들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

---

1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38조(민주인권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생략 ……
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 제2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16) 학생인권지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구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인권평가지표(국가인권위원회 편, 학교인권평가지표 개발 보고회 자료집, 2010),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민주인권지표(안진, 학교 민주인권친화지수 개발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학생인권지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고영남, 2018, 31쪽-42쪽)’의 분류에 따르고 편의상 ‘경남 학생인권지표’라고 한다.

17) 학생인권을 ‘인권’과 ‘권리’로 구분하는 것은 경남 학생인권지표에서만 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구분의 이유는 정치와 제도로서의 권리가 인간 그 자체의 본성인 인권과는 필연적이지 않고, 또한 권리가 지닌 제도적.정치적 측면과 달리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하여 타자, 집단,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확대되므로 시공에 의해 제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와 제도의 효과이며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서 ‘권리’와 인간의 본성인 ‘인권’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영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 11쪽-12쪽 참고.

18) 어울림은 시적 감정과 공동체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이며 헤아림, 배려,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남 학생인권지표의 독특한 지표이다. 고영남, 위의 보고서, 118쪽.

19) 고영남, 위의 보고서, 11쪽.

20) 고영남, 위의 보고서, 109쪽.

수학생의 권리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경남 조례안에서는 학내의 모든 성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이 경우 학교의 적극적 보호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2>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학생의 인권 비교

지자체	학생인권 지표	인권의 종류
경기도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평등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어울림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광주 광역시	자유	제11조(신체의 자유), 제12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제14조(표현의 자유), 제16조(적법한 징계절차를 누릴 권리)
	평등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2조(청원할 권리)
	어울림	제21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서울 특별시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평등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어울림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전라 북도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7조(표현의 자유),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평등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어울림	-
경상 남도	자유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제6조(신체의 자유),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9조(개성을 실현할 자유),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정보접근권),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제14조(징계 등 적법절차의 권리)
	평등	제15조(같은 권리 등), 제16조(차별의 금지),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제18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제29조(노동인권)
	어울림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2.2.2. 발달·복지·자치를 기준으로 학생의 권리 비교

발달·복지·자치를 학생인권지표로 하여 각 조례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발달권은 인간발달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보육받을 권리, 충분하게 놀 권리, 생존과 발달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로 이루어진다.[21] 이와 관련하여 각 조례는 대체로 안전할 권리,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두고 있고, 복지권의 경우 학습, 급식,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자치권은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두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이 지표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경남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규정에서 좀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학생의 권리 비교

지자체	학생인권 지표	권리의 종류
경기도	발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자치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광주광역시	발달	제18조(휴식과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복지	제10조(학습할 권리), 제17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
서울특별시	발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0조(휴식권),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자치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전라북도	발달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복지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자치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1) 고영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 140쪽-141쪽.

경상남도	발달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제28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7조(안전권)
	복지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제25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제26조(급식에 관한 권리)
	자치	제19조(학생의 의사결정권), 제20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2.2.3. 소결

경남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학생인권의 장인데, 다른 4개 지자체에 비하여 열거된 학생인권의 수[22]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몇 가지 권리를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23] 제27조(안전권),[24] 제29조(노동인권)[25]이 그러하다.

먼저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는 다른 조례에서는 비슷한 내용조차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의 가치와 '성인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규범화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교육법에 여학생과 남학생,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평등에 대한 가치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 고정관념을 약화하고 성차별과 폭력성 없는 다른 행동양식을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6] 다음으로 제27조(안전권)는 경기도 조례[27]에서 비슷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생의 권리로서 안전권을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학교의 안전확보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제29조(노동인권)는 다른 조례에서 비슷한 내용이 찾을 수 있지만,[28] 다른 학생

22) 서울(제5조-제28조)은 24개 조문, 경기도(제5조-제27조), 전북(제5조-제27조)은 23개 조문, 광주는 14개 조문(제9조-제22조)인 반면 경남 조례안은 26개 조문(제5조-제30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24) 제27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④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25) 제29조(노동인권) ①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학생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 또는 취업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6) 김현경, "프랑스 새 정부의 성평등 교육정책",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68&nTbCategorySeq=&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8303&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W=25&searchKeyword_W=%EC%B0%A8%EB%B3%84>, 검색일: 2019. 2. 1.

2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28)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인권조례에서 ‘노동인권’을 명문화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29]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학생인권보장기구와 침해구제절차의 비교

지자체별로 학생인권보장기구와 침해구제절차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먼저 학생인권보장기구의 경우 경기도는 별도의 인권센터를 두고 있지 않고, 광주는 민주인권교육센터,[30] 서울과 전북은 학생인권교육센터, 경남 조례안은 학생인권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남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그리고 광주를 제외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장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옹호관을 두고 있는 반면 광주는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표 4> 학생인권보장기구와 침해구제절차의 비교

지자체	학생인권 지표	내용
경기도	학생인권 보장기구	별도의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관(제39조)을 두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에서 상담을 한 후 그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3조)
	침해구제 절차	제44조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조사 후 본청,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기구	다른 지자체와 달리 민주인권교육센터(제38조)를 두고 있고 센터에는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9조).
	침해구제 절차	제40조(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이러한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다만 경기도나 광주, 전남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노동인권’ 또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경남은 창원시가 유일하게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0) 초안에서는 ‘인권교육센터’였으나 ‘민주인권교육센터’이 최종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용교/이중섭,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87쪽.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보장기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1명 두고(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제42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을 직무를 수행한다(제39조). 또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제40조).
	침해구제 절차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제47조).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고(제48조),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9조).
전라북도	학생인권 보장기구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 교육센터(제42조)를 둔다.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재45조) 또한 교육지원청별 상담실을 두고 학생인권 상담 후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호하여야 한다(제48조).
	침해구제 절차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 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조사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9조).
경상남도	학생인권 보장기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2조).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센터에는 5개 권역에서 활동한 권역별 상담조사관을 포함하여 상근 사무직원을 두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의 장이 된다(제34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권리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6조).
	침해구제 절차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제41조).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고(제42조),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3조).

3.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검토

여기에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담고 있는 학생인권 중에서 다른 조례들과 달리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인권', '안전권'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안전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써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09년 1차 경남 학생인권조례안[31]에서부터 이미 담겨 있었던 조항이다. 또한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른 조례들에서는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경기.광주.서울) 또는 '복지에 관한 권리'(전북)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 조례안에서는 학생의 권리로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학교와 교직원이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례와 큰 차이가 있다.

3.1. 제29조(노동인권)

지난 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노동자 김용균은 살기 위해 노동하던 현장에서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다. 1년 전, 2017년 12월 19일에는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의 이민호 학생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 그 지난해, 2016년에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소년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또 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꿈 많은 실습생은 그 짧았던 생에 스스로 사표를 던졌다. 그 어린 생명들이 생사의 기로를 넘을 때, 어른들은 또 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회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고,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에 급급해 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정말 멈춰야하지 않겠는가?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첫 걸음으로써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생각한다. 특히 경남 조례안 제29조(노동인권)는 현장실습생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알바생'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현장실습생에게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지역 조례에는 없는 규정으로 굉장히 진보한 것이지만, 아직도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횟수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2항 학생이 현장학습을 하는 동안,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제27조(안전권)

지난 해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가 매년 11.5만 건에 이른다.[32] 최근 5년간 연평균 학교안전사고를 장소별[33]로 보면 △운동장이 4만

---

31) 제22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④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32) 10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학교안전

7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 △교실 △통로 등 순이었다. 시간별[34]로는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순이었다. 또한 2015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경남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해서 모두 86건이 발생했고, 이 중 50%는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였다.[35] 물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36]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제27조 제3항에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을 권리로서 명문화하고, 이를 기초로 시행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을 담아낸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은 줄일 수 있지도 모른다. 굳이 저출생[37]문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른들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아이들이 생사를 달리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는 일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3.3.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마지막으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본질인 '교육'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를 가지며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정신과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생각한다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38]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항의 경우, 모든 학생은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제3항 학교는

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건수가 11만 4900건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학교안전사고 매년 11.5만건 발생", 인터넷 이데일리, 2018. 10. 28.,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13926619377512&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19. 1. 22.

33) △운동장이 4만 7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 2만 4808건 △교실 1만 8971건 △통로 1만 7677건 △교외활동 5626건 △기타 205건이었다.

34)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3만 4754건 △점심시간 2만 1593건 △수업시간 1만 7733건 △휴식 및 청소시간 1만 7696건 △학교행사 9213건 △특별활동 6465건 △등하교 6144건 △석식시간 1141건 △기숙사생활 487건으로 집계되었다.

35)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사고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총 86건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실태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송기욱,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시설 및 제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2015), 6쪽.

36)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507 검색일: 2019. 1. 22.

37) 보통 '저출산'으로 표기하지만, 출산의 사전적 의미가 아이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解産)을 의미하므로 '일정 기간에 태어난 수가 적음'을 뜻하는 용어로는 '저출생'이 적절하다.

38)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기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또는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제6항의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가정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모(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과제

지난 10년간 정세변화에 따라 경남지역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시련과 절망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정치권력과 투쟁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와 연대하여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법률적 성과의 쟁취여부와 상관없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

먼저 인권운동으로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학생인권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학생인권에 관한 새로운 의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냈다. 또한 인권운동이 확산되면서 학생인권운동에 연대하는 주체들도 다양해졌다.[39]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학생이 인권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또한 교육운동으로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다양한 운동을 경험한 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학생인권의 규범화를 주요의제로 채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40]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운동으로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외침'에서 출발하여 의원발의와 주민발의를 이끌어냈고, 의회권력의 배반에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정치적 공간으로 가져올 교육감을 만들어 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운동은 중앙정부의 책임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41] 그런데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자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참여하고 그 재정을 부담하는 등 성숙한 주민자치운동의 단계[42]로 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지난 10년간의 역사와 다가올 경남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의회권력은 준엄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회권력의 결정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 전남 등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남도의회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연구자들은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라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이 운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기초로 학교교육 안에서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

---

39) 김연주/나영정,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8호(2013), 324쪽.
40) 김연주/나영정, 위의 논문, 324쪽.
41) 강용기, "광역자치단체 주민운동의 실태와 평가: 전라북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제5권(2005), 9쪽.
42) 강용기, 위의 논문, 2쪽.

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 전반에서 인권친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 시작은 '학교교육 속에 학생인권이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 교육공동체 내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성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교육정세의 변동에 따라 학생인권의 가치나 규범성이 형해화(形骸化)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실천적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인권센터의 설치 준비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생인권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회적 존재, 예컨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다른 인권 약자들의 인권보장으로까지 확장되어 경남지역의 인권담론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 이상은 유보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만델라 넬슨의 말을 빌려 이 글을 마친다.

강용기, "광역자치단체 주민운동의 실태와 평가: 전라북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제5권, 2005, 1쪽-10쪽.

경상남도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 2018.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1쪽-68쪽.

고영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18.

김연주/나영정,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8호, 2013, 312쪽-420쪽.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송기욱,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시설 및 제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2015. 191쪽-216쪽.

송기춘, "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도 비판",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쪽-37쪽.

송기춘, "지방자치와 인권보장: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3호, 2012.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25쪽-144쪽.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월간복지동향 제157호, 2011, 42쪽-46쪽

이용교/이중섭,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제1호, 2012, 65쪽-98쪽.

전누리, "마침내 열린 학생인권의 시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의미", 황해문화 제75호, 2012, 230쪽-244쪽.

중등우리교육 편집부, "인권운동과 교육운동 '모른 척'은 이제 그만!", 중등우리교육, 2006, 64쪽.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말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018.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자료집, 2010.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윤남식(김해교육연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43] 다시 말하면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아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兒子)'[44]을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용어로는 아동[45] 또는 청소년[46]에 해당하며 개별 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한다. 한국사회에서 19세 이하의 아동 또는 청소년 대부분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으며 '학생'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아이가 학생이 되는 순간, 사람(인간)이라는 존재성은 지워지고 학생이라는 사회적 존재로만 남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다움'은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규범화된다. 그러나 인권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춰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진 권리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47]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에게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자는 것이고,[48] 나아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한국사회에서의 투쟁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출발하고자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49]

2007년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까지 4개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몇 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모두 좌초하고 말았다.[50] 특히 경남의

---

* 이 글은 두 연구자의 손을 빌려 쓰였지만, 여기에 쓰인 모든 문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왔던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빚지고 있음을 밝힌다.

43)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동아시아, 2017), 42쪽.

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9. 1. 31.

45) 아동복지법 제3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46) 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 제2조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7)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6권 제1호(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5쪽.

48) 고영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한국교육개발원, 2018), 2쪽.

49)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전제하는 학생의 인권을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권과 사회에서 겪는 차별문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아닌 공간에 있을 뿐이며 본질적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제4조 제8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50) 강원도의 경우, 2013년 1월 16일 교육청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이 인권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으나, 서울 조례 제정과정과 마찬가지로 반대 측이 "성적 소수자" 관련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14년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강원교육감이

경우 2008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지금 현재 경남교육감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막바지 발의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특징은 이 운동의 씨앗이 교육운동의 주체로서 주민(시민)에게서 나왔고, 척박한 땅과 한겨울 서리를 견디며 좌절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절망과 희망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다. 특히 Ⅱ.은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해왔던 경험에 기초하여 조례 제정운동 과정에 대한 자료와 실태조사 및 토론회 자료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살아있는 역사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Ⅲ.은 최근 입법예고 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소개하고 현재 시행중인 4개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입법예고안이 아니라 '경남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비교·검토하는 것이 좀 더 완결적이겠지만, 입법과정에서 조례안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남의 독특한 조례안을 기록에 남기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률적·정치적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과제를 생각해본다.

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2008. 6. - 2019. 현재)은 경남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활동의 주체에는 경남교육연대[51]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52], 촛불시민연대[53] 등이 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TF팀과 학생인권조례 추진단에도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연구자는 앞에 서술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청의 활동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태동기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학생인권조례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시민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1차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 과정이다. 이 조례안으로

2015년 4월 다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9월 도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는 "때 아닌 동성애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교육청", 오마이뉴스, 2013. 1. 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0369&CMPT_CD=P0001>; "강원도 '학교인권조례' 제정 가속도", 한겨레, 2015. 5. 25., <http://www.hani.co.kr>; "강원 학교인권조례 미상정 … 조례 제정 무산 위기", 연합뉴스, 2015. 9. 9., <https://www.yna.co.kr/view/AKR20150909162900062?input=1179m>, 검색일: 2019. 2. 10.). 충북의 경우는 2011년 5월 19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주민발의를 청구하였으나, 충북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013년 3월 27일 충북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되었다("충북NGO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속 추진할 것"", 중부매일, 2013. 3. 28., <https://www.yna.co.kr/view/AKR20130328094800064?input=1179m>, 검색일: 2019. 2. 10.).

51)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를 약칭하여 <경남교육연대>라 한다. <경남교육연대>는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경남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체로 2008년 6월에 출범하였다. 여기에는 총 18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52)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본부>의 약칭이며, 2011년에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청원하기 위해 경남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경남의 6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만든 한시적인 단체이다.

53)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의 약칭으로, 2018년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자, 이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연장선에서 주체적 활동을 위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경남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특히 이전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의 가입단체 중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종교시민단체들이 빠진 대신에 청소년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에게 발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시기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시도한 기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희망의 연대와 좌절의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2차 학생인권조례안인 주민발의안을 만든 시민사회가 경남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연대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회에서 부결되어 도민들의 열망이 무산되었던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세월호 참사로 학생・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 진보교육감이 당선・재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에 의해 발의된 때이다. 2014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학생 등 청소년의 참여가 도드라지게 높아졌고 3차 실태조사와 3차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며, 시민사회와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이다.

1. 2008년 - 2010년: 학생들의 외침과 시민사회의 응답

이 시기와 관련하여 교육시민단체인 경남교육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54] 경남교육연대는 2008년 출범 당시, 우리 교육현실의 진단과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 교육정책은 이른바 경쟁과 효율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인권 보장 실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55]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교육현실에서 가장 고통을 받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경남 마산 ㄱ고등학교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학생체벌 반대 및 야간 자율학습의 학생 선택권을 요구하였던 학생에 대한 징계가 그 발단이었다. 경남교육연대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였다.[56]

경남교육연대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징계의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성명서를 낸 후 경남교육연대 안에 학생인권조례 TF팀을 만들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 첫 활동은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었다.[57] 이에 앞서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간담회’(2008. 10. 25.)와 경남지역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사간담회’(2008. 11. 15.)를 가졌다. 이들 간담회에는 다수의 중・고등학생과 초・중・고교 교사가 참여하였다.

경남교육연대는 2008년 10월부터 제1차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인권실태조사’(이하 ‘인권실

54) 이와 관련한 서술은 경남교육연대 카페(http://cafe.daum.net/kned)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거나 정리하였다.

55) 경남교육연대 카페, “경남교육연대 걸어온 길, 활동방향”, 경남교육연대 출범식 자료 참조 <http://cafe.daum.net/kned/28i4/1>, 검색일: 2019. 1. 30.

56) ㄱ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은 경남교육연대 성명서(2008년 7월 16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kned/28Ux/9>, 검색일: 2019. 1. 9.

57) 경남 학생인권조례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모두 세 차례에 걸친 학생인권실태조사는 2008년 1차와 2010년 2차를 경남교육연대에서, 2018년 3차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례안도 3번 만들어졌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58]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학생인권 침해 및 학교 내 인권문화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침내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다.[59]

당시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 첫째, 지역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조례안을 구성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과 고민들을 충분히 반영한다. 셋째,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며 그 참여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 내지 후퇴라는 인식을 충분히 설득하며, 교사의 참여와 협력을 중요시한다.[60]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단체별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설명회 및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확정하기 위한 워크숍(2009. 7. 16.)이 경남교육연대(17개 가입단체)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또한 경남교육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공동 주최하여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조례"라는 학생인권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2009. 9. 23.)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제정 발의를 위한 것으로, 그 발의의 주체를 교육위원회로 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2009년 12월 2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교육위원회에 청원하였고, 2010년 2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남도교육위원회는 시기상조 운운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는 물론이고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아 조례청원안은 폐기되었다. 더욱이 당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공약했던 교육감후보마저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지역의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교육여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생생한 요구와 의견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경남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를 알림으로써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활동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2차 인권실태조사(2010. 4. 10. - 5. 20.)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1차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교사와 학부모까지 확대하였다.

2차 실태조사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차 실태조사의 결과는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권위원회의 시정권고도 있었지만 정부나 교육관계자들의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현실적인 대안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비율은 학생, 학부모, 교사 각각 6%, 8%, 4.5%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경남교육연대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육개혁을 위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61]

---

58)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자료집(2010), 17쪽.

59)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보다 실질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자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린마일리지제'를 추진하였으며, 경남교육연대는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2009. 4. 23.)하였다.

60)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52쪽-53쪽.

61) 경남교육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자료집, 167쪽-171쪽.

그러나 이 시기에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2010. 3. 25.) 큰 반향이 없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힘이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2010년 8월 17일,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민관협의체 및 연구기구를 구성하자는 경남교육연대의 제안에 대하여,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경남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주체들은 그 책임에 있어 게을렀다. 경남의 시민사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2. 2011년 - 2013년: 시민의 연대와 의회권력의 배반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 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초청으로 1차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였던 바 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길은 더디기만 하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6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육법의 개정은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다시 힘을 주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남의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발의하도록 추동하였다. 교육주체인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간담회와 워크숍, 강좌 등이 이어지기 시작했다.[63]

마침내 2011년 5월 12일, 경남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다함께 참여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이하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출범하였다.[64]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출범하고 며칠 뒤인 5월 18일에 창원의 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수업시간에 들어가 강제로 자르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경남지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통해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두발 자율화,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사대상 학생인권설명회 개최 등을 해당 학교에 제안하였다.[65]

ㄴ고등학교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학교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서에서 지적하듯이 두발규제 등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은 존재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에서 만든 2차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는 "두발에 있어서 학생들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두발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빨리 학생인

---

62)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6호.

63) 2010년 10월 12일 전교조 창원 초등·중등지회 학생인권조례 간담회, 2010년 11월 11일 전교조 진주지회 학생인권조례 강좌, 2010년 12월 4일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천대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안 모색 워크숍, 2011년 2월 12일 전교조 경남지부 일꾼연수 학생인권조례 강좌 등

64)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의 활동과 관련한 서술은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 카페(http://cafe.daum.net/goodknkn)에서 발췌하거나 인용하였다.

65)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 "학교의 재발 방지 약속을 환영하며 지켜지길 바란다", 2011. 5. 30., <http://cafe.daum.net/goodknkn/F3rZ/1>, 검색일: 2019. 1.20.

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1년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조례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에 소속된 경남도의 시민단체들은 5월 초 여름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11월까지 서명을 받으면서 뜨겁게 연대하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의 연대단체들은 청구인 서명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학생인권조례안의 안내를 위해 설명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갔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도의원들의 소모임이나 연구회에서도 토론회를 열었다. 작은 소모임이라도 있거나 회의, 행사, 학교 앞, 대형건물이 있는 곳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서명을 받았고,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서명을 받았으며,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업고서 서명을 하기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서명을 받는 장소 옆에는 늘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주체이기도 했지만 정작 주민발의안의 청구인이 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다. 서명지가 쌓일수록 도민들의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열의도 높아져갔다. 그렇게 경남은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갔다.

드디어 2011년 12월 5일, 37,010명의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37,010명의 청구인 서명 중에 34,723명의 유효 서명이 확인되었다. 절차에 따라 청구요건을 갖춰 경남도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염원을 모은 청구서명지를 경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주민발의 최소 청구인 2만 5441명(경남 유권자의 1%)보다 1만 1500여명의 서명을 더 받았다. 무효처리가 많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사례를 고려하여 충족요건보다 훨씬 더 많은 서명을 받은 것이다.

마침내 2012년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부정적이었던 경남도교육감은 마지못해 주민발의로 청구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온 열정과 정성을 모았던 경남도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도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다.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힘써 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2년 5월 22일,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위원장 등이 주민발의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 처리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간난아이를 업고 서명을 받았던 도민들의 열망을, 학생들의 고통과 절규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선출된 권력들은 허망하게도 단 몇 시간 만에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도의회의 부결에 대해 3명의 도의원이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나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 대신 (가칭)경남학교공동체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천명이었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시민사회는 경남도교육감과 도의원들, 즉 선출된 권력에 대한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후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피눈물을 쏟으며 울분을 삼키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3. 2014년 - 2019년 현재: 새로운 연대와 희망의 노래

2014년 봄, 어느 해보다 잔인한 4월을 맞이했다. 4월 16일, 즐거운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교 2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실과 부패의 적폐로 인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숨졌다. 4.16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또래의 죽음을 목도한 청소년들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 4일 선거를 맞아 세월호에서 숨져간 꽃다운 청소년들의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경남에서도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한 10대 교육정책 서약을 받았다. 그 결과, 보수적 성향이 짙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경남교육감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같은 해 11월 당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남의 학교급식운동은 해묵은 논의를 수준 높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학교급식운동을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생존운동이고 인권운동으로 정립한 것이다. 고영남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려는 정당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포장된 권리담론이 아니라 인권, 즉 노동하거나 공부하다가 또는 놀다가 배고프면 당연히 배 속을 채워야 하는 '몸'의 자유로운 반응에 따른 것이다." "사람은 그가 어느 국적, 소득, 출신지역, 학생 여부 등에 상관없이 밥 먹을 권리, 즉 인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라고 하였다.[66] 경남의 학교급식운동은 인권운동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운동의 맥락을 잇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남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른 전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치권력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하였는지 그동안 정치적·사회적 적폐들이 봇물처럼 터져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은 천만 개의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경남도지사의 학교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하였다[67]. 과거 경남교육연대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에서 활동한 시민사회의 일부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TF팀 조례분과(이하 TF팀 조례분과)에 합류하였다.

경남에서는 세 번째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3차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2009년의 1차와 2차 실태조사와 10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다. 이 실태조사는 이전의 조사에 비해 표본집단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표본집단의 수가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많아졌으며, 대상에서 학생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설문조사 빠졌고, 무엇보다도 전수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조사결과[68]에 의하면 인권의식 수준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권점수를 구성하는 분야별 점수에서 응답계층에 상관없이 차별, 폭력, 학칙, 자율활동, 인권, 학교시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점수가 낮은 분야에 속하는 자율활동, 인권.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요청이 지적되었다.

---

66) 이와 관련한 글은 고영남,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경향신문, 2009. 12. 18., <http://news.khan.co.kr>; "교복 입은 '학생'이 아니라 먼저 '인간'을 보라", 민중의 소리, 2015. 1. 4., <www.vop.co.kr>; "급식은 단지 '밥'이기만 할까", 민중의 소리, 2015. 5. 20., <www.vop.co.kr>, 검색일: 2019. 2. 21.

67) 아이좋아 경남교육, "박종훈교육감, 기자회견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계획 발표", 2017. 11. 2., <http://blog.daum.net/gnedu>, 검색일: 2019. 2. 22.

68) 경상남도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201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남교육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실태조사와 조례안 작성에 참여하였던 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TF팀 조례분과에 합류하면서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례안[69]에 반영하였다. 실태조사 즉, 양적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인 학생 다수의 의견은 물론 법률전문가, 교육인권활동가,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조례 초안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2018년 1월 현직 검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촉발된 미투(Me-Too)운동은 학교 내 성폭력문제를 고발하는 스쿨미투운동으로 이어졌고, 경남에서도 역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다.[70]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로 성인권 교육을 조례 조항에 넣기로 했다. 이처럼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안은 2008년, 2009년, 2018년의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수렴하여 정치하게 만들어 나갔다.

또한 2018년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었던 해이다. 이 시기 진보교육감은 촛불교육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다양성을 담보하였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10가지 정책 협약서를 제안했고, 여기에 경남의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도 서약하였다.

2018년 6월, 재선한 경남교육감은 곧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전 도교육청 TF팀 조례분과에 합류하였던 시민사회의 일원은 추진단 활동을 제안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을 거치면서 합류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의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당사자(학생과 교사)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엄중한 책무성이 존재했다. 그리고 10월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입법예고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것이 바로 3차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다.

한편 시민사회는 입법 예고 전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이하 <촛불시민연대>)를 결성하여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이에 대한 반대활동도 전개되었다.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과정에서 전혀 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입법예고 안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여 해석하였고, 내용적으로도 과장하고 확대하여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시민사회의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교육청은 과도한 반대 측의 민원에 대한 고민이 컸던 반면, 시민사회는 조례 시행의 주체인 교사의 이해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조례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한 열망은 이 둘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경남의 시민사회가 할 일은 조례가 제정되기를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조례가 적용될 때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

69) 이 때의 조례안은 교육의원의 발의를 위해 만들었던 1차 조례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조례안 즉, 주민발의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였다.

70) 경남에서는 5월에 마산 ㄷ여자고등학교에서 과거 교사에 의해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원회가 ㄷ여자고등학교의 스쿨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 소결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고난 속에 핀 꽃이다. 그래서 그 꽃은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상에서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를 세 단계로 살펴보았다. 경남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지향하려고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고영남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활동은 교육운동이며 지역운동이자, 주민(자치)운동이다. 교육주체의 능동적 운동으로서 학교현장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모범적인 지역교육운동의 전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 제정은 모든 학교교육 현안의 본질을 관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이다. 이 활동으로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고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71)]

이러한 지향점을 가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위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주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례안 모두 학교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를 다시 담았다. 학생과 교사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이견은 시민사회와 함께 긴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난 뒤에 조례의 조항으로 마무리되었다.

둘째, 민주주의 실현이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은 우리 사회가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수준과 한계를 넘나들었다. 경남은 조례 시행 중인 4개 시도의 조례 발의 과정을 대부분 경험했다. 1차 시도는 2009년 교육의원에 의한 발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다. 2차는 2011년 주민발의에 의해 경남도교육청이 발의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3차 시도는 2018년 교육감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재 발의의 주체는 도교육감이지만 그 동력은 2008년부터 시민사회가 꾸준히 만들어서 2011년의 주민발의를 이루어 내기까지의 활동이었다. 그리고 현 진보교육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민들의 열망 속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희망이 존재했다.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힘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의 TF팀 조례분과와 추진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경남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인권운동 및 진보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경남은 대구, 경북 및 부산과 함께 보수의 아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3.15 부정선거의 문제를 촉발시킨 3.15민주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중심 선상에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경남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물길과 합류하여 마침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라는 큰 물길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물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남교육감이 발의할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이후 진보의 흐름을 탄탄대로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엄중하다.

2019년 1월 서울시에서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인권이라는 몸에는 조례라는 옷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이 충분조건을 가

71)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53쪽.

지는 환경이 아닐 경우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서 더 이상 보호막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오는 방패막이가 인권조례이다. 서울은 벌써 그 옷을 벗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경남은 이러한 시기적 흐름을 감안하여 학생인권조례에 앞서서 담을 내용을 고민하였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곳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앞선 고민은 더 진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경남의 조례안이 적어도 이미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보다 한 치라도 앞서가야 할 이유이다.

강용기, “광역자치단체 주민운동의 실태와 평가: 전라북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제5권, 2005, 1쪽-10쪽.

경상남도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 2018.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1쪽-68쪽.

고영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18.

김연주/나영정,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8호, 2013, 312쪽-420쪽.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송기욱,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시설 및 제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2015. 191쪽-216쪽.

송기춘, “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도 비판”,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쪽-37쪽.

송기춘, “지방자치와 인권보장: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3호, 2012.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25쪽-144쪽.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월간복지동향 제157호, 2011, 42쪽-46쪽

이용교/이중섭,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제1호, 2012, 65쪽-98쪽.

전누리, “마침내 열린 학생인권의 시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의미”, 황해문화 제75호, 2012, 230쪽-244쪽.

중등우리교육 편집부, “인권운동과 교육운동 ‘모른 척’은 이제 그만!”, 중등우리교육, 2006, 64쪽.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말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018.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자료집, 2010.

코로나19 관내 확진환자 발생 관련 교내 대응조치

제공일 : 2020. 06. 09. 체육부 : 김민지

1. 발생현황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 2020.6.8.~2020.6.9. 경남 양산5,6,7번 가족 발생
  (양산5번 : 증산, 40대 남성, 양산6번: 증산, 40대 여성, 양산 7번 10대)
- 본교 연관성: 양산 5,6,7번 확진자와 같은 가족 구성원 (3학년 전**, 음성)
- 인지일: 2020.6.8.(월) 17시 57분
- 상부기관 1차보고 : 2020.6.8.(월) 18시 19분, 양산교육지원청 건강증진과 ***주무관
- 보건소 1차보고 : 2020.6.8.(월) 18시 24분,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감염병주무관 ***

2. 역학적 관련성 확인

- 대상: 전교생 및 교직원
- 역학적 관련 장소: **아파트, *** 어학원, ***사우나, **** 음식점
- 활동: 2020.6.9.(화)~2020.6.10.(수) 담임교사를 통한 접촉 가족 및 학생 현황 파악

순번	학생	가족	학년	반	번호	이름	증상	비고
1	O					전**	무	가족확진자(밀접접촉자) ~6/23
2	O					손**	기침, 없어짐	같은 E/V 이용, 마스크 착용 X (능동감시대상자)~6/22
3		O				부	무	같은 E/V 이용, 마스크 착용 X (능동감시대상자)
4		O				모	무	동거가족이라서 검사
5	O					성**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6	O					성**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7		O				부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8		O				모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9	O					안**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10		O				부	무	파티참석X, 동거가족이여서 검사
11		O				모	무	파티참석X, 전** 학생 어머니와 친구
12		O				안** (충1)	무	생일파티 참석
13	O					강**	무	~6/20
14		O				동생 (유치원)	무	~6/20
15		O				부	무	(아버지는 회사 출근 때문에 검사 받음)~6/20
16		O				모	무	같은 이동동선(식당) 통로 옆 식사 1시간 겹침~6/20
17	O					이**	무	~6/20
18		O				부	무	~6/20

19		O				모	무	같은 아파트 동선겹침 보건당국 밀접접촉자 판단받음(밀접)~20
20		O				동생 (유치원)	무	~6/20
21	O					장**	무	~6/19
22	O					장**	무	~6/19
23		O				부	무	사우나(에이스) 동선 겹침~19(밀접):밀양보건소(주말부부)
24		O				모	무	~6/19
25	O					서**	무	~6/20
26	O					서**	무	~6/20
27		O				부	무	~6/20
28		O				모	무	밤 12시경 호프집 옆 통로에서 동선 겹침(밀접)~6/20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반 운영

- 2020.6.9. 07:30 코로나19 비상대책 운영 회의 실시

  주관 : ***(교장)

  참석 : ***(교감1), ***(교감2), ***(교무), ***(코로나 담당), 김민지(코로나 담당)

  장소 : **초등학교 교무실

  회의내용: 밀접 접촉학생 교실 및 돌봄교실 운영 장소 분무형 방역기 이용한 전체 소독

  담임교사 전체 교실 환기 및 소독지침에 의거한 소독제를 이용한 전체 소독실시

  원격수업 진행 논의(교육청, 보건소와 협의 필요),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당일 중으로 학교 전체 방역계획 (14시 학교 전체 전문 방역업체 소독 완료)

- 코로나19 관련 밀접접촉자 파악 지속(전담관리인 서식 작성)
- 담임교사: 원격수업 기간 하루 2회 이상 학생 건강상태 파악
- 교직원 전담관리인: 교직원 건강상태 파악
- 환경관리 : 환기실시, 방역요원 빈발 접촉 부위 매일 소독, 에어컨 환기 지침 준수
-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시 보건소, 경상남도 교육청과 관련사안 협의 예정
- 2020.6.9. ~ 2020.6.12. 돌봄교실 및 긴급돌봄 운영 중지 및 급식 운영 중지

4. 능동감시체계 운영 실시

- 증산초등학교 전 교직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능동감시체계로 전환
- 증상 발현여부 확인 및 철저한 방역, 코로나19 예방 관련 수칙 재교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방역관리 등 조치계획

제공일 : 2020. 06. 09. 체육부 : 김민지

1. 확진환자 발생 시 업무 전담 부서 및 전담자 지정

교장	· 지역 교육청 교육장 보고
교감	· 지역 교육청 상황실 및 언론 대응
교무	· 전교생 명렬표 준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검사 번호 부여
체육	· 외부인 인적사항 파악
담임	· 교실 자리 배치도 준비 · 학급 학생들 학원 정보 등 역학조사 사전 점검표 내용 파악 · 확진환자 등교일 동행 학부모 파악
행정	· (학교) 선별진료소 세팅 협조, 긴급 방역 협조
보건	· 보건소 및 방역당국 협조

2. 학생감염병 관리조직 활성화, 운영 : 팀별 임무 숙지

위원장 : 학교장
○대책위원회 지휘, 통제 조정, 보고 및 신고

의료자문
○보건소, 지역의사회

부위원장 : 교감
○위기상황 진단, 정책 판단
○대외 협조 및 언론보도에 대응
○감염병발생시 학사운영 관리
○업무분담 조정

간사 : 보건교사
○ 회의주관, 진행

환자파악팀
(체육부장(총괄)/학년부장/담임교사)
○유증상자 현황파악(담임)
○보건교사에게 유증상자 보고
○역학조사에 따른 결과 회신(병원 진료 보건교사에게 보고)
○등교중지 아동 관리
○지속적 모니터링
○학생들 개인위생 및 생활지도(손 씻기 등)

환자관리팀
(보건교사(**총괄**)/담임교사)
○공문 시달 및 보고
○운영 총괄
○예방교육자료 작성 및 배부(보건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운영계획 작성
○담임을 통한 환자 및 유증상자 현황 조사 및 보고(보건소, 교육청)
○담임교사로부터 인계된 의심 학생 파악 및 처치

행정지원팀
(행정실장(총괄)/영양사)
○교내 취약지구 방역소독 협조
○시설 및 용품 관리 및 비치
○급식관련 보존식 관리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발생 시 급식 배식에 관한 계획 수립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환경관리 철저

학사관리팀
(교무부장(총괄)/연구부장)
○발생현황 통계
○매일 결석생 및 결석사유 파악 후 보건교사에게 보고
○학생 및 교직원 결석 및 조퇴 등 통계
○감염병 발생 시 학사 관련 업무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수업결손해결방안 강구
○생활지도

– 외부기관과 연락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른 업무분장

가. 지역 교육청 교육장 보고: 교장

나. 지역 교육청 상황실 및 언론대응 : 교감

다. 학부모 민원 대응 및 학교상황 학부모 문자 및 통신문 관리: 교무

라. 보건소 및 방역당국 연락: 보건

마. 검사대상 학생 및 학부모 질서유지 및 안내 : 연구

3. 확진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가.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콜센터1339, 관할 보건소, 교육청 비상대책반 보고

- 교육청 상황관리 비상대책반: 055-379-3082(이채민)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55-392-5224(성민정)

○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교내 **근무자**에게 **통보**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우리학교 근무자 외에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 행정실**

나.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교**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일시적 관찰실**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환자파악팀, 학사관리팀**

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4.시설 폐쇄 등 조치 : 행정실

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나. 시설 폐쇄 등의 범위: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다.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5.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 체에 위탁**

6. 복무관리 등 조치사항 : 교감, 교무

○ 출·퇴근시간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임신부·만성질환자** 등은 재택근무 등 **우선 고려)**

○ 보고·회의는 **전화**와 **온라인 수단** 활용 및 **참석자 수 최소화**

○ **확진환자 추가 발생** 대비 **업무계획** 수립·추진 : 교무부

< 참고 :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혁신처, 3.2) >

❖ **확진환자** ⇨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 **처리**

❖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 ⇨ 격리가 해제된 날까지 '**공가**' **처리**

❖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해당 가족의 격리·확진이 결정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해제 된 **다음날**부터 **출근**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출 자제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직원 ⇨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

7. 학교선별진료소 운영계획

가. 보건소에서 준비 된 검사도구, 선별진료관련 도구 설치에 필요한 장소제공

나. 학교 내 구비된 가림막(파티션) 준비

다. 학생 및 학부모 명단 준비

라. 학생 및 학부모 검사를 위한 줄서기 검사번호 부여

마. 학교 준비 물품(비닐장갑, 볼펜, 손소독제 등) 구비

바. 기타 보건당국과 협의에 의한 검사 협조에 관한 사항 준비

8. 기타사항

– 발생 보고(한글서식) : 발생 개요 등 작성하여 양산교육지원청 감염병 대책반으로 보고

※ 발생 현황 – 정확한 내용을 위해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통해 파악 권장

※ 확진자 이송 의료기관명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송병원을 학부모가 모르는 경우(이송 의료기관 병상 확인하는 경우) 보건소 확인 후 기재

– 교직원에 의한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붙임 **확진·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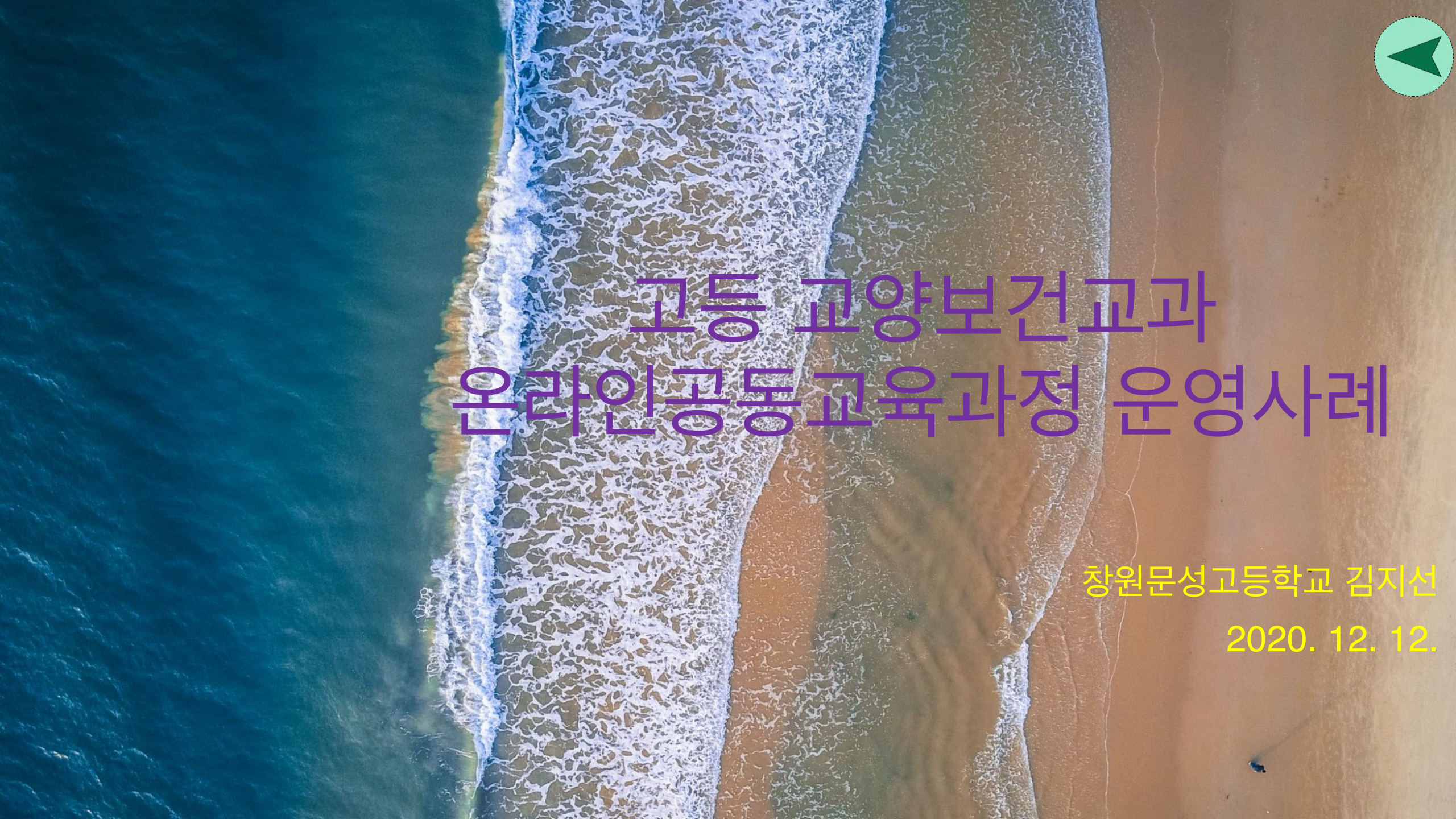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고등 교양보건교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사례

창원문성고등학교 김지선

2020. 12. 12.

1 교실온닷 안내

1) 주요기능

교육 포탈

- 사용자 가입 및 로그인
- 수업 개설 신청 및 수업 정보 등록
- 수업 수강 신청
- 학생 및 교사 개인화 서비스

실시간 화상수업플랫폼

- 실시간 화상수업서비스
- 그룹 토의 기능
- 수업 영상 녹화, 품질 제어 기능
- 수업을 위한 편의 기능 통합
- 학습관리시스템(LMS) 연동

학습관리시스템(L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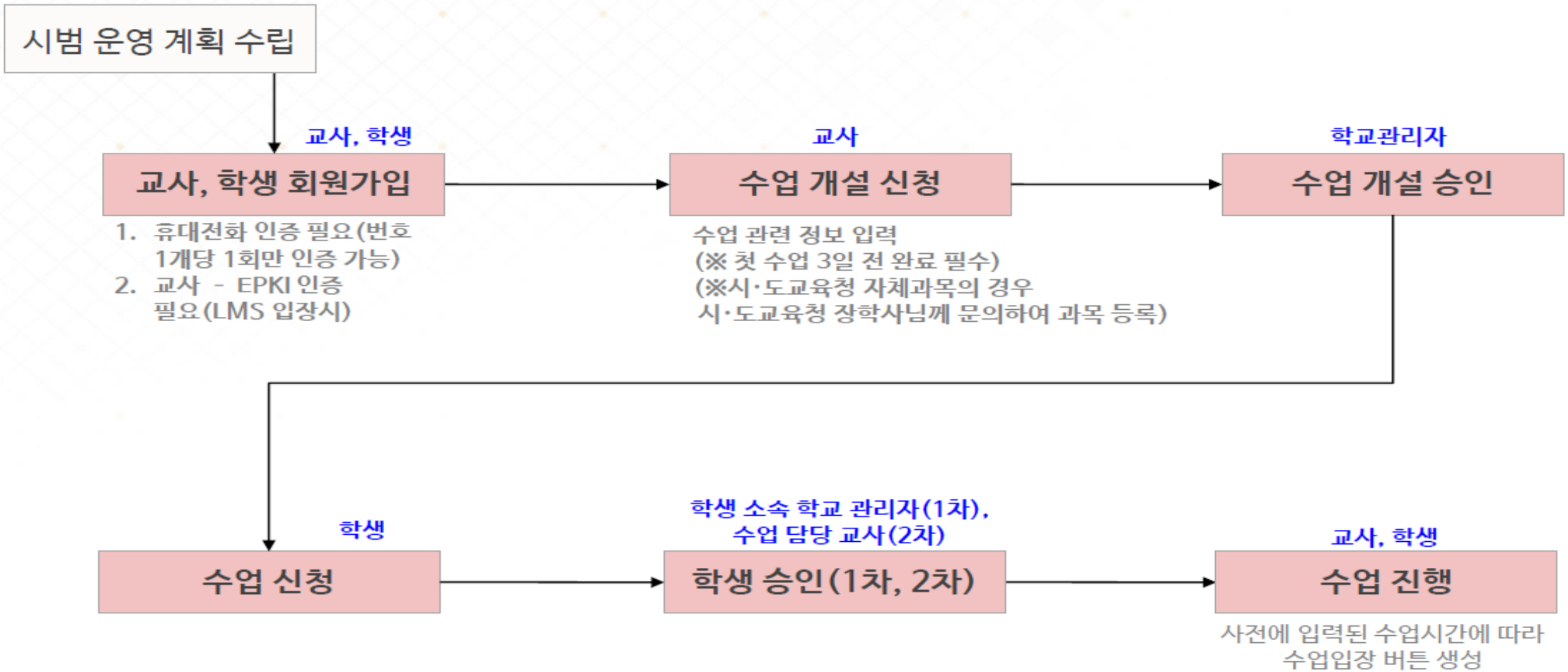
- 수업 개설 및 운영 관리
- 학생 및 학습 이력 관리
- 출결 및 학생평가(문제은행)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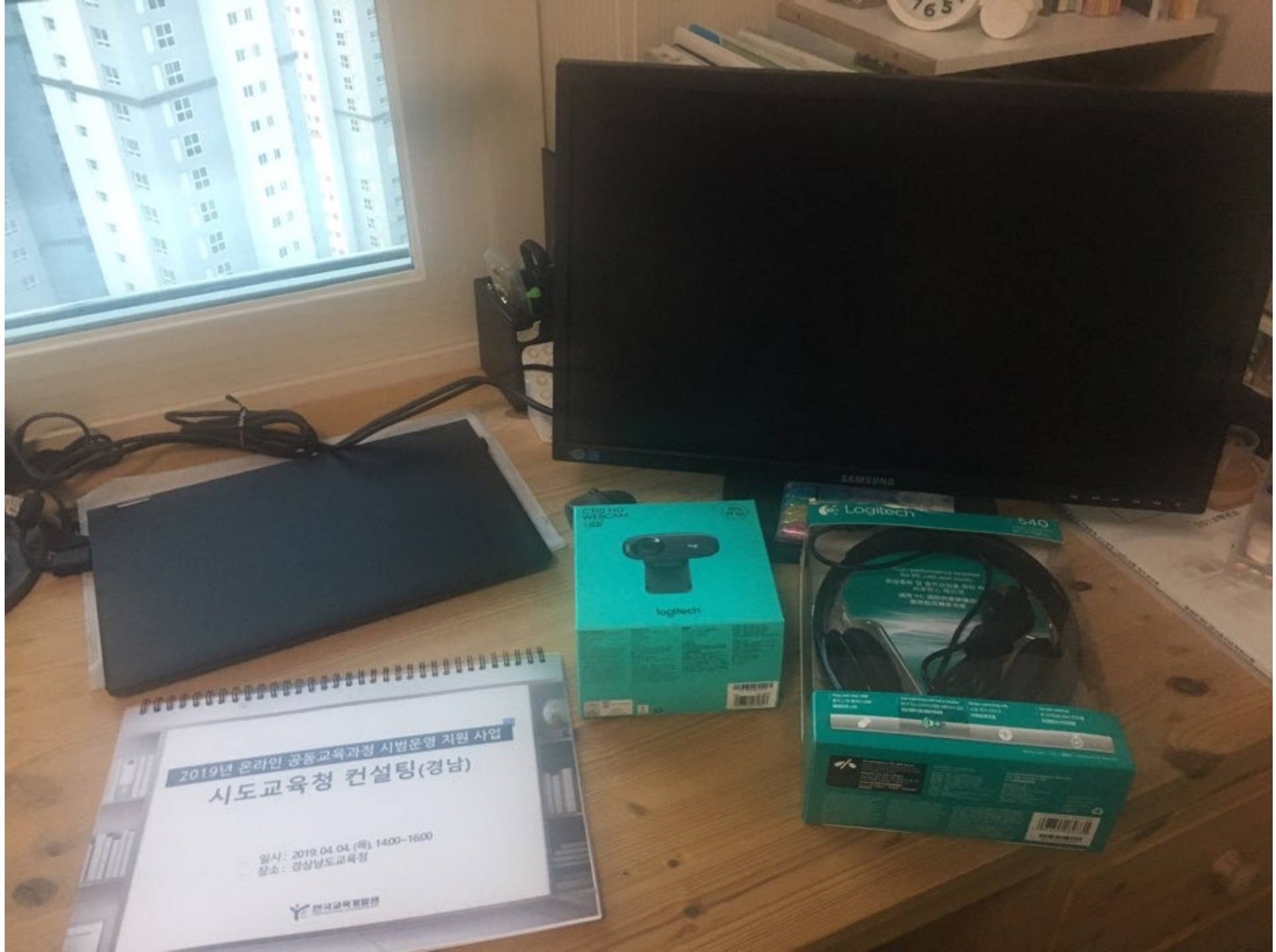
관리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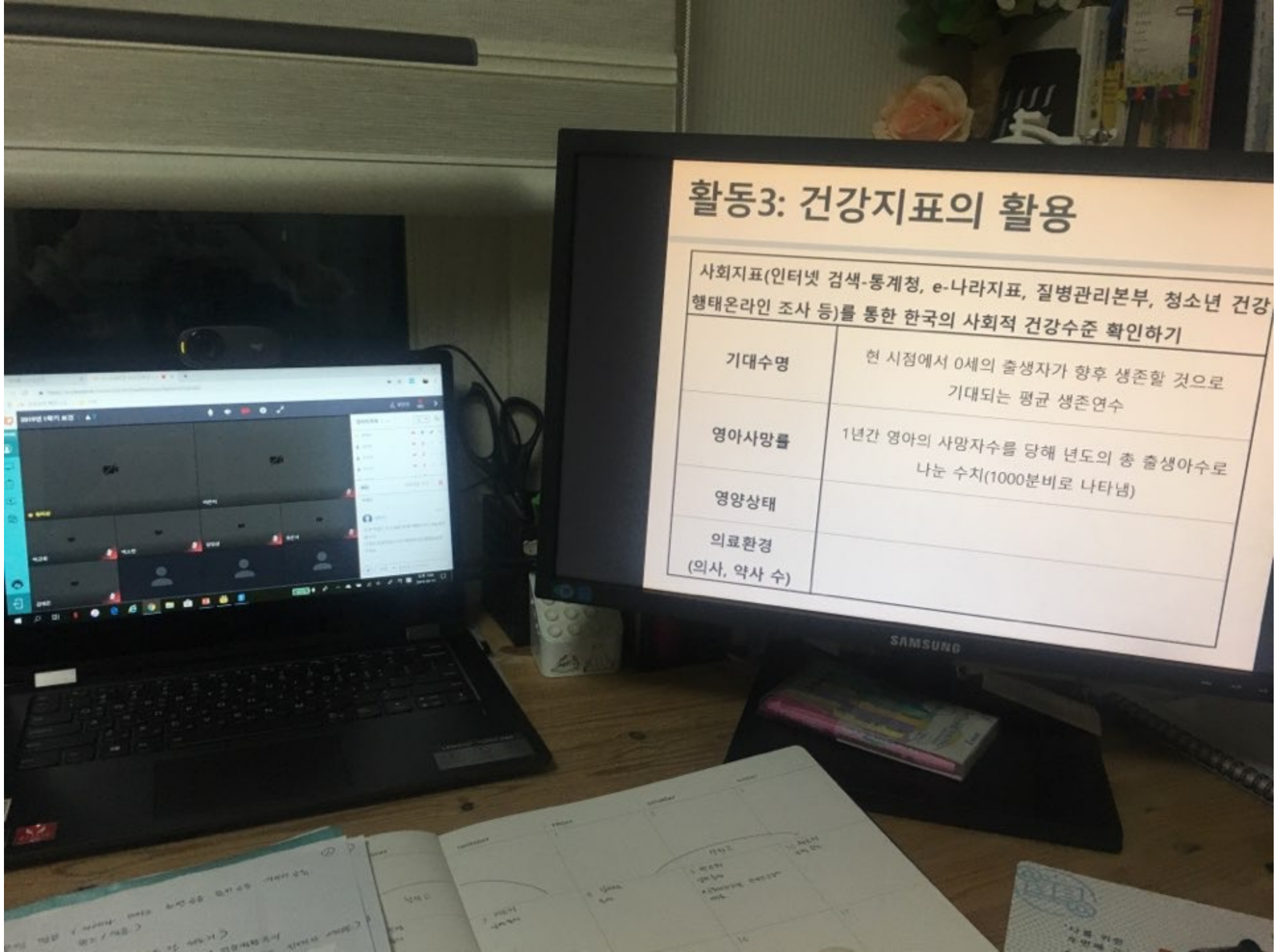
- 회원 및 권한 관리(교사, 학생, 관리자)
- 수업 개설 승인 관리
- 각종 통계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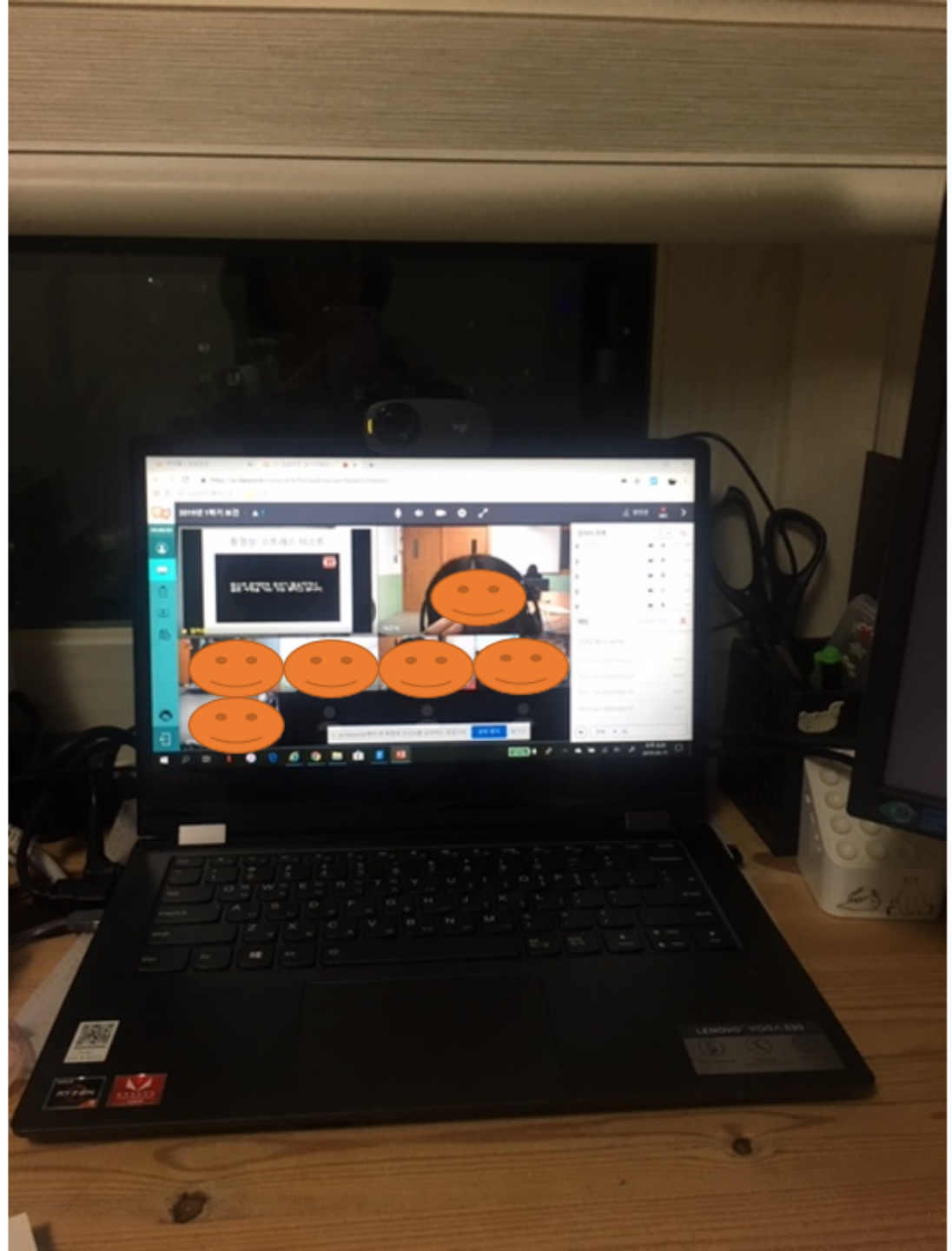
2 교육포털 기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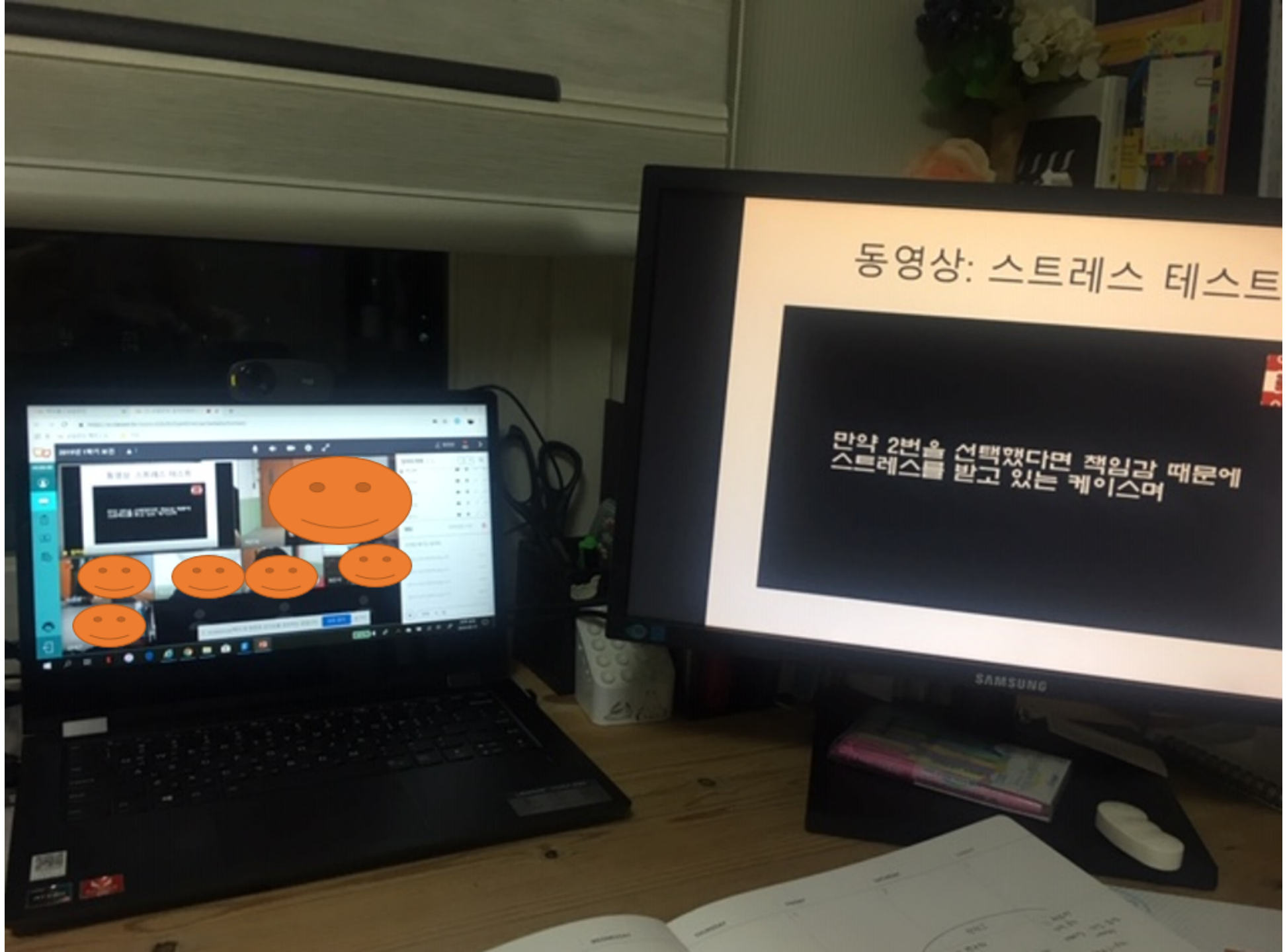
3) 수업 개설 및 수업 신청 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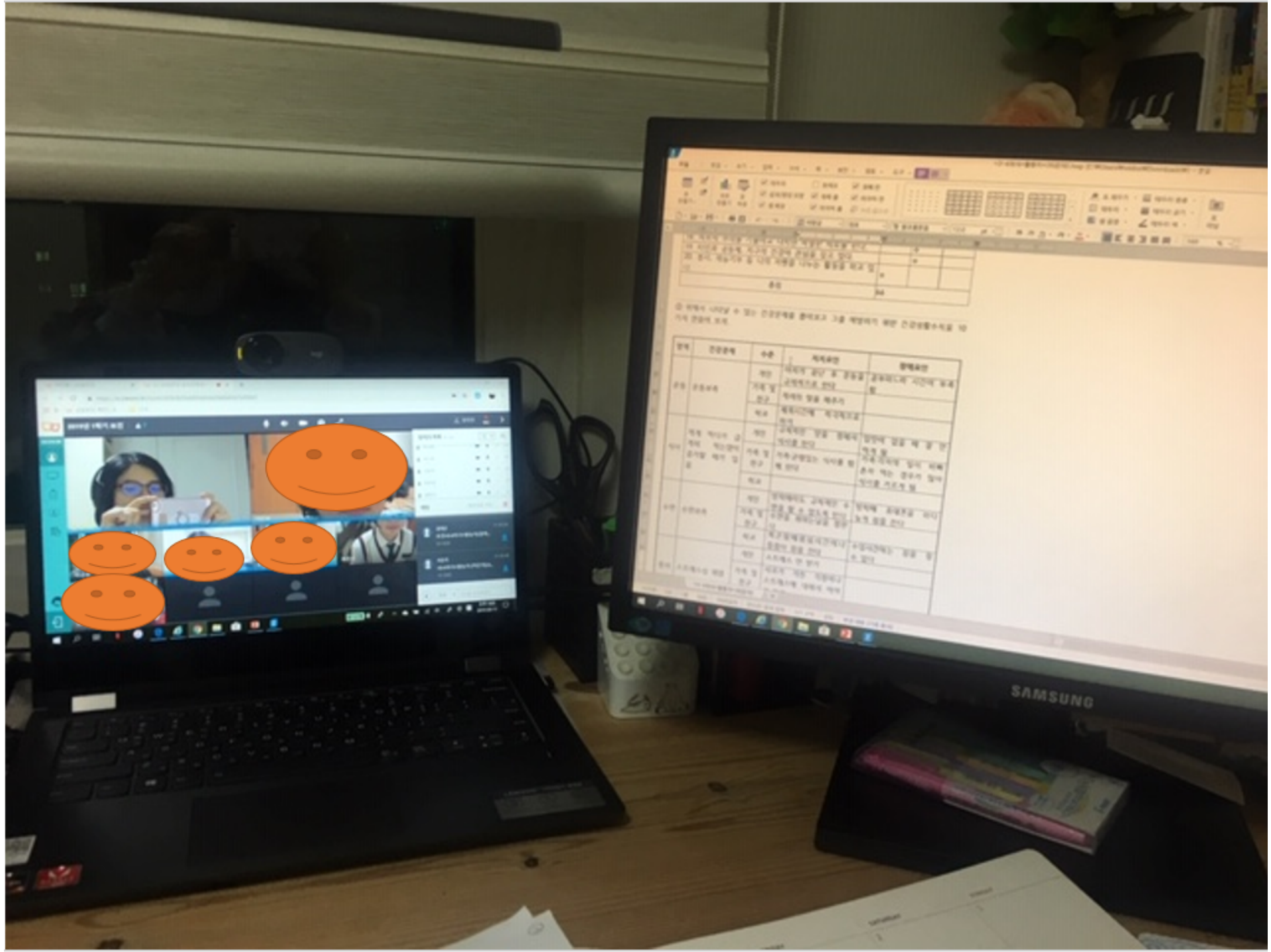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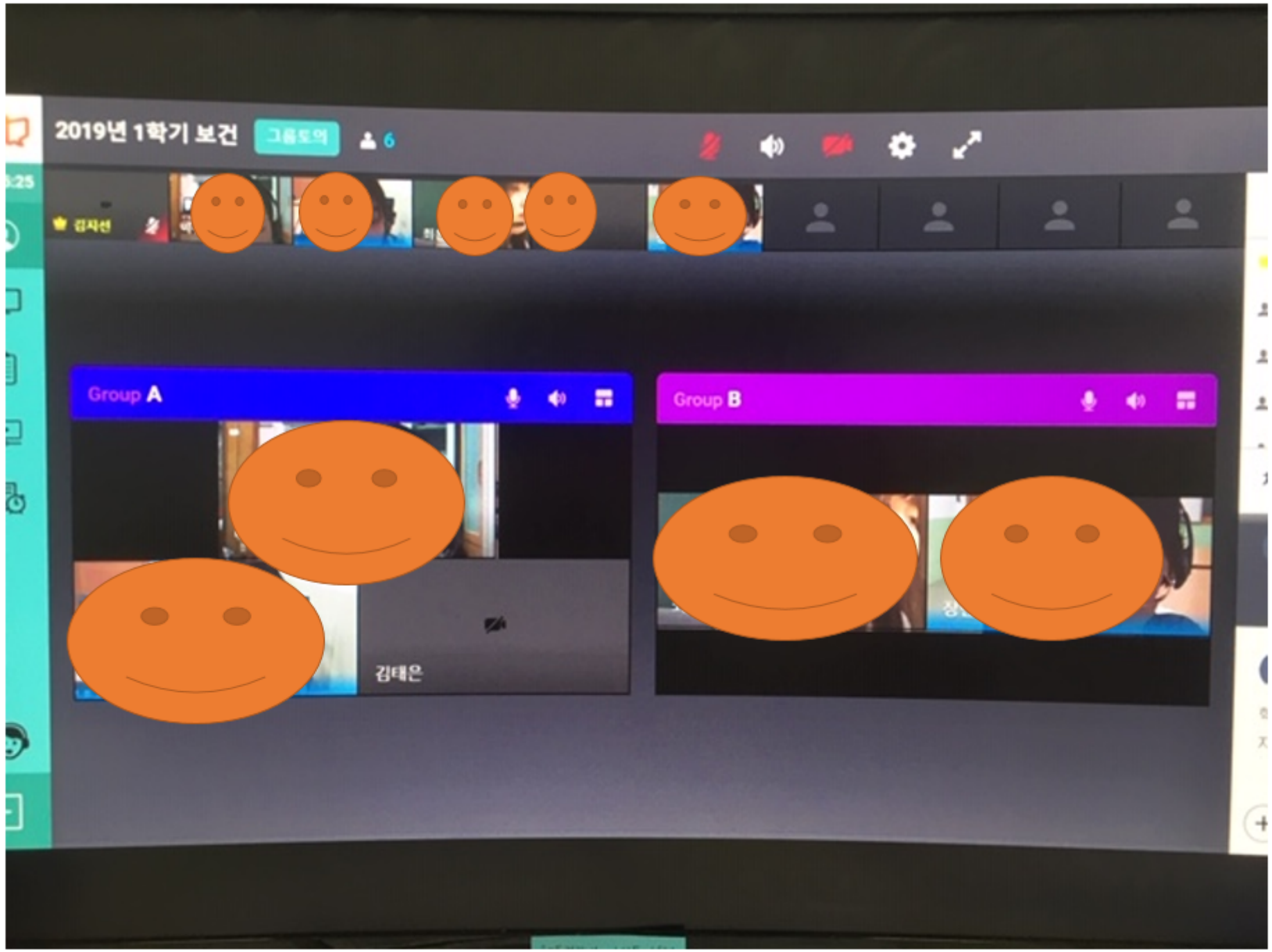

2019년 온라인 공통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 컨설팅(경남)
일시 : 2019. 04. 04. (목) 14:00~16:00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SAMSUNG
Logitech
logitech


활동3: 건강지표의 활용
사회지표(인터넷 검색-통계청, e-나라지표,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 등)를 통한 한국의 사회적 건강수준 확인하기
기대수명
현 시점에서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영아사망률
1년간 영아의 사망자수를 당해 년도의 총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1000분비로 나타냄)
영양상태
의료환경 (의사, 약사 수)
SAMSUNG




동영상: 스트레스 테스트
만약 2번을 선택했다면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케이스며
SAMSUNG


SAMSUNG


2019년 1학기 보건
그룹토의
6
Group A
김태은
Group B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장점

- 진로와 연계하여 해당 교과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자 **준비된 학생**이 들어와(통상 10명 이내), 교사가 최소한으로 개입해도 수업이 매우 활발함
- 화상으로 **그룹토론, 개인발표, 과제전송, 과제제출, 수행평가** 등이 자유롭게 가능
- 교사가 학생들 얼굴을 계속 보면서 교과서 pdf를 공유하거나 ppt, 동영상으로 수업할 수 있음**.(듀얼모니터 필수)**
- 교과서를 넘어 인터넷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탐색, 분석, 평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음

깜짝 퀴즈!

1.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 플랫폼 사용 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① 노트북 등 컴퓨터
② 듀얼모니터
③ 헤드셋과 웹캠
④ 교과서
⑤ 인터넷 가능한 무선장비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단점

- 통상 3-4시간 연강으로 교사, 학생이 지칠 수 있음. **학생 자유 활동과제**를 적절히 부여할 필요.
- **해당 학교 관리교사**가 비협조적이면 출석 관리 어려움
-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보는데 먼 거리는 교사가 시험출제, 감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 개인 노트북으로 할 경우 **컴퓨터 사양이 최신**이어야 하고, 창원중앙고 스튜디오를 이용할 경우 다른 교사와 일정 조정해야함.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관계로 시스템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

1 교실온닷 안내

2) 사용 전 확인사항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교사와 학생 컴퓨터 요구 사양이 동일함

1 권장 사양

- CPU i7 2.0G 이상
- 메모리(ram) 8G 이상
- HDD 50G 이상
- 유선 네크워크 100Mbps 이상
- Chrome 브라우저 설치
  (※ 문제은행 사용 시 Internet Explore 사용)

2 최소 사양

안정적인 접속을 위한 최소 사양

- CPU i5 2.0G 이상
- 메모리(ram) 4G 이상
- HDD 50G 이상
- 무선 20Mps 이상
- Chrome 브라우저 설치
  (※ 문제은행 사용 시 Internet Explore 사용)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보건 수업 구성

2015 개정교육과정 보건을 유심히 살펴보고, 34차시 수업을 내실있게 재구성하기

: 4대 영역(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사회문화)을 골고루 포함한 수업내용 구성

: 수업 형식 결정(강의, 모둠토론, 개인발표, 역할극, 퀴즈 등)

: 부교재 선정 여부 결정(예) 보건 의료와 관련된 도서 선정 후 수업 안에서 독서 토론 등 2020년 올리버 색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토론

강좌 지도 계획

차시	영 역	강의 내용	수업방법
1	오리엔테이션 1	강의 구성 및 평가 및 온라인 수업 과정 안내	강좌 설명
2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건강의 이해와 생활주기①	강의/모둠발표
3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건강의 이해와 생활주기②	강의/모둠발표
4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①	강의/모둠발표
5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②	강의/개인활동
6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신체기관별 주요 질병의 발생원인 및 관리방법①	강의/모둠퀴즈
7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신체기관별 주요 질병의 발생원인 및 관리방법②	강의/모둠퀴즈
8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감염병 예방관리와 병문안 예절①	강의/모둠발표
9	건강의 이해와 질병예방	감염병 예방관리와 병문안 예절②	강의/모둠퀴즈
10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 오·남용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①	강의/개인활동
11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 오·남용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②	강의/모둠발표
12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의 개념과 성고정관념, 성별생식기관 이해하기①	강의/개인활동
13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의 개념과 성고정관념, 성별생식기관 이해하기②	강의/모둠발표
14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폭력, 성매매의 예방과 대처①	강의/즉석질문
15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폭력, 성매매의 예방과 대처②	강의/모둠발표
16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준비된 임신과 피임, 미혼부모 정책①	강의/시연
17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준비된 임신과 피임, 미혼부모 정책②	강의/모둠발표
18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강의/모둠토의
19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자살과 위기관리①	독서/개인발표
20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자살과 위기관리②	강의/모둠토의
21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건강의사소통기술 및 건강증진 옹호①	강의/모둠발표
22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건강의사소통기술 및 건강증진 옹호②	강의/모둠발표
23	안전과 응급처치	차별, 확대 폭력	강의/모둠발표
24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안전위험요인평가와 안전문화운동①	강의/모둠토의
25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안전위험요인평가와 안전문화운동②	강의/모둠발표
26	안전과 응급처치	생활 속의 응급처치①	강의/시연하기
27	안전과 응급처치	생활 속의 응급처치②	강의/역할극
28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강의/모둠퀴즈
29	안전과 응급처치	응급의료체계와 안전사고 예방	강의/개인발표
30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권과 책임, 건강윤리, 건강격차①	강의/발표안내
31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권과 책임, 건강윤리, 건강격차②	토론/토의
32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권과 책임, 건강윤리, 건강격차③	감상/감상문
33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신념, 대중매체, 죽음,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①	강의/발표안내
34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신념, 대중매체, 죽음,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②	토의/발표
35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신념, 대중매체, 죽음,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③	토의/발표
36	평가	수업 평가, 교사 및 친구들과의 질의·응답	전체 나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보건 수업틀

첫 시간은 강좌 소개, 서로 인사, 친밀감 쌓기가 중요

: 교실온닷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점검, 긴장 풀기

: 1시간은 강사 소개, 학생 소개(학교, 이름, 희망진로 등), 강좌 소개로 할애

: 자신의 수업 방식(모둠토론, 발표, 강의, 퀴즈 등) 구체적으로 소개 후 학생들의 의견 받아 수업방식 최종 결정(쌍방향 소인수 수업에 있어 학생들의 주도적인 수업 참여는 매우 중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양교과 '고등 보건' 수업 안내>

교과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선택과목	이수단위
보통교과	생활교양	교양	일반선택	2단위(34시간)
과목역량	건강관리능력, 건강·안전 위험 인식능력, 건강 정보·자원 활용능력, 건강의사소통능력, 건강의사결정능력, 건강 사회·문화 공동체의식			
과목소개	건강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올바른 건강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 건강 영향 요인 • 건강 지표, 평가	• 분석하기 • 해석하기 • 이해하기 • 제시하기 • 비교하기 • 제안하기 • 탐색하기
	생활 주기	• 건강한 생애 주기	
	질병 예방	• 비만, 암 등 만성질환 • 신체 기관별 건강 • 감염병 예방 관리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담배·술	• 약물 오·남용 예방 • 흡연·음주 폐해와 건강한 선택	• 옹호하기 • 조사하기 • 탐색하기 • 제시하기 • 이해하기 • 고안하기 • 적용하기 • 평가하기 • 참여하기
	성 건강	• 섹슈얼리티(sexuality) • 사랑·성적 자기결정권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와 성문화 • 성 매개 감염병 • 준비된 임신과 피임, 미혼모, 저출산	
	정서·정신 건강	•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 불안·우울 등의 감정 대처 • 자살과 위기관리 • 정신 건강 문제와 편견	
	건강 생활 기술	• 건강 의사소통 기술 (협상, 거절, 갈등 관리) • 공동체 건강 의사결정 • 건강 증진 옹호(국가와 세계)	
안전과 응급처치	생활 안전	• 건강·안전 위험 요인 평가와 안전 문화 운동 • 차별·학대·폭력 • 직업병의 예방·대처	- 평가하기 - 이해하기 - 제시하기 - 익히기 - 시연하기 - 탐색하기
	응급 처치	• 생활 속의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 구조 활동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권과 건강 자원	• 건강권과 책임 (국가와 국제) • 건강 윤리, 건강 격차 • 보건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장 제도	- 이해하기 - 평가하기 - 제시하기 - 옹호하기 - 적용하기 - 조사·비교하기
	건강 문화	• 건강 신념·관행·미디어 • 헌혈과 장기 기증, 장례 문화 •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	
추천 도서	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사론 모알렘 [이파야 산대, 장하석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에릭토픔 [청진기가 사라진다], 수잔 고든 [삶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권혜림 외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박현숙 [세계의 보건대통령], 린다 리어 [레이첼 카슨 평전], 매기 캘러넌 [마지막 여행] 김수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의 간호론], 문광기 [미스터 나이팅게일] 김리연 [간호사로서 대행이야], 한화순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권혜림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도나 웰크 카르딜로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권복규 [생명 윤리 이야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보건수업 일정(안) 및 의견 수렴

이름		학교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질문, 고민, 탐구해보고 싶은 활동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 건강 영향 요인 • 건강 지표, 평가	
	생활 주기	• 건강한 생애 주기	
	질병 예방	• 비만, 암 등 만성질환 • 신체 기관별 건강 • 감염병 예방 관리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약물·담배·술	• 약물 오·남용 예방 • 흡연·음주 폐해와 건강한 선택	
	성 건강	• 섹슈얼리티(sexuality) • 사랑·성적 자기결정권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와 성문화 • 성 매개 감염병 • 준비된 임신과 피임, 미혼모, 저출산	
	정서·정신 건강	•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 불안·우울 등의 감정 대처 • 자살과 위기관리 • 정신 건강 문제와 편견	
	건강 생활 기술	• 건강 의사소통 기술 (협상, 거절, 갈등 관리) • 공동체 건강 의사결정 • 건강 증진 옹호(국가와 세계)	
안전과 응급처치	생활 안전	• 건강·안전 위험 요인 평가와 안전 문화 운동 • 차별·학대·폭력 • 직업병의 예방·대처	
	응급 처치	• 생활 속의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 구조 활동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건강권과 건강 자원	• 건강권과 책임 (국가와 국제) • 건강 윤리, 건강 격차 • 보건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장 제도	
	건강 문화	• 건강 신념·관행·미디어 • 헌혈과 장기 기증, 장례 문화 •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	
기타 의견	(원하는 수업 주제, 활동, 수업 방식 등 자유롭게 기재)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보건의 지향점

소인수 수업 장점 활용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 수업 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기

: 학생의 질문과 문제제기, 발표를 환영하기

: 필요시 수업 전후로 문자, 카톡, 전화로 소통하기

: 학기초 언급한 학생의 진로 기억하고 꿈을 위한 도전 독려

수업 설계

1) 수업 주제 관련 질의응답

수업마다 다르지만, 첫 30분-1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정도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리 교과서와 부교재(올리버 색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숙지하도록 하는 거꾸로 수업 방식을 활용했다. 보건교과의 내용은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친숙하게 접하는 생활밀착형 주제가 많아 사전 학습이 쉬운 특성을 활용했다. 온라인은 면대면, 소인수로 진행되기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진행하기 수월하다.

처음엔 학생의 질문이 아주 단순해서 당황했지만(예: 교과서 24p에 나온 그래프는 무얼 나타내는 건가요?) 여기에 다시 질문하고 살을 붙이고, 더 깊은 질문을 유도하는 게 교사의 역할인 것 같다.

수업 설계

질의 응답을 통한 대화는 또한 교사의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운 배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의 개념과 성 고정관념 시간에 다양한 성정체성을 인정할 필요성을 학생들이 제기, 질문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없고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우리 사회 여성혐오문화와 건강과의 관련성, 10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순결 이미지 비판, 가면우울장애 환자를 도와줄 방법 등 다양한 질문과 고민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철학자 가다머가 지적처럼, '대화'는 이전까지 감춰져 있던 무엇이 예상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적'인 것이다.' 교과서를 넘어 현실 속 건강 정책의 모순과 대안, 미래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주고 받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 주제에 몰입,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설계

2) PPT, 영상을 활용한 강의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한 PPT, 영상을 활용한 강의는 전체 수업에서 30분 이내로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의 사전 학습이 잘 된 경우 일정 부분 생략하는 등 최소화하려고 시도했다. 건강 관련 최신 보도나 연구 결과는 사전에 교사가 조사한 후 학생들에게 활동 보조자료로 제공하였다. 동영상의 경우는 건강, 질병 관련 최신뉴스, 건강 다큐멘터리, EBS 지식e 채널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축약하여 활용하였다.

다른 나라의 성폭력 가해자 관리와 처벌법

1. 독일
재범자에 한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외과적 거세 실시

2. 프랑스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20년 형 이상을 선고, 98년부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 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에서 집중 관리

3. 스위스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

4. 중국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여부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5. 영국
2003년 개정된 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시 종신형을 선고,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

6. 캐나다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관리,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까지 운영, 참여 인원을 6명 이하로 제한하여 범죄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함. 성범죄 재발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음.

7. 미국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트윈스 리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형기를 마친 후까지 교육이 이어져 종료까지 2~3년 걸림(200시간 이상).

8. 뉴질랜드
뉴질랜드 키아 마라마 성폭력 범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81회의 교육으로 구성. 참여자의 재범률을 3.2%로 낮춤.

9. 우리나라
- 성범죄자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발찌 제도 도입(2008)
-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가능(2013. 6. 19.)
-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 실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기간 동안 고지 정보를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 주민(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게 우편으로 송부함.
- 취업 제한 제도: 집행이 종료 ·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2013년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 추가).
-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실시: 성 도착증 환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하여 약물 투여 및 심리 치료
-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 치료 센터는 서울남부교도소 교정 심리 치료 센터가 유일
- 2010년부터 전국 교정 시설과 일부 여성 단체가 가해자 프로그램 시행 중(치료 프로그램 시간은 범죄자 1인당 40시간 정도이고, 치료 프로그램당 참여하는 범죄자는 평균 10.7명임.)

11.3

<5.16 ① > 학습계획: 성범죄

14차시 성폭력 · 성매매의 예방과 대처 ④

지난 배움 돌아보기 다른 나라의 성폭력 가해자 관리법 (가해자 사회복귀 PP 토의설)

질문 성매매 관련 궁금증

PPT 성매매 관련 법 정의

모둠활동 짝돌배설 e '숨은 그림찾기' 영상시청후 보고 느낀점 대화 발표 (2009 보건의료과정)

(개인적 · 가족사회(학교 · 직장) · 국가적)

준비: 교보. 발표 5분

<5.16 ② > 학습계획: 성건강

15차시 준비된 임신과 피임, 미혼모 정책 ①

지난 배움 돌아보기 한국의 최근년 성폭력, 성매매의 대응 생각들

질문 임신 · 피임 · 미혼모 정책, 관련 고민

학습목표 확인 - PPT(

PPT: 영화 → 개념 →

<5.16 ③ > 학습계획:

16차시 준비된 임신과

PPT (피임)

시연하기 콘돔 · 피임

영상시청 미혼모 정책

모둠활동 미혼부 · 모

(준비 20분 발표 5분씩)

마무리 임신 출산은 인생의 큰 사건이라 책임 · 각오를 할 수 밖에 없다. 미혼부모 경험한 분들 · 주위 도움이 필요함

숙제 교과서 82-86, 91-94

집단경험 (우울 · 자살 · 스트레스 등) 질문 가져오기

일상적 팁 제공

1) 수업태도 학생 질의 · 응답
2) PPT 13-14차시 교재 / 차시 목표 및 가해자 처벌법 비교
3) 모둠활동 짝돌배설 e '숨은그림찾기' 영상시청후 느낀점 대화 발표 준비
4) PPT 15-16차시 진행 (짝꿍끼리 역할극 → 결혼 → 임신 → 출산 → 출산감정)
5) 피임법 시연
6) 미혼부모 상담, 도움주기 (고교생 상담 참고)
7) 마무리

● 딜레마 - 안락사에 대한 찬성 9가지

책 캐보키언의 이야기와 안락사에 대한 찬성을 읽고,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생명윤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론을 해 보자.

Dr. Death 책 캐보키언

책 캐보키언은 병리의사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희복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가 원하면 스스로 제작한 기구(Thanatron)를 사용하여 환자가 편하게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방법으로 캐보키언은 약 130명이 자살하도록 하였고, 두 번의 무죄 판결 뒤에 10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다가, 8년 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캐보키언은 공개적으로 희복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요청을 받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정한 대에 정한 장소에서 생리검증수를 장착하는 데 현장을 떠났다. 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리검증에 이어 두 번째 수액 즉 장착하시를 아무개를 주입하도록 수액레버를 당겨야는 장치를 조작한다. 이후에야 주입되면 환자는 의식을 잃고 곧이어 자동적으로 세 번째 수액 즉 치명적인 약물이 주입되며 환자는 사망한다. 캐보키언은 이러 정한 시간부터 현장에 올라와 환자가 생존하였으면 환자는 죽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구를 가지고 철수하고, 만약 환자가 사망하였으면 미리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절차. 이후이었도록 조치한다. 캐보키언은 심각에이르러 환자의 허락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녹화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증보하기 위하여 이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공개하도 하였다. 이런 방법을 안락사라고도 부르고 존엄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를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가 생겼는데, 바로 '의사 도움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이다. 사람가 달아졌어서 캐보키언은 몇몇 환자의 희복 불가능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자살방조 또는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았다.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3-1170
이윤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안락사를 둘러싼 9가지 쟁점

[찬성]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반대] 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희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돌보기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첫 번째 논점. 고통은 제거돼야 하는 것인가?

[찬성]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반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조력자살 전담반의 컨설턴트인 팩슬리 J 스미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통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며, "그래서 고통을 아예 없애는 것이 사회의 역할로 간주된다. 고통을 완화해준다는 것과 아주 다른 개념이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두 번째 논점.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찬성]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감독이었던 프랑수아즈 사강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사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외친 한 사람이 있다. 영국인 남성 폴 템 씨다. 템 씨는 고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다. 이후 고통 속에서 살아오던 템 씨는 자력리 죽음을 택하기로 하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의료진이 자신의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영국 법원은 템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템 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대] 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죽음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자율적일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희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돌보기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세 번째 논점. 가족은 죽기를 원하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찬성]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 역시 환자의 죽을 권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 현재 영국 형법상에서는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는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킨다.

[반대] "그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주고 돌봐줄 기회를 없애버렸어." 윈스턴 로스 뉴스위크 기자의 어머니가 한 말이다. 그의 어머니가 29세 때, 외할아버지는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 파열된 식도 정맥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의 자살이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 네 번째 논점. 죽을 권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한다

[찬성]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30일간 입원해 골절도 등 각종 검사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5300만원보다 8700만원이나 더 많았다.

11/10

2주차시 건강안전취업교육 안전응급처치 ① 학습계획: 세계건강

지난 배움 돌아보기: 감동체험 내게힘이됨 (경험에게 손들어줘. 대접하기. 칭찬하기)

질문: 건강안전취업교육 안전응급처치 질문

학습목표: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 안전응급처치 중요성 인식

학습목표 확인

질문: 하인리히 법칙이란? (3명 질문) 1:29:300

PPT 설명 → 동기유발 영상 ('하인리히 법칙 5*36")

모둠활동 주위서 듣기 사례들 하인리히법칙으로 분석 · 예방법 제시

(삼풍백화점 · 세월호) 3모둠 준비, 5분 발표

1) 수업태도 학생 질의 · 응답
2) 도입 체험하기 질문 넘어가기
: 칭찬하기해주 · 어머니께 감사 편지쓰기 · 감동체험 묻는 · 따뜻 자존감 · 사랑 · 생명 · 행복 · 만족
: 서로 고마워하기 · 칭찬하기 발표 · 소중하다 · 특별하다 · 존귀하다 · 감동하다 · 감사하다 · 30분
PPT 23-24 PPT 14 ~ 16 수 체험학습
3) 2차시 학습 (모둠) 안전사고 예방 브레인스토밍
4) 다음 내주 안전응급처치 숙제 (PPT 23-24 적시)
5) 보충시 참고서 (안전조치)
6) 마무리
7) 예습 교과서 136-146
부교재 학생 227-251

2주차시 건강안전취업교육 안전응급처치 ① 학습계획: 세계건강

지난 배움 돌아보기: 감동체험 내게힘이됨 (경험에게 손들어줘. 대접하기. 칭찬하기)

질문: 건강안전취업교육 안전응급처치 질문

학습목표: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 안전응급처치 중요성 인식

학습목표 확인

질문: 하인리히 법칙이란? (3명 질문) 1:29:300

PPT 설명 → 동기유발 영상 ('하인리히 법칙 5*36")

모둠활동 주위서 듣기 사례들 하인리히법칙으로 분석 · 예방법 제시

(삼풍백화점 · 세월호) 3모둠 준비, 5분 발표

3주차시 건강안전취업교육 안전응급처치 ② 학습계획: 구강건강

PPT 설명 - 브레인스토밍

전체활동 안전사고 예방

3모둠 각자 개인 · 공동체 · 국가

→ 모둠별 친구

마무리 자존감과 안전문

4주차시 생활 속 응급

질문: 응급처치 안전 중

체험하기: 찰과상 · 타박상

화상 · 동물

학습목표 확인

개인활동 응급처치 필요한 상황 제시하기 출산. 하인리히 법칙 (2'18")

PPT 기도폐색 풍heimlich 하인리히 법칙 (2'18")

PPT 응급처치 학생제시 (PPT 18) ⇒ 질의응답 보충

숙제 교과서 136-146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색풍기 안전 중요성 제시하기

응급의료체계 · 심정지응급처치 · 화상

1) 수업태도 학생 질의 · 응답
2) 도입 체험하기 질문 넘어가기
: 칭찬하기해주 · 어머니께 감사 편지쓰기 · 감동체험 묻는 · 따뜻 자존감 · 사랑 · 생명 · 행복 · 만족
: 서로 고마워하기 · 칭찬하기 발표 · 소중하다 · 특별하다 · 존귀하다 · 감동하다 · 감사하다 · 30분
PPT 23-24 PPT 14 ~ 16 수 체험학습
3) 2차시 학습 (모둠) 안전사고 예방 브레인스토밍
4) 다음 내주 안전응급처치 숙제 (PPT 23-24 적시)
5) 보충시 참고서 (안전조치)
6) 마무리
7) 예습 교과서 136-146
부교재 학생 227-251

수업 설계

3) 개인, 모둠 활동 제시 및 발표, 평가

수업 주제에 대한 개인, 모둠 활동을 제시한 후 온라인 사이트, 교과서, 참고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수업 과정 속에서 학생의 창의적, 비판적, 융합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오류에 대해서는 교과서 등을 근거로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 부분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전체 수업 분량의 절반 이상(1시간 30분 이상)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수준 높은 과제 제시의 성과-

교과서를 예습했다는 전제하에, 난이도 높은 과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약물 오남용 사례를 선택해 방송 BJ활동 하기, 성폭력 관련 국내외 법, 정책 조사 후 개선방안 발표하기, 국내 건강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등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해 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 평가하는 역량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과제가 자신의 역량보다 수준이 높다며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가 지속적으로 격려, 참고자료 제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감을 회복해 갔으며, 수업이 누적될수록 교사는 학생들의 자료 분석 및 탐색, 문제해결역량이 향상됨을 느꼈다. 학기 말에는 교과 내용에 대한 자기 판단력을 키우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사후 학습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수업 설계

4) 단톡방을 활용한 배우고 느낀 점 정리

블록수업에 대한 마무리로 단톡방을 활용하여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2-3개의 문장으로 정리하여 적도록 하였다. 학습 후 바로 이어지는 기록은 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로 배우고 느낀 바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 내용과 핵심 개념을 구조화하고, 그날 수업 주제에 대한 통찰력, 탐구심을 키워나갔다.

교사는 학생이 채팅창에 기록, 제출한 부분을 매 수업 복사하여 따로 저장해두어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 기록에 참조하였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고 꼭 잊지 말고 위급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교재에 등장한 리베카를 보면서 우리와 다르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것 없고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했고 가장 의견이 많았던 자전거 면허증 제도 실시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꼈고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9:27

오늘 수업을 통해 평소 응급처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몰랐던 응급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수있어서 의미있었고 , 또한 친구들과 평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있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위한 예방법을 모색해보며 친구들의 의견 중 자전거 시험 이라던지 , 캠페인등을 실제로 한다면 자전거사고가 줄어들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9:28

부 교제를 읽으면서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제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에 대해서, 부목을 대고 고정을 하는 이유, 상처에 얼음을 바로 대지 않는 이유 등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모둠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인, 공동체, 국가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생각하고 모둠원들과 토론 함으로써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9:31

처치를 하는데 왜 그런 응급처치를 해야하는지를 배우면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응급차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으며 쓰러진 사람을 구조에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며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둠과제로 자전거 사고 예방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대안들이 실시되어도 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후 9:32

재해의 사전 징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응급 처치 방법이나 응급 처치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배운것이 인상 깊었고, 마지막에 친구들과 같이 자전거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하면서 자전거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사고에 비해 제도적으로나 사람들의 인식적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 오후 9:32

오늘 수업을 통해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해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싶었고 덕분에 응급처치에 대해 지식이 더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마지막 활동을 통해 최근 심각해진 자전거 사고 대책을 개인, 공동체, 국가 별로 나눠 제일 좋은 의견을 하나로 통합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2 오후 9:33

각종 응급 상황마다 대처법에 대해 배운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머리를 다칠때에는 머리를 높게,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때에는 머리를 낮게하는 등 경우마다 다른 처치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의미있었다. 또 주변에서 많이 일어 나는 자전거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친구들의 여러가지 방안을 나누며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2 오후 9:33

여러가지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게 되었고, 여러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 의식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구급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개인의 의식개선 뿐만아니라 제도적,구조적인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모둠원들 그리고 다른 모둠의 방법을 들으며 자전거 면허증이 공통적으로 나온것을 보아 이것이 실행되면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5 오후 9:36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리베카가 자기자신을 잘 알고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면서 잘몰랐던 방법을 배우고 잘못 알고있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응급처치 중에서 알레르기에 재한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한가지 의견을 선택하고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여러 의견을 듣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고려하는것이 흥미로웠다.

6 오후 9:36

수업 설계

5) 평가

보건교과는 교양과목이라 수행, 지필 평가 없이 이수/미이수로 기록하기 때문에 따로 명시된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특기사항이기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에 임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활동한 내용이나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역량, 잠재능력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기에 매 수업 시 학생들의 활동을 교사, 학생이 모두 평가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를 교사는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여 보관하였고, 이 부분을 학생의 교과특기사항 란에 반영하였다.

이름		진로희망	수업출석	학생질문	학습 활동 관찰 내용	학생이 배우고 느낀	가장 의미 있었	학생부 교과세특 기록 내용	최종기록
		간호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5회 일찍 출석, 문의, 10/20 결석		건강을 바라보는 의학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건강의 정의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건수업을 통해 새롭게 인식함. 첫 시간 보건수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탐구심이 높은 학생임. 청소년 비만관련 영상 속에 나온 한부모가족의 비만 문제를 접하며 청소년 대상 건강정책이 계층별로 달라져야 함을 느낌. 특히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식, 운동, 교육 프로그램이 맞춤식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느끼고 모둠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음. 탐구심, 비판적사고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만성질환 수업 시 2개 이상 만성질환의 예,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시스템 현황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함. 한국의 건강지표분석모둠 활동에서 폐암발생률과 그 원인을 탐구주제로 삼아 2010-2016년 흡연, 간접흡연률과 폐암발병률을 국가금연정책자료에서 찾아 비교, 탐색하며 과제몰입도를 보임.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읽기자료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학생으로, 프로이드가 언급한 '자아란 무엇보다 육체적인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탐색하며, 질문과 토론을 적극적으로 참여함. 경남지역 감염병예방 모둠활동에서 발표자를 맡아 수두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효과, 수두 발병 시 대처할 방안을 적은 교육자료를 배포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약물오남용 수업 시 간접흡연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길잃은 뱃사람'읽기자료를 숙독한 후, 알콜중독과 뇌손상과의 관련성, 기억과 시간에 대해 깊이있는 질문을 제기함. 감염병예방 수업 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감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과 역학 조사 부분에 중점을 두어 확진자를 치료, 격리한 점을 들어 현 상황을 평가하는 등 건강정보활용능력을 키웠음. 성매매 예방과 대처 수업에서 한국의 아동,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주장하였고, 미혼모정책 수업 시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입양의 기회가 열려야 함을 최근의 사회변화와 연간지어 설득력있게 주장함. 한국의 미혼부모 정책 모둠토론 시 문제점으로 관련시설의 관리부실, 복잡한 지원금 지급절차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기관의 모니터링, 한부모대상 직업교육, 지원금절차간소화, 심리지원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기록하며 공동체 의식, 문제해결능력을 키웠음.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의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환자와 치료자간 상호소통하는 치료방법 결정의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에 적극 임했음. 유명연예인 자살보도와 관련한 추가보도지침을 구상하고, 자살예방방안으로 동호회 모임 활성화, 지역축제 활성화 등 대안을 모색하며 공동체의식,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움. 응급처치에 대한 사전지식과 열의가 높은 학생으로 염좌 골절 시 얼음을 직접 피부에 닿게 하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함. 보건, 건강 주제와 관련한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 고민하여 질문, 토론으로 이끄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임. 자전거 안전사고예방 브레인스토밍 모둠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을 기록 제출하여 모둠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면허증 제도 마련, 단속 강화'가 최종안으로 선택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			
			6시						

깜짝 퀴즈!

2. 경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플랫폼** 이름은?

2020년 2학기 보건 B 수업 사례

단원명 및 성취기준	**단원명: 신체 기관별 건강문제와 건강관리** 성취기준: 신체 기관별 주요 질병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신체 기관별 건강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단원명: 감염병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 성취기준: 감염병 발생 기전 및 증상을 탐색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병문안 예절 등 개인적, 사회적 대처 방안을 제안한다.	학습활동 구성 차시	3

해당 학습의 핵심 키워드	질병 예방

교사의 수업 디자인 의도	거꾸로수업, 질문토론식 수업을 접목하여 1시간은 교과서, 부교재 내용 중 인상깊은 구절, 질문과 토론중심으로 진행, 2시간은 수업내용 및 활동 소개, 개인활동과 모둠활동 및 평가, 소감나누기로 진행한다.

차시	학습 활동 디자인	학습 활동 결과
1	교과서, 부교재 미리 읽고 교사-학생간 질의응답 (50분)	- 교과서 30-37p, 부교재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중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읽은 내용 중 1) 인상깊은 내용 2) 질문, 탐구심이 일어난 내용 1사람씩 발표 -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교사, 학생의 실시간 응답 및 상호토론 ♥ **수업영상 '신체기관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참조(25분)**
2	신체기관(감각, 소화, 심폐, 근골격, 신경, 내분비계) OX퀴즈 : 개인활동 (45분)	- 감각기관, 소화기관 OX퀴즈(20문항, 제한시간 10분) - 교실운닷 퀴즈 코너에서 실시간 정답 확인 및 문제풀이 - 심폐기관, 근골격, 신경, 내분비기관 OX퀴즈(20문항, 제한시간 10분) - 교실운닷 퀴즈 코너에서 실시간 정답 확인 및 문제풀이
3	감염병 지표기반, 우리지역 감염병예방 홍보활동 계획하기 : 모둠활동 (50분)	- 3인 1팀 모둠 구성하여 30분 모둠 활동(통계청 등 활용하여 우리지역 감염병 현황 확인하기, 경남지역 감염병예방 주제 선택, 목적, 세부계획, 기대효과 토론, 정리) - 15분 모둠활동 결과 발표 활동(1팀 당 5분 내외) ♥ **수업영상 '신체기관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모둠발표' 참조 (22분)**
3	마무리 (5분)	- 전체 활동 마무리 및 정리 - 개인별 배운 소감 3-4문장으로 정리하여, 단톡방에 올리기 - 차시 예고

수업 후 제언	성취기준 달성 여부 판단	수업 시작 전 9명 전원 입장, 준비에 철저히 임하였고, 모든 학생이 교과서, 부교재 읽고 심도깊은 질문, 토론 전개, 개인/모둠활동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에서 두 성취기준 모두 훌륭히 달성했다 판단함.(붙임 1. 붙임 2. 참조)
	수업 개선 방향 고민	1차시 질의 응답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론 강의 및 모둠활동 부여 시간의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작년 인원이 5명일 때와 시간 배분면에서 더욱 빠듯한 상황이다. 수업 인원을 5-7명으로 제한하여 보다 심도깊게 논의하고 이론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 인원이 제한되면 모둠활동시간도 충분히 배려하여 학생들이 보다 풍성하고 꼼꼼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제작,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붙임1. 학생들 모둠활동 결과물

사진 자료	설명
	우리지역 감염병 예방 홍보 계획 모둠활동지로 왼쪽은 결핵예방홍보, 가운데는 제 2군 감염병 예방접종 홍보, 오른쪽은 수두예방접종 및 발생 시 대처방안 홍보 계획 제출 자료이다. 각 발표 후 5분 내외로 평가 및 토의시간을 가져 활동내용을 보충하였다.

붙임2. 학생들 수업소감(단톡방에 올린 내용 캡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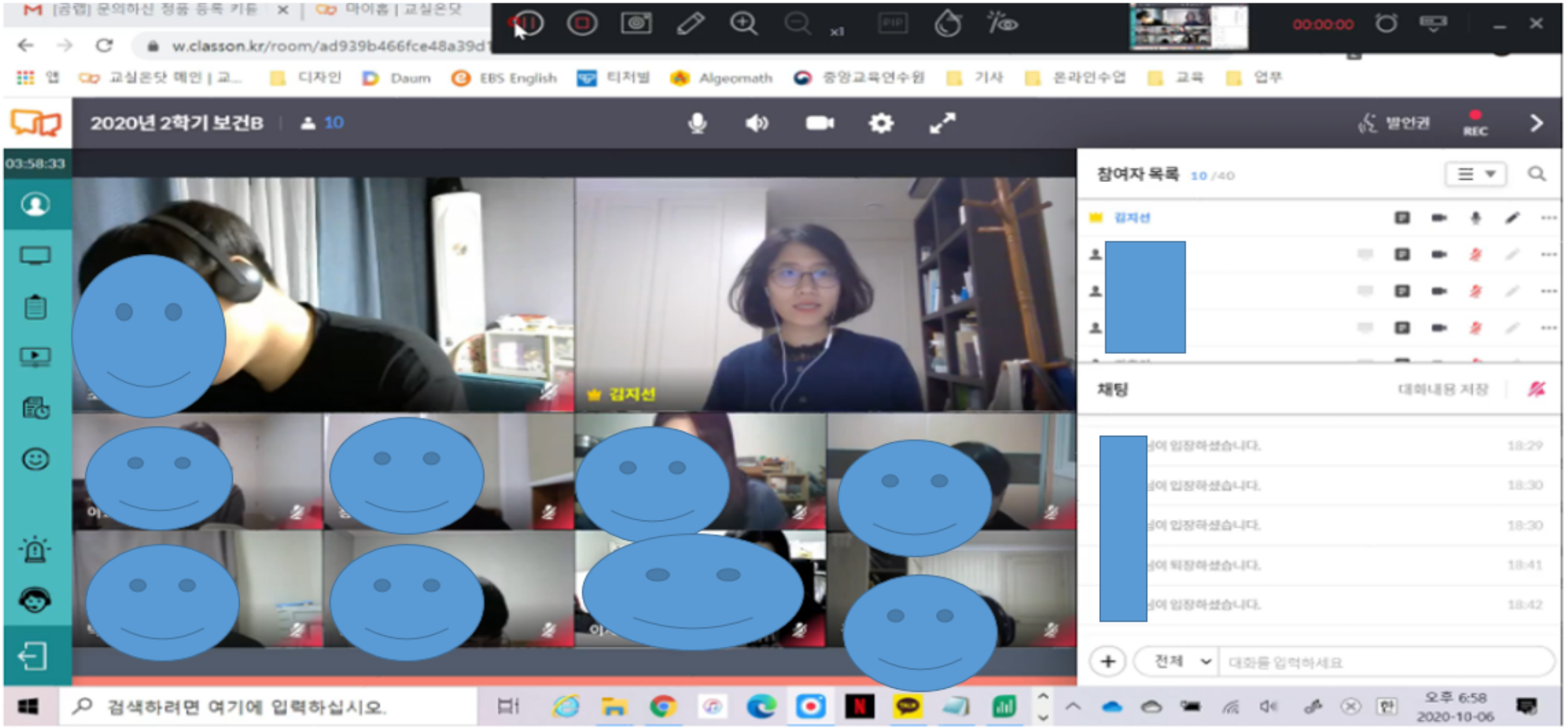


학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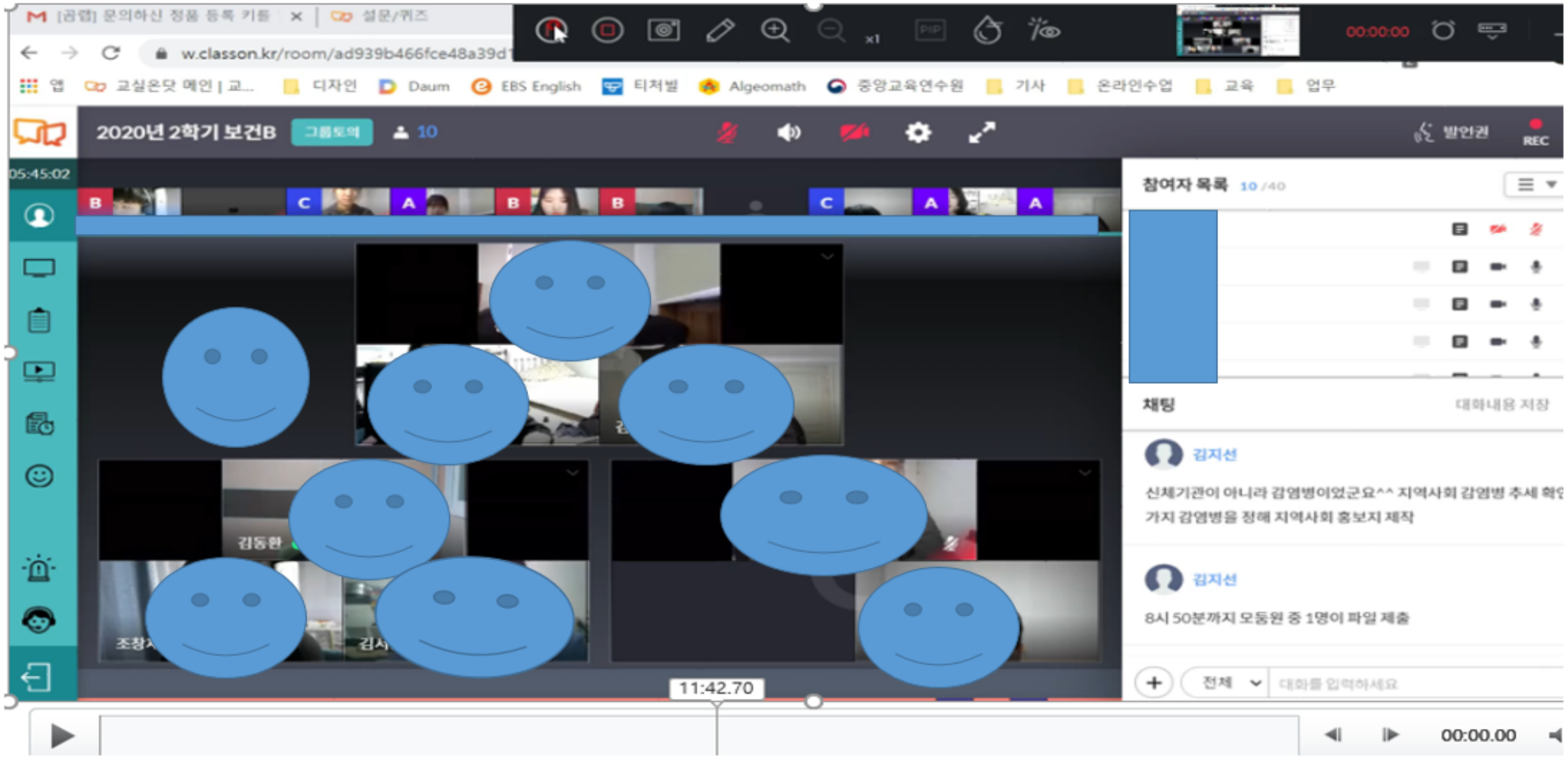
- 경남 지역 고등학교 2학년 9명
- 남학생 3, 여학생 6
- 희망진로: 물리치료사 2, 심리학 1, 간호사 4, 보건교사 2
- 모두 시험기간 하루 빼고는 빠짐없이 참석, 열의가 높은 학생들
- 자기 진로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고 질문과 탐구심, 주도성이 높은 학생들

수업 PPT, 활동지 예시

수업 영상 보기(질문과 토론)



수업 영상 보기(모둠토론)


2020년 2학기 보건B
그룹토의
10
발언권
REC
05:45:02
참여자 목록 10 /40
채팅
대화내용 저장
김지선
신체기관이 아니라 감염병이었군요^^ 지역사회 감염병 추세 확인
가지 감염병을 정해 지역사회 홍보지 제작
김지선
8시 50분까지 모둠원 중 1명이 파일 제출
전체
대화를 입력하세요
김동환
11:42.70
00:00.00

학생 평가

<학생 1>

장래희망or진로	항공 간호사, 한의사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수업과 활동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죽으면 자살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문 기사 밑에 자살예방 전화번호를 적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기흉으로 병원에 입원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보건수업 때 그 기흉의 증상과 원인을 배웠던 것도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학교 수업은 발표기회나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기회가 적었는데 보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의 보건 문제, 건강 정책 문제 등 일주일에 한 번 든 수업이었지만 자신감 향상과 좋은 친구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보거나 탐구할 예정인 주제	
특수한 환경 중 발생하는 보건, 의료 문제나 특수 상황의, 넓은 영역에서의 응급 문제를 다뤘으면 좋을 것 같다. ex)비행기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문제와 그에 따른 치료	
한 학기를 보내며 아쉽거나 반성할 점 및 보완하고 싶은 점	
시험기간에 수업을 빠져 아쉽게 몇 시간 수강을 다 하지 못한 게 아쉽고 수업 전 더 많은 관련 자료 기사를 읽어볼 걸 후회된다.	

<학생 2>

장래희망or진로	간호사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수업과 활동	
12/21 32-34차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항상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다가 직접 얼굴을 모면서 수업해서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보완할 점을 이야기해주셔서 좋았다. 대학교를 어떤 대학교로 가야 유리할지도 말씀해주셨는데 1년 뒤에 고3이 되고 대학교에 갈 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보거나 탐구할 예정인 주제	
간호학과의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선택하지 못해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한 학기를 보내며 아쉽거나 반성할 점 및 보완하고 싶은 점	
온라인 상태가 불안정했던 것 빼고는 아쉬운 점이 없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기초자료 조사를 꼼꼼히 해야 겠다.	

학생 평가

<학생 3>

장래희망or진로	물리치료사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수업과 활동	
응급처치에 관련되었던 수업과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는 실제로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상황에 대비해 의료인으로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응급처치에 관심이 많아서 보건수업 회적으로 학교에서 보건, 의료 쪽을 꿈꾸는 친구와 함께 붕대법(절전대)와 삼각건을 연습해보았습니다. 또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수업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국가적 처벌강화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관심이 많던 분야라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보거나 탐구할 예정인 주제	
물리치료를 희망하고 있고 노인물리치료학과 동물물리치료학에 관심이 많은데 노인물리치료학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탐구할 기회가 많았지만 동물물리치료는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는 생소하여 이를 심화하여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를 보내며 아쉽거나 반성할 점 및 보완하고 싶은 점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수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고 심화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렀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학생 4>

장래희망or진로	임상병리사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수업과 활동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에 관한 수업을 했을 때가 가억에 남는다.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학교에서도 꾸준히 배우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었기에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어 기억에 남는다. 모둠을 통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보거나 탐구할 예정인 주제	
희망진로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상병리분야가 무엇을 하는지 좀 더 조사하고 탐구해보고 싶다.	
한 학기를 보내며 아쉽거나 반성할 점 및 보완하고 싶은 점	
시험기간 때문에 2번을 빠졌는데 그게 아쉬웠다. 시험기간만 아니었으면 모든 수업을 다 수강하고 싶었다.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질문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응원하며!!

수업을 고민하는 모든 선생님, 멋지시고 응원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걱정되는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 뭐든지 이야기해봅시다!

문의: wldbstodkr@hanmail.net

전교조
보건위원회

코로나19 끝장내기



발표자 : 김민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 나눔

학교 현황

학교 규모 및 현황

- 급　별 : 초등학교
- 설　립 : 공립
- 학　급 : 64학급
- 학생수 : 1700명
- 교직원 : 120명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 상황

- 코로나 의심환자 인적사항 : ***(만9세)
- 거주지: 경남 양산시
- 증상 : 무증상
- 밀접접촉자 사항 : ***(40대, 남), 고열, 인후통 (관계 : 부)
- 본교 학생의 아버지가 경기도 출장 목적으로 방문(이동수단: 비행기)
- 2020.6.7. 아버지가 출장 후 고열,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 발생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 2020.6.8. 아버지 검사결과 1차 양성판정
- 2020.6.8. 아버지 재검사 실시 및 동거가족 코로나19 검사 실시
- 2020.6.9. 아버지, 어머니, 자매 양성판정, 본교 학생 음성 판정
- 2020.6.23. 본교학생 재검결과 양성판정

01 코로나19 발생 당일 조치

<2020. 6. 8. (수)>

17:57 담임교사로 부터 보호자(부) 확진 연락 받음

18:19 양산시 교육지원청 보건담당 주무관과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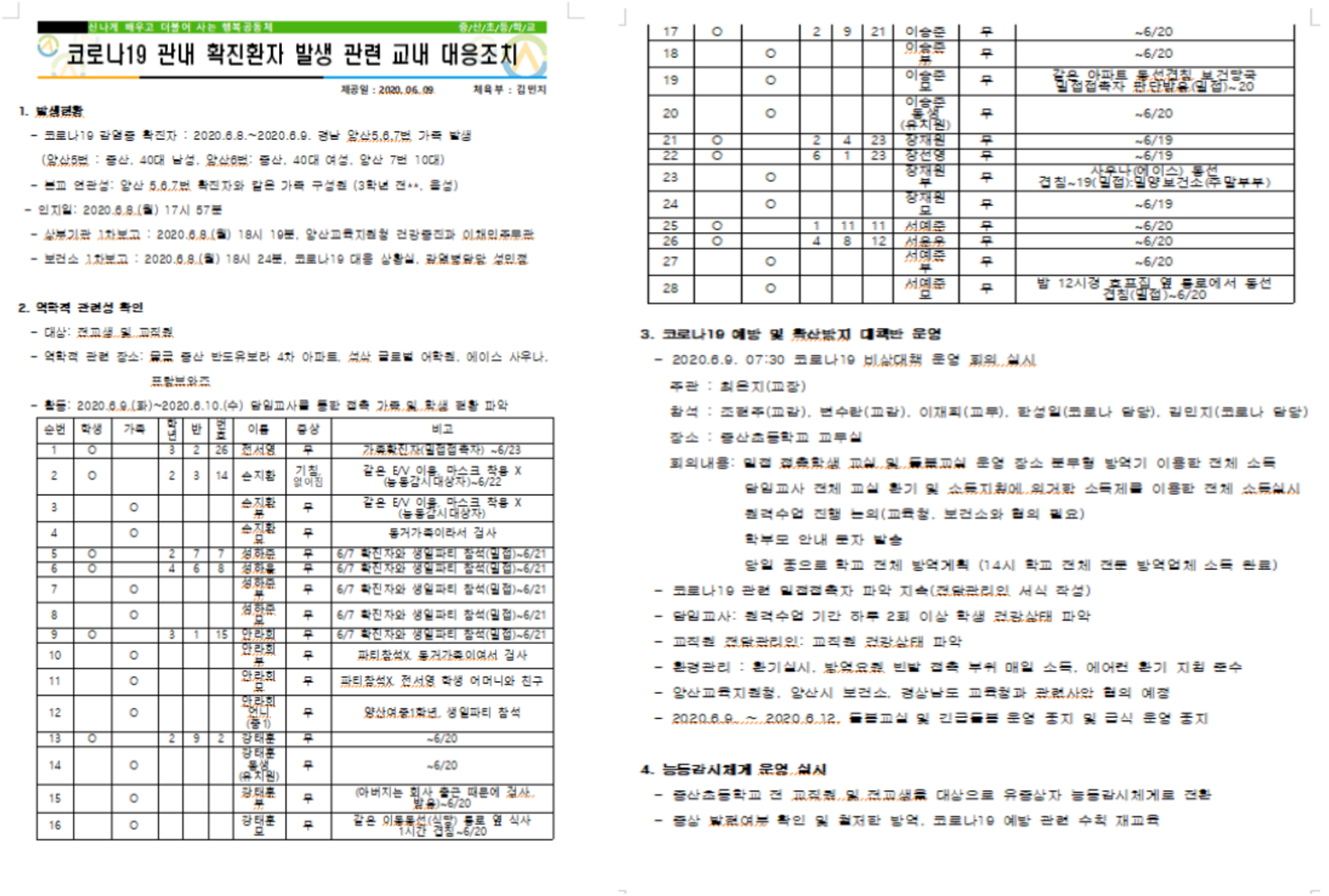
18:21 교장, 교감, 교무, 코로나담당자에게 현재 상황 알림

18:24 보건소와 연락, 보건소에서 확진 재검사 나갈 예정이고, 동거가족 검사 진행 통보

21:03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진 판정, 동거가족 검사 내일 오전 8시 경 결과 완료 안내예정

21:10 학교에서 내일 오전7:00 경 대책회의 및 대응 조치 논의 하기로 함

01 코로나19 발생 당일 조치



신나게 배우고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중/산/초/등/학/교

코로나19 관내 확진환자 발생 관련 교내 대응조치

제공일 : 2020. 06. 09. 체육부 : 김민지

1. 발생현황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 2020.6.8.~2020.6.9. 경남 양산5,6,7번 가족 발생
  (양산5번 : 중산, 40대 남성, 양산6번: 중산, 40대 여성, 양산 7번 10대)
- 본교 연관성: 양산 5,6,7번 확진자와 같은 가족 구성원 (3학년 전**, 음성)
- 인지일: 2020.6.8.(월) 17시 57분
- 상봉기관 1차보고 : 2020.6.8.(월) 18시 19분, 양산교육지원청 건강증진과 이채민주무관
- 보건소 1차보고 : 2020.6.8.(월) 18시 24분,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감염병담당 성민경

2. 역학적 관련성 확인

- 대상: 전교생 및 교직원
- 역학적 관련 장소: 물금 중산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 석상 글로벌 어학원, 에이스 사우나, 프랑브와즈
- 활동: 2020.6.9.(화)~2020.6.10.(수) 담임교사를 통한 접촉 가족 및 학생 현황 파악

순번	학생	가족	학년	반	번호	이름	증상	비고
1	O		3	2	26	전서영	무	가족확진자(밀접접촉자) ~6/23
2	O		2	3	14	손지환	기침, 없어짐	같은 E/V 이용, 마스크 착용 X (능동감시대상자)~6/22
3		O				손지환 부	무	같은 E/V 이용, 마스크 착용 X (능동감시대상자)
4		O				손지환 모	무	동거가족이라서 검사
5	O		2	7	7	성하준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6	O		4	6	8	성하윤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7		O				성하준 부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8		O				성하준 모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9	O		3	1	15	안라희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10		O				안라희 부	무	파티참석X, 동거가족이여서 검사
11		O				안라희 모	무	파티참석X, 전서영 학생 어머니와 친구
12		O				안라희 언니 (중1)	무	양산여중1학년, 생일파티 참석
13	O		2	9	2	강태훈	무	~6/20
14		O				강태훈 동생 (유치원)	무	~6/20
15		O				강태훈 부	무	(아버지는 회사 출근 때문에 검사, 발음)~6/20
16		O				강태훈 모	무	같은 이동동선(식탁) 통로 옆 식사 1시간 겹침~6/20
17	O		2	9	21	이승준	무	~6/20
18		O				이승준 부	무	~6/20
19		O				이승준 모	무	같은 아파트 동선겹침, 보건당국 밀접접촉자 판단발음(밀접)~20
20		O				이승준 동생 (유치원)	무	~6/20
21	O		2	4	23	장재원	무	~6/19
22	O		6	1	23	장선영	무	~6/19
23		O				장재원 부	무	사우나(에이스) 동선 겹침~19(밀접):밀양보건소(주말부부)
24		O				장재원 모	무	~6/19
25	O		1	11	11	서예준	무	~6/20
26	O		4	8	12	서윤우	무	~6/20
27		O				서예준 부	무	~6/20
28		O				서예준 모	무	밤 12시경 효프집 옆 통로에서 동선 겹침(밀접)~6/20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반 운영

- 2020.6.9. 07:30 코로나19 비상대책 운영 회의 실시
  주관 : 최은지(교장)
  참석 : 조현주(교감), 변수란(교감), 이재희(교무), 한성일(코로나 담당), 김민지(코로나 담당)
  장소 : 중산초등학교 교무실
  회의내용: 밀접 접촉학생 교실 및 돌봄교실 운영 장소 분무형 방역기 이용한 전체 소독
  담임교사 전체 교실 환기 및 소독지침에 의거한 소독제를 이용한 전체 소독실시
  원격수업 진행 논의(교육청, 보건소와 협의 필요)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당일 종으로 학교 전체 방역계획 (14시 학교 전체 전문 방역업체 소독 완료)
- 코로나19 관련 밀접접촉자 파악 지속(전담관리인 서식 작성)
- 담임교사: 원격수업 기간 하루 2회 이상 학생 건강상태 파악
- 교직원 전담관리인: 교직원 건강상태 파악
- 환경관리 : 환기실시, 방역요원 빈발 접촉 부위 매일 소독, 에어컨 환기 지침 준수
-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시 보건소, 경상남도 교육청과 관련사안 협의 예정
- 2020.6.9. ~ 2020.6.12. 돌봄교실 및 긴급돌봄 운영 중지 및 급식 운영 중지

4. 능동감시체계 운영 실시

- 중산초등학교 전 교직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능동감시체계로 전환
- 증상 발현여부 확인 및 철저한 방역, 코로나19 예방 관련 수칙 재교육

1. 발생현황 요약
2. 역학적 관련성 확인
3.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 대책반 긴급 운영
4. 능동 감시체계 운영 실시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방역 관리 | 1ST

가. 오전: 교사3명 확진가족 발생 교실 및 복도, 긴급돌봄교실(2곳), 돌봄(4곳) 플루건 이용하여 소독실시

나. 방역지원인력: 중앙현관,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현관손잡이 소독 실시

다. 담임교사 : 각 교실 소독

라. 급식실 : 전체 소독

마. 오후: 학교전체 전문방역업체 요청하여 소독 실시

접촉자 관리 | 2ND

접촉자 이동동선 및 수업시간표, 이동수업 교실 등 동선파악, 보건소와 연계

학부모 안내 문자 | 3RD

학부모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 수업 실시 안내 문자 발송)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연왕 보고

❑ 학교현황

학교명	설립	학교장	학급	교직원	학생수	담당자/전화번호
증산초등학교	공립	최은지	64	120	1702	김민지/010-7544-8624

❑ 현황

○ 코로나 의심환자 인적사항: 전**(만9세)
- 거주지: 경남 양산시 *** 아파트 **동 **호
- 증상: 무증상(가족 확진: 부, 모, 언니)
- 검사처: 2020.06.22. 울산광역시 보건소
- 검사결과: 2020.06.23. 07:10 전**학생은 재검사결과 양성판정

○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 인적사항
- 할아버지, 할머니 (울산거주) -2020.06.23. 검사진행.

○ 보고사항(접촉 경로, 검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2020.06.08. 보호자(부) 검사결과 양성판정
- 2020.06.09. 동거가족 검사(모,언니)결과 양성판정, 전**(본교 학생, 음성)
- 2020.06.09. 울산 할아버지집으로 119 구급차 탄 채 이송 가정 내 자가격리
- 2020.06.22. 자가격리 중 울산광역시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 2020.06.23. 07:10 재검사 결과 양성판정(무증상), 무증상일 경우 검사일로부터 2일 전(2020.06.20.)을 유증상으로 보고 2일 전 접촉자를 밀접접촉자로 판단(자가격리 중 접촉자: 할아버지, 할머니)

❑ 조치 사항

○ 2020.06.09. 07:30 학교전체 교실, 복도, 돌봄교실 플루건 이용 소독 실시, 급식소 전체 방역 및 소독실시, 방역요원 동원하여 중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손잡이 소독, 학교 자체 방역 가동.

○ 2020.06.09. 14:00 학교 전체 전문 방역업체 이용하여 소독 실시

○ 2020.06.23.08:00 학교감염병관리조직 회의실시(총괄:학교장), 보건당국과 연락

코로나19 특이상황 발생보고 (경상남도교육청)

보고일시	기관명(부서명)	보고자			
		성명	사무실	핸드폰	e-mail
'20.09.07. 09:00	증산초등학교	김민지	055)781-2356	010-7544-8624	minji0516@korea.kr

'20년 9월 7일 9시, 양산시 증산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가 1명 인지되어 보고 실시 함.

❑ 발생 개요

○ 발생현황 : 1명('20.09.07. 9시 기준)
- 밀접접촉자 상황 : 경남 양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진행 중이며, 자택에서 자가격리 실시 함.
- 밀접접촉자 성명 : 박00(9세, 남)
- 밀접접촉 인지일시 : 09.06. 22:36경 / 보건당국 인지여부 : 인지함
- 해당학생의 주변인 밀접 접촉 실태 : 현재 무증상
  ※ 담임교사 1명, 양산 ** 어학원 강사 및 학생
- 동거인 현황 : 총 3명(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중)
  ※ 모(40대, 사무직) / 삼촌(30대, 무직) / 동생(6세, **유치원)

○ 밀접접촉자 소속 : 증산초등학교(공립) (☎대표 : 055-781-2356)
- 학생 및 교직원 : 1806명(교직원 120명, 1학년 299명, 2학년 305명, 3학년 335명, 4학년285명, 5학년 235명, 6학년 227명)

❑ 발생 인지경위

○ 9월 6일 22시 36분 : 교육지원청에서 본교 밀접접촉자 발생 사실 전달 받아 인지 함.

○ 9월 7일 9시 30분 : 경남 양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진행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현황보고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코로나 확진자 보고양식과 밀접접촉자 발생 양식은 다름

* 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장에게 공문 발송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 본교 방역 관리 : 플루건을 이용하여 전문 방역 업체 방문 전 사전 소독 실시 함.

* 방역인력 2명 배치 : 손잡이, 계단난간, 엘레베이터, 중앙현관 문 등 손이 닿는 부위 소독

* 담임교사 : 각자 교실 소독 실시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순번	학생	가족	학년	반	번호	이름	증상	비고
1	O					전**	무	가족확진자(밀접접촉자) ~6/23
2	O					손**	기침 없어짐	같은 E/V 이용, 마스크 착용 X (능동감시대상자)~6/22
3		O				부	무	같은 E/V 이용, 마스크 착용 X (능동감시대상자)
4		O				모	무	동거가족이라서 검사
5	O					성**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6	O					성**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7		O				부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8		O				모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9	O					안**	무	6/7 확진자와 생일파티 참석(밀접)~6/21
10		O				부	무	파티참석X, 동거가족이여서 검사
11		O				모	무	파티참석X, 전** 학생 어머니와 친구
12		O				안** (동1)	무	생일파티 참석
13	O					강**	무	~6/20
14		O				동생 (유치원)	무	~6/20
15		O				부	무	(아버지는 회사 출근 때문에 검사 받음)~6/20
16		O				모	무	같은 이동동선(식당) 통로 옆 식사 1시간 겹침~6/20

<이동동선>

- 2020.06.05. 08:30 **초등학교 등교 발열 없음, 증상 없음
- 2020.06.05. 10:35 **초등학교 3층 여자 화장실 이용
- 2020.06.05. 11:45 **초등학교 3층 양치실에서 손씻기 실시
- 2020.06.05. 12:00 **초등학교 1층 급식실에서 마스크 제거 후 점심식사 시행
- 2020.06.05. 13:40 하교 후 태권도학원(**태권도)

14:00 방문 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유지한 채 수업

-2020.06.05. 15:00~17:00 **어학원 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유지한 채 수업

-2020.06.05. 17:00 집으로 귀가

- 접촉자 관리 실시 : 접촉자 명단 파악 및 동거가족 파악, 동선확보

- 오후에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 2인, 양산교육지원청 주무관 2인 방문

- 양산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방문하여 상황 보고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자 오늘 등교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자세한 등교일정은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돌봄교실과 돌봄교실은 오늘은 정상운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방역관리 등 조치계획서 작성

신나게 배우고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중/산/초/특/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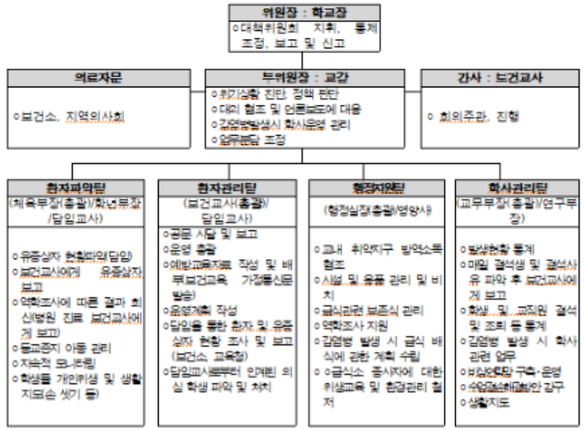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방역관리 등 조치계획

제공일 : 2020. 06. 09. 체육부 : 김민지

1. 확진환자 발생 시 업무 전담 부서 및 전담자 지정

교장	· 지역 교육청 교육장 보고
교감	· 지역 교육청 상황실 및 언론 대응
교무	· 전교생 명렬표 준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검사 번호 부여
체육	· 외부인 인력사항 파악
담임	· 교실 자리 배치도 준비 · 학급 학생들 학원 정보 등 역학조사 사전 점검표 내용 파악 · 확진환자 등교일 통행 학부모 파악
행정	· (학교) 선별진료소 세팅 협조, 긴급 방역 협조
보건	· 보건소 및 방역당국 협조

2. 학생감염병 관리조직 활성화, 운영 : 탐별 임무 숙지



- 외부기관과 연락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른 업무분장
  - 가. 지역 교육청 교육장 보고: 교장
  - 나. 지역 교육청 상황실 및 언론대응 : 교감
  - 다. 학부모 민원 대응 및 학교상황 학부모 문자 및 통신문 관리: 교무
  - 라. 보건소 및 방역당국 연락: 보건
  - 마. 검사대상 학생 및 학부모 질서유지 및 안내 : 연구

3. 확진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가.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콜센터1339, 관할 보건소, 교육청 비상대책반 보고

- 교육청 상황관리 비상대책반: 055-379-3082(이채민)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55-392-5224(성민정)

○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교내 **근무자**에게 **통보**

* 일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우리학교 근무자 외에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 행정실**

나.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교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일시적 관찰실**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환자파악팀, 학사관리팀**

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4. 시설 폐쇄 등 조치 : 행정실

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나. 시설 폐쇄 등의 범위: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준정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다.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5.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6. 복무관리 등 조치사항 : 교감, 교무

○ 출·퇴근시간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임신부·만성질환자 등은 재택근무 등 **우선 고려**)

○ 보고·회의는 **전화**와 **온라인 수단 활용** 및 **참석자 수 최소화**

○ **확진환자 추가 발생** 대비 **업무계획** 수립·추진 : 교무부

02 코로나19 학교 대응활동

<필요한 대응 자료>

* 각 반별 시간표
* 교실 배치 도면 및 교실 자리 배치도
* 코로나19 비상상황 기초조사자료
* 서식8, 역학조사 사전 요청자료(학생, 교직원 정보)
* 고위험군 명단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전교생 명렬표
* 외부인 방문 기록지

전교조
보건위원회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노하우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에 기반한

중재(Mediation)

이연미(비폭력대화연구소 소장, NVC국제공인트레이너)

프로그램의 목적

우리의 비전은 전 세계 가정과 조직에서 이 기술들이 문화적인 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이며, 우리 목적은 사람들이 서로를 듣는 간단한 방법론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자신의 모든 면과 갈등의 모든 상황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이 기술들을 일상의 삶에 통합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도울 것이다.

1. NVC 중재 - 자신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기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2. 의도

NVC 중재에서, 중재자의 첫 번째 의도는 연결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과, 그리고 당사자과 그 후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통은 이러한 연결을 통해, 양측을 분리시켰던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고,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서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도록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중재의 3가지 목표

1) 각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경험과 욕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각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다.

4. 네 가지 중재상황

1) 내면 :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측면 간에 갈등이 있을 때.
2) 나와 너/상호관계 : 내가 갈등의 한 당사자 일 때.
3) 비공식적 : 중재를 요청 받기 전에 갈등상황에 들어가 중재 하는 것.
4) 공식적 :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의 요청을 갈등 당사자로부터 받았을 때.

5. NVC중재모델 및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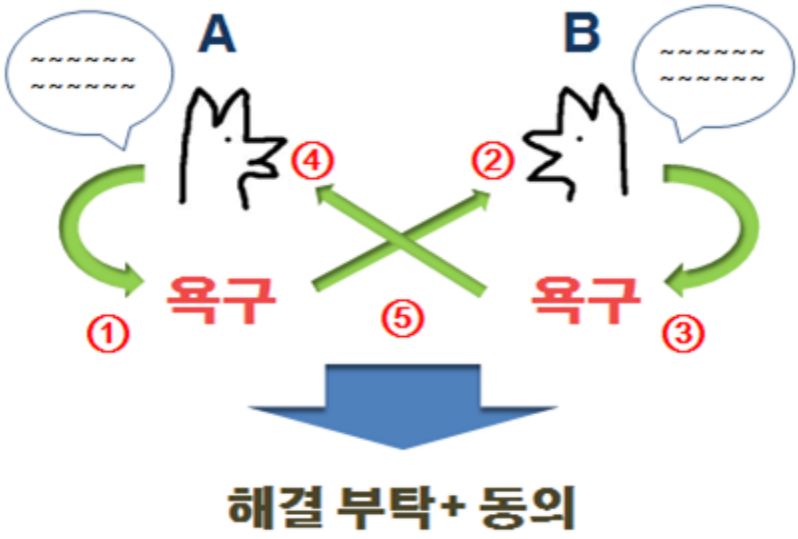
1) 공식적인 중재에 부탁을 받아 간 경우, 모든 사람에게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 때 중재자의 중립과 참여자들의 비밀보호, 과정에서의 반복요청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얻는다.

2)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대개 힘든 사람의 얘기부터 듣는다

3) 상대방의 욕구를 서로 이해해서 유대감이 생길 때까지 ①-④를 반복한다. 서로의욕구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점차 반복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4) 서로의 욕구에 연결이 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기부탁과 상대에게 하는 부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로 구체적으로 동의된 행동에 대한 확인을 한다. 이 단계로 너무 서둘러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서로 축하와 감사를 나눈다.



① A를 공감하고, A의 욕구가 드러나도록 한다.
② B에게 A의 욕구를 반영해서 말하도록 부탁한다.
③ B를 공감하고, B의 욕구가 드러나도록 한다.
④ A에게 B의 욕구를 반영해서 말하도록 부탁한다.
⑤ 해결 부탁과 동의된 행동의 확인

9가지 중재 기술

1. **공감.** 중재자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순간에서도 존재로 있기, 침묵 공감, 이해, 욕구 언어(관찰/느낌/욕구/부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연결 부탁.** 중재자는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해와 상대방의 욕구를 반영해 주거나 다시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중재자는 상대방이 반영하는 것을 들었을 때나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자신이 반영할 때의 느낌이 어떤지 물어본다.
   a. *"A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b.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3. **귀 잡아 당기기.** 한쪽이 자신의 이해와 상대방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욕구를 기꺼이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중재자가 다시 부탁한다.
4. **응급 공감.** 상대방을 공감하기에는 갈등의 한 당사자가 너무나 큰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중재자가 인지했을 때 공감의 대상을 바꾼다.
5. **추적하기.** 중재자가 전체 프로세스의 흐름을 추적한다. 특히 언급되었던 욕구가 상대방으로부터 반영되지 않았거나 언급되지 않았을 때 추적한다.
6. **끼어들기.** 중재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그 사람과 전체 프로세스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끼어든다.
7. **자기공감.** 중재하는 동안 중재자가 순간의 자기연결 연습(SCP)과는 별도로 자기공감을 위해 관찰/느낌/욕구/부탁을 사용할 수 있다.
8. **자기표현.** 중재 프로세스 중에 양 당사자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자신의 욕구와 부탁을 표현한다.
9. **해결 부탁.** 중재자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연결된 명료하고 구체적인 부탁을 하도록 돕는다. 중재자는 또한 강요를 부탁으로 표현하고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상호의존).

부탁 국면에서 'NO 뒤의 욕구' (THE NEED BEHIND THE NO, NBN) 프로세스

1. 부탁 뒤에 있는 욕구와 공감으로 연결
2. NO 뒤에 있는 욕구와 공감으로 연결
3.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탁을 찾는다.

공감

공감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침묵 속에서도 일어난다. 공감을 할 때 우리는 자신과 상대방에게 현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순간의 상대방의 느낌과 Need에 연결하고 자신의 이해를 표현한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고 상대가 충분히 이해 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공감을 받으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다시 연결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상대의 Need가 무엇인지, 그 Need를 충족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갈등을 일으키게 했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공감의 네 요소

1. 존재로 있기: 주의를 온전히 상대에게 두고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에서 듣는다.
2. 침묵 공감: 상대에 대한 이해와 Need 언어를 침묵으로 생각한다.
3. 이해와 의미: 상대방의 현실과 경험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이해 받는다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들은 것을 되돌려 말해준다.
4. Need 언어 (관찰/느낌/Need/부탁): 관찰, 생각, 느낌, 원하는 것을 Need와 연결한다. Need를 음미하거나 Need에 깊이 연결하고, 부탁을 듣는다.

존재로 있기

공감에서 이 요소는 생각을 초월하며 의식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듣는 것이다. 존재로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주의와 의식을 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나 생각을 내려놓는다.

침묵 공감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듣는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Need를 침묵으로 추측한다.

이해와 의미

공감에서 이 요소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진실이고 현실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에 와 닿는 언어로 상대가 있는 곳에서 반영하고자 시도한다.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참조의 틀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사람의 관찰, 느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되돌려 말해 준다. 상황에 대한 생각도 관찰의 형태로 어떤 생각들은 반영한다. 우리는 生의 내적 주관적 참조의 틀에 초점을 둔다.

욕구 언어 (관찰/느낌/Need/부탁, OFNR)

이 요소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생동하는 Need를 주의 깊게 듣고 말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찰, 생각, 느낌, 구체적인 바람을 Need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이미 표현한 것에서 우리가 들은 Need를 반영해 주거나, 혹은 듣는 사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번역하여 Need로 바꾸어 말하거나, Need를 추측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Need에 연결되고 나면,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Need를 음미하고, 그 Need에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침묵으로 할 수도 있고, Need의 약간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거나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하고 깊게 마음에 와 닿아 보이는 Need를 언어로 반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자기 연결이 되도록 공간을 만들어준다. Need와 연결되고 난 후, 우리는 상대가 스스로에게 하는 부탁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부탁이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공감의 주요 원칙

현재의 힘. 상대방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때 .....라고 느끼나요? (왜냐하면 _____이 필요하기 때문인가요?)"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공감하기 vs. 표현하기. 공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관한 것이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 안에서 '생동'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유지한다. 초점을 분명히 하고 나와 상대방 간에 연결을 공감을 할지 자기표현을 할지를 분명히 한다.

따라가기 vs. 이끌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기보다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하는 말을 따라간다.

결과 이전에 연결. 상대방에게 생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연결할 때 공감이 생겨난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돕거나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경험에 온전히 함께하기.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이끌기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따라간다.

공감적으로 추측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느낌을 단정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추측한다.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추측한다. 그 후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추측이 정확했는지 살펴보고, 그 관찰에 기반해서 다음 소통방식을 선택을 한다. 공감적으로 추측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추측을 하는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현재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추측이 정확한지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추측이나 반영을 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공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충족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현재 경험과 욕구를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상대방의 자세한 과거 이야기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느낌, 욕구, 원하는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

공감은 선택이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동안 상대방을 공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자기 공감이나 자기표현에 초점을 두고 싶을 수도 있다. 공감 역시 어느 순간에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방법 중 하나다.

공감은 연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 상대방의 경험에 함께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부분은 상대방의 관찰, 느낌, 욕구, 원하는 것을 추측하는 특별한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공감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는 공감을 연습할 수 있고, 공감하는데 점차 나아질 수 있다.

공감이 아닌 것들. 동감하기, '고치려는' 조언하기, 안심시키기, 설명하기, 교육하기, 바로잡기, 한 술 더 뜨기, 다른 이야기 꺼내기, 심문하기, 말을 끊기.

자기연결 연습(Self-Connection Practice, SCP)

싸우거나-도망가거나-얼어붙는(Fight-Flight-Freeze) 반응에서 연결로

우리가 볼 때 갈등은, 트리거가 되었을 때 뇌의 깊숙한 부분(대뇌변연계 limbic system, 편도체 amygdala)에서 생물학적인 '싸우거나-도망가거나-얼어붙는(fight-flight-freeze, FFF)' 생존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보호와 방어를 하려는 습관적이고 자동반사적인 생각, '적 이미지'와 행동이 함께 나타난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만, 여전히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다. 습관적인 패턴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생각과 느낌을 우리 내면의 생동감, Need와 연결하는 연습을 하라. 존재로 있기와 내면의 '연결'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에 반응하라.

짧은 버전

호흡(현재)

-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한다.
-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내려놓고, 호흡으로 돌아간다
- 생각하거나,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으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한다.

몸(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 몸, "내면의 몸"에 주의를 둔다.
- 몸의 감각, 정서, 특히 FFF반응을 느낀다.
- 몸에서 흐르는 에너지 생동감을 느낀다.

욕구(집착하지 않으면서/공시성)

- 몸과 마음에서 긍정적인 "전환"이 생길 수 있도록 욕구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한다.
- 수단 방법과 구별된 욕구를 소리 내어 말한다.
- 욕구에 연결되었을 때 몸의 반응을 느낀다.

자기연결(Self-Connection Practice, SCP) I

앉아 계신 자세가 편안한지 살펴보시고..... 눈은 뜨셔도 좋고 감으셔도 좋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갖는다.)

내 코를 통해 들어가는 들숨, 내 코를 통해 나가는 날숨,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는다.)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는다.)

이번에는 좀 긴 호흡을 합니다.
마치 내가 들이쉬는 숨이 내 배꼽까지 닿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긴 호흡을 해보세요.
속으로 숫자를 세어도 좋습니다.
다섯 정도, 천천히, 들이쉬는 숨에 숫자를 세고, 내 쉬는 호흡도 길이를 같이 다섯을 세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긴 호흡을 세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는다.)

다시 편안한 호흡으로 호흡하세요.
이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려봅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주의를 옮기시면서 내 몸에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감각들을 살펴봅니다.
혹시 긴장되거나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잠깐 주의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한 두번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다시 다른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보세요.
(잠시 시간을 갖는다.)

이제 가볍게 주의를 배로 옮겨보세요.
배로 호흡한다고 상상하시고 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욕구는 웰빙입니다.
안전, 생계, 질서
나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잘 충족되었을 때 그 때 마음들을 떠올려보시고,
그 때 느낌과 연결해보세요.
(잠시 시간을 갖는다.)

이제 주의를 가볍게 가슴에 두시고,
가슴으로 호흡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슴과 관계있는 욕구는 연결입니다.
공동체, 공감, 이해
나의 이런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그 때 느낌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를 떠올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갖는다.)

(잠시 시간을 갖는다.)
천천히 주의를 머리에 두시고,
머리로 호흡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리와 관계되어 있는 욕구는 자기표현입니다.
이때 솔직함, 자유, 의미
이런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이 때 기쁘고 신나고 즐거웠던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잠시 시간을 갖는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떤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무리가 되시면, 나의 주의를 이 방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When Things Fall Apart

Life is a good teacher and a good friend. Things are always in transition, if we could only realize it. Nothing ever sums itself up in the way that we like to dream about. The off-center, in-between state is an ideal situation, a situation in which we don't get caught and we can open our hearts and minds beyond limit. It's a very tender, non-aggressive, open-ended state of affairs. To stay with that shakiness--to stay with a broken heart, with a rumbling stomach, with the feeling of hopelessness and wanting to get revenge--that is the path of true awakening. Sticking with that uncertainty, getting the knack of relaxation in the midst of chaos, learning not to panic--this is the spiritual path. Getting the knack of catching ourselves, of gently and compassionately catching ourselves, is the path of the warrior. We catch ourselves one zillion times as once again,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harden into resentment, bitterness, righteous indignation - harden in any way, even into a sense of relief, a sense of inspiration.
Everyday we could reflect on this and ask ourselves, "Am I going to add to the aggression in the world?" Everyday, at the moment that things get edgy, we can just ask ourselves, "Am I going to practice peace, or am I going to war?

Pema Chödrön, from *When Things Fall Apart* (p.10)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삶은 좋은 스승이기도 하고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꿈꾸는 방식대로 가지 않는다. 흔들림 그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깨어진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 소리 나는 배고픔을 움켜쥐고, 희망이란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불확실성을 붙잡고 혼돈의 한가운데서 편안해지는 법을 알아가고 공포스러워 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길이다. 자신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영적 전사의 길이다. 우리는 수 억만 번 반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우리가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분노로, 쓰라림으로, 의분으로 단단해진다. 어쨌든 우리는 단단히 굳어지는데, 평안함, 영감 속에서도 굳어진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 있는 공격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이 세상에 이러한 공격성을 더 하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모든 것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나는 평화를 연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쟁을 연습하는가?"

Pema Chödrön, from *When Things Fall Apart* (p.10)

느낌말 목록 (Feeling List)

※ 이 느낌 list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느낌을 더 추가하십시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 감동받은, 뭉클한, 감격스런,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 고마운, 감사한
-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흔쾌한, 기쁜, 반가운, 행복한
-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하는, 훈훈한, 정겨운, 정을 느끼는, 친근한
-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홀가분한
-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안심이 되는, 차분한, 가벼운
-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
- 흥미로운, 매혹된, 재미있는, 끌리는
- 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 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들뜬, 희망에 찬, 기분이 들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 쓰이는, 뒤숭숭한
-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 든
- 불안한,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는, 안절부절못하는, 조마조마한, 초조한
- 불편한, 거북한, 겸연쩍은, 곤혹스러운, 멋쩍은, 쑥스러운, 언짢은,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찝찝한
- 슬픈, 구슬픈, 그리운, 목이 메는,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애끓는, 울적한, 참담한, 처참한, 한스러운, 비참한, 안타까운, 처연한
-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야속한, 낙담한, 냉담한, 섭섭한
-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막막한, 쓸쓸한, 허한
-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꿀꿀한
- 피곤한, 고단한, 노곤한, 따분한, 맥 빠진, 귀찮은, 지겨운, 절망스러운, 좌절한, 힘든, 무료한, 성가신, 지친, 심심한
- 혐오스런, 질린, 정떨어지는
- 혼란스러운, 멍한, 창피한, 놀란, 민망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 화나는, 끓어오르는, 속상한, 약 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분개한, 억울한, 열 받는

느낌과 혼동하기 쉬운 느낌이 아닌 것들

강요당한	버림받은	이용당하는
거절당한	오해받은	인정받지 못하는
공격당한	위협당하는	조종당하는
궁지에 몰린	의심받은	학대받은
따돌림 당하는	무시당한	협박당하는
배신당한		

욕구목록 (Need List)

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

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 운동

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 보호,
일관성, 안정성, 정직, 진실

놀이/재미
즐거움, 재미, 유머, 흥분

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보람, 의미,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 (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성,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

진실성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

아름다움/ 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자기구현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소통하고 공감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요!

경남비폭력대화연구회 삽량초 이혜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갈등과 함께합니다. 금방 다투었다가도 또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 모습이지만 교실 속 갈등 상황을 지켜보는 교사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많은 갈등을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 스스로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양산 삽량초등학교 5학년은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평화란 뭘까?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학생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뭘까요?", "여러분은 언제 평화를 느끼나요?"

『평화는요』(토드파, 예림당), 『평화란 어떤걸까?』(하마다 게이코, 사계절) 그림책을 함께 읽고 아이들과 평화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란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거예요!"라고 하기도 하고, "폭력과 차별이 없는 거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한 평화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평화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토의해 보았습니다. 표현한 그림은 복도에 게시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장소로 꾸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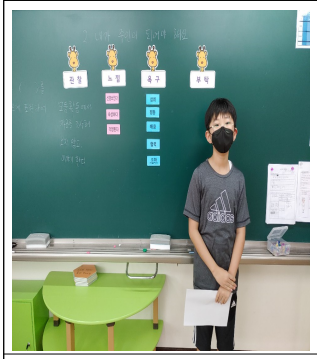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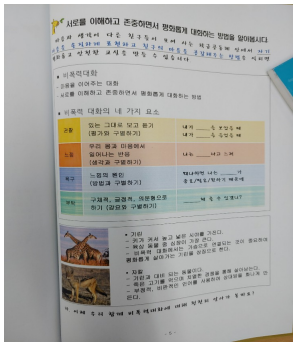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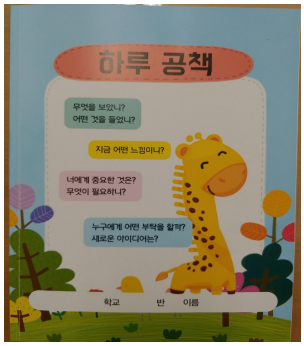


평화란 무엇일까? 그림으로 표현하기

2. 비폭력대화를 만나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 사는 학급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방법을 익히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폭력대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폭력대화란 마음 속의 폭력이 가라앉고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유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대화입니다. 5학년 각 학급에서는 창체와 도덕 시간을 활용하여 비폭력대화의 4가지 요소(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대해 익혔습니다. 색안경 끼지 않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 진정한 느낌 표현하기,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세심히 살피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긍정적으로 부탁하기 등의 활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돌보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루공책 쓰기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하루공책이란 오늘 하루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써 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나 표현법을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table>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비폭력대화 활용 수업</td>
<td>비폭력대화 써클 활동</td>
<td>평화 워크북</td>
<td>하루공책</td>
</tr>
</table>

3. 14DAY 공감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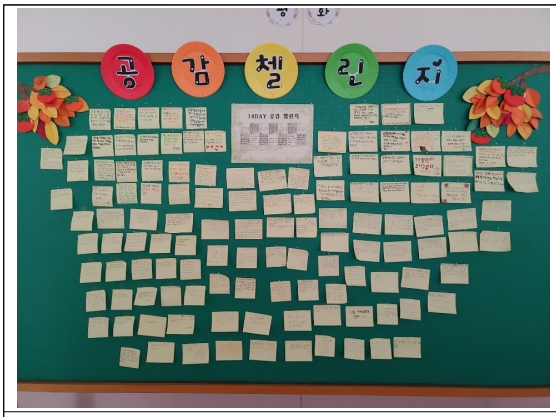
2학기로 접어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도록 재미있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아이들 삶으로 잘 전해지고 있을까? 원격과 등교수업의 혼란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있을까?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14DAY 공감챌린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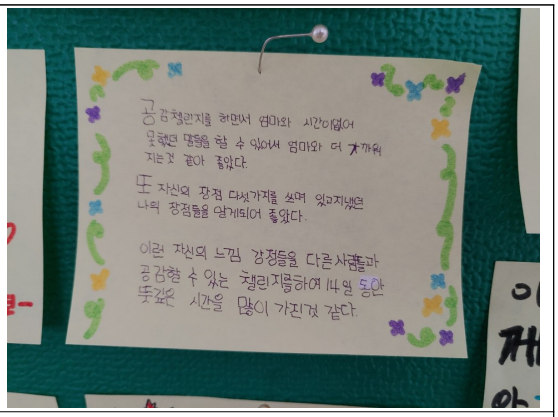
14DAY 공감챌린지란 14일 동안 주어진 공감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감밴드를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다가 그 날의 공감미션을 성공하면 왼쪽 손목으로 바꿔 착용하게 하였습니다.

<14DAY 공감챌린지 미션>

10/18 공감밴드에 적혀 있는 질문 사용해 보기	10/19 하루 공책에 나를 힘나게 하는 말 다섯 가지 쓰기	10/20 감사한 분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10/21 지금 나의 느낌과 욕구를 찾아서 선생님께 문자 보내기	10/22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	10/23 하루 공책에 나의 장점 다섯 가지 쓰기	10/24 도움을 원하는 사람 도와주기
10/25 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 음악 찾아 듣기	10/26 그림책 1권 읽고 등장인물 1명을 골라 느낌과 욕구 찾아 적기	10/27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분간 내 이야기 하기	10/28 가을이 느껴지는 사진 찍어 선생님께 보내기	10/29 듣고 싶은 말을 가족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듣기	10/30 하루 공책에 공감 챌린지 도전을 스스로 축하하는 글 쓰기	등교한 날 선생님과 밝게 인사 나누고 싸인 받기 ( )

공감챌린지 활동이 끝난 후 한 학생은 “공감챌린지를 하면서 엄마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엄마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좋았다. 또 자신의 장점 다섯 가지를 쓰며 잊고 지냈던 나의 장점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이런 자신의 느낌,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챌린지를 하여 14일 동안 뜻깊은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공감챌린지 소감 나누기 게시판

4. 웃음을 지켜요! 스마일키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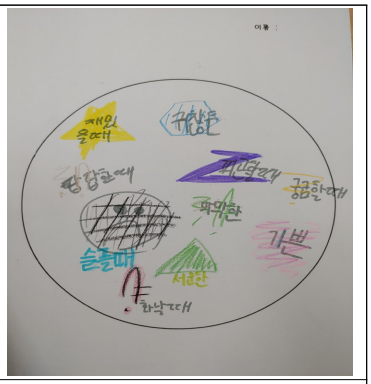
스마일키퍼스란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한 자기 인식 및 사회적 인식 계발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놀이 환경에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첫 시간은 자기 인식 시간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되고 싶은 동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강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읽어 주고, 공감이 필요할 때는 응급 공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강사는 편견 없이 아이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어떠한 지시도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이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총 4번의 만남을 가지며 아이들은 나와 친구들의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하고, 그러

한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방법을 익혔습니다. 스마일키퍼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그동안 남에게 의식하며 남의 장단점만 알고 나를 잘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번 캠프로 나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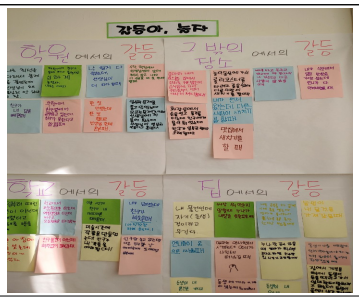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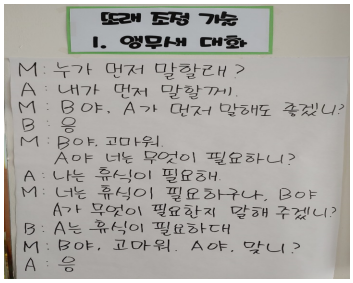




스마일 키퍼스 활동

5. 또래 조정 동아리

또래 조정이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 당사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래 친구가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또래 조정자라고 합니다. 조정자가 교사나 부모가 아닌 친구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쉽고, 늘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야말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삽량초에서는 또래 조정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또래 조정 동아리를 집중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제 상황에 대한 조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 다양한 기술을 익히며 “우리의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또래조정 동아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는 욕구라는 말의 뜻도 몰랐는데 또래조정 활동으로 내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과 다툼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 기쁘고 친구들이 싸우면 배운 방법으로 풀어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과 또래 조정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래 조정 실습

삽량초 5학년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5학년에서 나눈 활동들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기초가 되어 삽량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VC 중재모델로 진행한 학급 또래 갈등 중재

경남비폭력대화연구회 장유초 송호선

1. 상황

수업을 마치고 급식소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복도에 줄을 서는 중. 교사가 잠시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다녀왔더니 교실에서 남학생(A,B) 두 명이 주먹 다짐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음. 급식 시간이 임박해서 우선 중단시키고 급식 후 두 학생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갖자고 함.

2. 사전중재

사전중재의 목적이 본 중재 전에 중재자(교사)와 당사자(학생A,B)의 라포를 형성하고 갈등 당사자를 공감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대화할 준비를 하는 것임. 그러나 급식 후 A, B 학생 둘 다 학원을 가야 해서 긴 대화시간을 가지기 힘들다고 하여 아주 짧게 사전중재를 진행함.

<교사- A학생>
교사 : 지금 기분이 괜찮아? B랑 다투게 되어 놀랐지? 화도 많이 났겠다 (공감)
A학생 : 지나가는데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비키면 될건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교사 : 니 자리까지 빨리 가로질러 가고 싶었어? (욕구)
A학생 : 네. 안그래도 급식시간 늦어져서 짜증나는데
교사 : 급식도 빨리 먹기를 원했구나(욕구). 급식을 먹고 B랑 잠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부탁)
A학생: 네.

<교사- B학생>
교사 : 지금 느낌이 어때? A한테 욕을 듣고 맞아서 놀랐지?
B학생 : ...
교사 :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 많이 힘들었구나(공감)
B학생 : 그냥 이야기하기 싫어요.
교사 : 조금 전 상황에 대해 떠올리기가 어렵고 힘들어? ?(공감)
B학생 : 네.
교사 :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욕구) 이렇게 A랑 다투고 헤어지게 되면 더 힘들고 화날 수도 있을거 같은데, 급식 후 A랑 잠시 이야기하고 가도 되겠니? (부탁)
B학생: 네.

3. 본중재

교사/ A학생/ B학생

교사 : 점심 맛있게 먹었어? 집에 일찍 가고 싶었을텐데 급식 전 교실 안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함께 대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남아줘서 고마워.
A랑 B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상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을 표현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친구가 이야기하기로 하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 상대의 말을 들은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그땐 들은대로 반복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유지 하는거야.

(공식적인 중재에 부탁을 받아 간 경우, 모든 사람에게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 때 중재자의 중립과 참여자들의 비밀보호, 과정에서의 반복요청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얻는다.)

교사 : 누가 먼저 이야기해줄래?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부터 이야기해보자.
B학생 : (침묵하며 A를 쳐다본다)
교사 : A가 먼저 이야기할래?
A학생 : 네.
교사 : (B를 보고) A가 먼저 이야기해도 되겠니?
B학생 :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이야기를 들을 때, 대개 힘든 사람의 얘기부터 듣는다.)

A학생 : 화장실 다녀왔는데 B가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 낙서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새끼야" 하고 쳐다보더니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빡쳐서 때렸어요.
교사 : 당시 상황을 잠시 함께 정리해볼게. B가 칠판에 낙서하고 있는데 니 자리로 돌아가려고 "비켜"라고 했는데 비켜주지 않아서 니가 때렸다는 거야?
A학생 : 네. 제가 먼저 치고, B가 나를 쳤는데 갑자기 울었어요.
교사 : 자리로 빨리 돌아가지 못해서 화나고 불편했던거야? **(공감)**
A학생 : 내가 가던 길로 가려는데 방해되니 짜증나고 번거로웠어요.
교사 : 급식을 빨리 먹으러 가고 싶고, 자기 자리까지 편안하게 가고 싶었던 거네.
A학생 : 네
교사 : A는 평소 가던 길로 자리까지 편안하게 가고 싶고 급식을 빨리 먹고 싶었다고 들었어. 들은 것을 이야기해줄래? **(연결부탁)**
B학생 : 나도 급식 빨리 먹고 싶은데, 칠판 지우며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에요.
교사 : B야, 너의 이야기도 들을건데, 그 전에 A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줄래? A는 평소 자기가 가던 길로 돌아가 급식을 빨리 먹으러 가고 싶다고 했어. **(귀잡아 당기기)**

B학생 : 평소 자기가 다니던 길로 돌아가서 급식을 빨리 먹고 싶다고 했어요.

교사 : 혹시 A는 더 할 이야기 있어?

A학생 : 아니요.

교사 : 그럼 B가 이야기해볼까? A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

B학생 : 칠판에 시간표를 적고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A가 오더니 비키라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 후 뒤돌아보다가 부딪쳤고, A가 목을 잡고 헤드락을 걸었는데, 몸이 숙여져서 어디에 부딪쳤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교사 :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

B학생 : 화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교사 : 많이 아팠겠구나.

B학생 : 네.

교사 : 선생님을 도우려고 칠판을 지우고 있었던거야?

B학생 : 분필 지우개가 재미있기도 하고 칠판도 지우려고 했어요.

A학생 : 칠판 만진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방해를 주면 안되지.

교사 : 잠깐만. B 이야기 마무리하고 A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겠어? **(끼어들기)**
B야 계속 이야기해볼래?

B학생 : 그냥 칠판을 지우다 뒤돌아 봤는데 부딪친거에요. 그랬는데 해드락 걸어서 너무 아팠어요.

교사 : 선생님을 도와 즐겁게 칠판을 지우고 우연히 부딪친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B학생 : 네.

교사 :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A야 B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들은 것을 이야기해줄래? **(귀잡아당기기)**

A학생 : 선생님을 도와줄려고 즐겁게 칠판 지우다가 우연히 부딪친거라고 하네요.

교사 : (B를 보며) 맞니?

B학생 : 네.

교사 : 함께 이야기 하면서 서로가 원했던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니?
누구부터 이야기해줄래? **(해결부탁)**

A학생 : 지나가다가 앞에 B가 있으면 돌아가든지, 비키라고 말로 해야겠어요.

교사 : A는 B의 말을 들으니 어때?

B학생 : 그러면 좋을거 같아요.

교사 : B는 어떻게 하고 싶어?

B학생 :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을 때는 칠판을 지우지 않고 급식 먹게 빨리 줄을 서야겠어요.

교사 : A야 B의 제안이 어때?

A학생 : 그러면 될거 같아요. 나도 급식 빨리 먹는거 좋아요.

교사 : 혹시 둘 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니?

A,B학생 : 아니요.

교사 :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께. 오늘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